건축사 533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3 09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건축설계산업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집은 꿈을 꾸는 작은 세계
특 집 호남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KOREAN ARCHITECTS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3 SEPTEMBER 9

COVER STORY

표지사진 :
양병범 건축사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사진_김병국(베누스튜디오)

발 행 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장영호, 백상월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주)미래엔 02_3475_3836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Jang, Yeong-ho / Baik, Sang-worl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21 칼 럼 COLUMN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022 에세이 ESSAY
건축설계산업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Architectural design industry should be fostered to be World Top 5
_김창길

집은 꿈을 꾸는 작은 세계
House, small world of dream
_공희정

026 특집 SPECIAL
호남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Looking for Identity of Honam Regional Architecture

034 空間共感 CONGENIAL SPACE
_한정훈

035 만평 CARTOON
_김낙중

036 회원작품 WORKS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STAR CENTER AT JEONJU UNIVERSITY
_이길환_KIRA | (주)길 건축사사무소

국립 나주문화재 연구소
NAJU NATIONAL RESERCH INSTITUDE OF CULTURAL HERITAGE
_조성호_KIRA | ㈜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Contents 533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3년 9월호

동신대학교 기숙사 3, 4
DORMITORY 3 AND 4 AT DONGSHIN UNIVERSITY
_박홍근_KIRA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플로팅 매스
FLOATING MASS
_정명환_KIRA |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CGI센터
COMPUTER GENERATION IMAGE CENTER
_양병범, 오금열, 길종일_KIRA |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070 설계경기 COMPETITION
하남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HANAM MULTIPURPOSE GYMNASIUM

코이카 창립 22주년 기념
제1회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대학(원)생 공모전
THE 1ST KOICA ESTABLISHMENT CEREMONIAL ARCHITECTURAL COMPETITION

080 연애편지를 읽다 ③ READING LOVE LETTER
물레를 열면 당신이 그립소……
Take the spinning wheel out……I miss you
_정이숙

082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제청
Request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cquirement of School Site
_성승환

084 연재 Ⅰ SERIAL Ⅰ /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⑩
한옥은 근대를 어떻게 맞이했나?
Hanok's Response to modern Society and Change
_안창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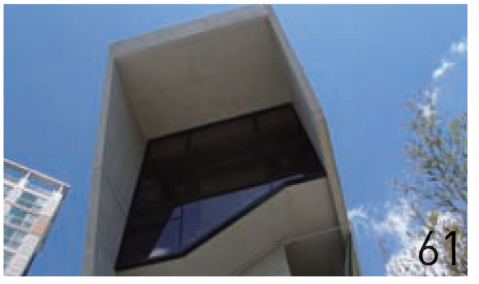
092 연재 Ⅱ SERIAL Ⅱ / 건축과 함께하는 시의 세계 ⑤
시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_장양순

098 연재 Ⅲ SERIAL Ⅲ
한국건축 태동의 주역 – 예산지역 건축사 김세환(Ⅲ)
Architect, Kim, Se-hwan, From Yesan, Who Pioneered Korean Architecture.
_김득수

103 기고 Ⅰ FEATURE Ⅰ
한국 근 · 현대 건축기술사연표(3/3)
Modern Korean Architectural Technology Chronological Table
_한동수, 정승이

108 기고 Ⅱ FEATURE Ⅱ
카일라스와 마나사로바는 나의 영혼을 일깨우고(上)
Kailas and Manasarova awakened my soul
_김영수

114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건축설계산업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Architectural design industry should be fostered to be World Top 5

김창길 | Kim, Chang-gil, KIRA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경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창우정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쌓았다. 주요 작업으로는 번동 글로리타워, 부산 락앤스티치공장, 박순용정형외과, 춘천감정리주택, 화성 조암리주택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11년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2년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2년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2012년신진건축사상을 수상하였다.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업계와 학계, 연구원, 정부가 함께 나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 · 학 · 연 · 관 T/F팀(9개)을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일자리 창출(제조업대비 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크고[1],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상해(중국), 두바이(UAE), 바르셀로나(스페인), 베를린(독일) 등은 건축분야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자국의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높였으나,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는 업체당 매출 기준으로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상징성이 높은 대형 랜드마크 건축물은 외국 유명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KPF), 동대문디자인프라자(Z.하디드), 아셈무역센터(SOM)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축물을 살펴 볼 수 있다.

금번에 구성된 산 · 학 · 연 · 관 T/F팀(팀별로 팀장 1명, 간사 2명, 팀원 5~7명 내외로 구성)은 국토부, 국건위, AURI 및 민간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T/F팀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 또한 청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개별 T/F팀들은 주어진 과제 해결에만 집중하여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였다.

T/F팀에서는 공공건축설계에는 공모방식를 우선 적용하고, 공모 참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설계에 적합한 PQ 기준 마련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통합을 추진하고, BIM을 활성화 하며, 건축 R&D도 확대하는 등 건축설계 환경 개선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진건축사 육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홍보 등 건축 문화진흥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T/F 운영으로 산 · 학 · 연 · 관이 협업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도출은 물론 실행까지 이어짐으로써 우리 건축설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TOP5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T/F에서 논의된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4.6.5. 시행)의 하위규정 제정시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인건축사 양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 홍보 등 건축문화진흥을 추진하며 해외 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라 할 것이다. 건축설계 산업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창조적인 사고가 우수한 건축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5년안에 세계 TOP5 수준의 건축설계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건축설계산업을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 연구원이 함께 나선다는 것은 무척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우선 국내에 수많은 랜드마크 건축물을 발주한 건축주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살펴 보면 정말로 건축설계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엿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약 환경 개선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동안 발주처의 횡포 때문에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설계변경의 대가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

그리고 공공건축설계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공모참여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우수한 디자인으로 실력을 평가받는 제도는 무척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건축통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합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축통합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설계의 질적 향상 및 품질 우위의 시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BIM을 활성화하는 것은 건축설계 환경개선에 향상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IM의 준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인건축사 양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 홍보 등 건축문화진흥을 추진하며 해외 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라 할 것이다. 건축설계 산업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창조적인 사고가 우수한 건축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신인건축사를 발굴하기 위해 신인건축사대상을 제정한 일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건축문화 홍보를 위해 건축영화제에 지원을 하는 것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에 언급된 세계 5대 건축설계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두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시행해서 5년안에 건축설계 산업이 세계5위가 될 수 없더라도 향후 10년, 20년후에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국민에게 우리의 건축문화의 자긍심을 널리 알려 우리의 아이들이 대한민국 건축사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를 사랑하고 이어 한류의 중심이 K-POP, 한식을 뛰어 넘어 한국문화, 한국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져 본다.

[1] 1,000억투자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제조업	900억/626억 (약1.4배)	1,705명/920명 (약 1.9배)

집은 꿈을 꾸는 작은 세계

House, small world of dream

공희정 | Kong, Hee-jung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시장조사팀장

어려서부터 '테순이'라 불릴 만큼 텔레비전과 친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와 같은 라디오 심야 방송은 내 인생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준 거름이었다. 그래서 방송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다. 드라마 작가나 라디오 DJ가 되진 못했지만, 평생 방송계에서 전자파를 즐기며 살고 있다. 지금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근무중이며, 인터넷 조선일보에 〈드라마 살롱〉을 연재 중이다.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부터 나는 큰소리로 엄마를 부른다. "엄마, 엄마 아아아~~~" 그리곤 손을 높이 들어 대문 문고리를 잡고 탕탕탕 두드린다. 자동 개폐 장치가 흔하지 않던 시절, 엄마는 "그래, 기다려" 라고 하시며 대문으로 달려와 문을 열어주셨다. '삐거억' 한옥 대문에 걸린 빗장이 벗겨지는 소리, 문이 열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의 환한 얼굴이 보인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드는 그 안도감. 집은 그렇게 불안한 즐거움이 있는 외부 세상에서 돌아와 안락한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다.

초등학교 초반까지 살았던 집은 ㄷ자 모양의 한옥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장독대가 있는 마당과 수돗가는 항상 청결했고, 부엌에선 맛난 내음이 솔솔 퍼져 나왔다. 요즘 같은 여름날이면 넓은 대청마루에 벌러덩 누워 온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함을 즐겼다. 비오는 날이면 대청마루 한켠에 있는 뒤주 위에 올라 작은 창문으로 뒷집 마당을 보았다. 마당에 꽃밭이 있던 뒷집, 빗방울이 나뭇잎에 부딪는 소리가 멋진 음악 같았다.

가을이면 문이란 문은 모두 떼어 마당에 가득 펼쳐놓고 창호지를 바꿔 붙였다. 한 입 가득 물을 물고 '푸우'하며 물을 뿜어대던 엄마가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나도 따라하겠다고 물 한 모금 입에 물어 보았지만 입 힘이 약한 나는 제대로 뿜어보지도 못하고 지르르 흘려버리고 말았다. 일 년 동안 우리 식구들의 가림막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빛바랜 창호지는 곱게 곱게 벗겨지고, 깨끗하게 닦인 나무 창틀 위엔 하얗고 보송한 새 창호지가 곱게 내려앉았다. 마지막 화룡정점(畵龍點睛)은 문고리 부근에 붙이는 빨간 단풍잎. 비로소 문은 새로운 한해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 한옥에서 양옥집으로 이사 오면서 운치와 편리함은 서로 자리바꿈을 했다. 화장실이랑 부엌은 마루에서 직접 드나들 수 있어 편리해졌고, 한겨울 코끝을 시리게 한 웃풍도 없는 양옥집은 따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벽으로 지어진 한옥집이 생각났던 것은 태어나 자란 그 집이 나에겐 고향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옥을 볼 때마다 나는 괜히 좋다.

"사람에게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꿈을 담을 공간이 집입니다." 드라마 「개인의 취향」*은 이렇게 집을 말하고 있다. 건축업계의 독보적 존재이자 기인인 박철한 교수의 딸 박개인과 욕심 많은 건축사 전진호의 달콤 상큼한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는 한옥이 등장한다. 상고재(相姻齊). '서로를 연모하는 곳'이란 이름의 이 집은 박 교수가 "아내와 아이가 꿈을 꿀 수 있게 만든 곳"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남북으로 긴 집이 있다. 전통 한옥에 현대식 편리함을 부여한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대청

사랑, 전통, 욕망을 담고 있는 드라마 속 집은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며, 삶이 투영되는 맑은 거울이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 (Alain de Botton)은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고 그의 저서 「행복의 건축」에서 말했다. 공간과 희망의 일치, 바로 그곳이 꿈꾸는 곳, 집이다.

마루 앞으로 길게 뺀 덧마루이다. 땅 속으로 다리를 내리고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고, 그 일부분은 마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했다. 덧 마루 아래는 지하실, 강화유리로 천장을 만들어 지하실의 채광과 소통을 모두 가능하게 했다. 처마 끝에는 투명한 덮개를 내어 달아 비오는 날도 대청마루와 마당의 중간 참에서 보송한 하루를 즐길 수 있게 했다. 드라마의 주인공 개인과 진호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차를 마시기도 하고, 나란히 앉아 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스크린을 내려 영화를 보기도 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린 고단함을 풀어놓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갔다. 그렇게 사랑하며 꿈을 꾸었다.

요즘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옥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서민적 개량 한옥. 대부분 소박한 일상이 담겨있다. 대청마루와 미닫이 문, 마당 쪽으로 문이 나 있는 부엌을 기본 뼈대로 한옥이 원형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효성 지극한 아들내외와 그들을 보고 자란 손주 손녀들. 보통 삼대가 한 집 살림을 하니 식구끼리의 갈등과 이견은 서로의 경험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지혜롭게 해결된다. 마치 한옥이 자연스런 바람의 길을 갖고 있듯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순리에 따른다. 두 번째는 가문의 명예를 중시여기는 종갓집. 세월의 변화에 따라 일부 시설은 개조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한옥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고,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될 정도로 규모도 있다. 종갓집 어른들은 아직도 한복을 즐겨 입는다. 자손들은 좀 먼 거리이지만 싫은 소리 하지 않은 채 장거리 출퇴근을 한다. 안주인은 커다란 앞치마를 두르고 언제나 찾아오는 손님을 정성스레 맞이한다. 바깥주인은 문중의 대소사를 돌보는 총괄책임자로 누구보다 참을성 많고 성실하다. 그들의 직업은 전통의 것을 지키는 사업을 하거나, 선생님 또는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가 많다. 마치 수백 년 한 자리에서 집안의 역사를 지켜온 종갓집처럼 말이다. 세 번째는 돈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상류층 고급 한옥. 세월의 흔적보다는 '최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고급 한옥은 양반들의 아흔아홉칸 집을 흉내 내고 있다. 으리으리한 멋을 낸 한옥은 근사해 보이지만 어딘지 개운하지 않다. 멈추지 않는 욕망의 열차를 탄 그 집 사람들에겐 어쩔 수 없는 배신과 음모와 협잡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권력과 금력을 잡기 위해 풍수지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지은 집이라지만, 탐욕에 물든 마음이 있어 본디 집이 갖고 있던 순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교훈만 남겨준다.

MBC 드라마 「개인의 취향」 의 방송화면 중 상고재.

사랑, 전통, 욕망을 담고 있는 드라마 속 집은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며, 삶이 투영되는 맑은 거울이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 (Alain de Botton)은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고 그의 저서 「행복의 건축」에서 말했다. 공간과 희망의 일치, 바로 그곳이 꿈꾸는 곳, 집이다.

* 「개인의 취향」 (MBC/2010). 손예진, 이민호주연 / 멋진 가짜 게이와 순진한 덜렁순이의 사랑과 우정,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드라마.

건축사지 지역건축특집 시리즈 ①
Special Series of Architecture Magazine: Regional Architecture ①

호남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Looking for Identity of Honam Regional Architecture

그간 건축사지에 수록된 건축 작품들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의 작품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번 월호부터 한지역의 작품과 문화적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집을 기획하여 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로 호남지역의 문화와 건축을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 대담일시 : 2013년 8월 23일
· 대담장소 : 광주대학교 백인관 5층 소강의실

대담자(가나다 순)

· **김형수**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인 겸 편집국장
· **윤대한** 교수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사회 및 정리
· **박홍근** 건축사 / ㈜포유 건축사사무소 / 광주
· **신태양**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양병범** 건축사 /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 **이길환** 건축사 / ㈜길 건축사사무소 / 전북
· **이효원** 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정명환** 건축사 /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
· **조성호** 건축사 / ㈜광주 공간건축사사무소 / 광주

김형수 편집국장 : 이 특집은 한국의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건축의 정체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건축의 지역적인 아이덴티티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건축적인 흐름을 찾아낸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의 사투리와 호남의 사투리가 다르고, 음식문화에서도 지역적인 특색이 분명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한국 현대건축의 흐름에서도 지역 간의 미묘한 특색과 아이덴티티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예측에서 대담을 기획하였습니다.

차별화되는 호남의 건축적인 정체성을 반드시 확인한 다기 보다는 호남과 호남건축의 콘텐츠를 전국에 소개한다는 편한 마음으로 대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지역의 지리와 문화적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양병범 : 먼저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화엄사), 내장산(백양사), 월출산과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최근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국립공원의 약 30%가 이 지역에 있고 영산강과 호남평야와 같은 비옥한 땅이 있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에 있는 시구절처럼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의 풍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즉 쌀로 술을 빚을 정도의 여유와 멋진 저녁놀을 가진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호남문화에는 많은 고인돌들이 증거하는 유구한 역사, 불교, 고려청자, 시가문화, 문인화, 구국 의병운동, 판소리, 향토음식 등등 삶의 다양한 국면에 '멋'과 '맛'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인구에 회자되는 '멋과 맛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의향', '예향'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태양 : 지리적으로 평야에 위치하여 넓은 농촌지대로부터 유입되는 재화와 용역을 바탕으로 생산 및 교역을 위주로 한 문화와 시설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물산이 풍부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 창작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일상의 삶이 예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전통(소리, 춤사위, 서화, 문학 등)을 형성하였습니다.

이길환 : 호남의 가장 큰 지리적 특징이 풍요로운 자연환경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넓은 평야와 발달된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한 곡창지대와 인접한 해산자원으로 질 높은 삶과 여유로움이 호남 사람들

의 기본 성향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부산간지방, 평야지의 풍부함과 해안지방의 수산물이 모여져 맛으로 유명한 전주, 광주, 나주 등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같은 풍요로운 삶이 예술적 부분까지 영향을 주어 다양한 문화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는 서정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명환 : 호남은 정치적으로 유배지였지만 정약용과 윤선도가 남긴 문학이 있고, 송순의 면앙정, 송강의 환벽당, 식영정, 송강정, 양산보의 소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가사문학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동편제와 서편제의 소리요람이기도 하고, 남농 허건과 의재 허백련으로 대표되는 남종화가의 산실인 곳입니다.

조성호 : 호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공존하고 있고 각 고장마다 오래된 삶과 마을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광주는 서울과 거리는 멀지 않으나 제주나 부산보다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고,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곳이며, 인구도 적은 곳입니다. 다행히 최근 힐링 및 친환경 생활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개발되지 않은 자연을 미래의 큰 자산으로 여기고, 활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문화적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중앙을 따라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 특징을 살린 몇 개의 성공사례도 있지만 주도적인 지방문화를 만들기에는 아직도 버거운 모습입니다.

박홍근 : 넓은 들판과 풍부한 먹거리, 풍류를 즐기는 멋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농경사회의 특징이 지금까지도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산업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이런 문화적 특징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기' '머시기'로 통하는 정(情)의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나 빠른 변화와 지역 간 도시 간 치열한 경쟁의 시대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극복하고 긍정적인 것은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윤대한 : 앞서 이야기된 것 외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호남의 지리적 특징은 시공간 스케일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휴먼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것과 땅이 '붉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의(義)'에 대한

인식이 강한 지역이며, 예술분야에서 타 장르보다 미술의 영향력이 큰 것이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남 현대건축에 영향을 준 역사적인 배경과 인문사회적인 기반은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이효원 : 호남이 가진 역사적 및 인문사회적 기반으로 정치적인 소외와 이로부터 비롯된 약한 경제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외는 건축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규모나 좋은 건축적 질을 가져가는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을 바로잡거나, 선순환으로 만들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나쁜 것에 나쁜 것을 더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태양 : 호남 현대건축의 역사적 연결고리로 1900년대 초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서양 선교사들이 도입한 근대건축(교회, 학교, 병원, 주택, 기념관 등), 일본인들에 의해 도입된 거류지건축(지구 및 필지분할, 주거겸용 상가, 창고 등), 공공건축분야의 서양의사양식(관공서, 교육시설, 금융시설 등) 등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군집형이 아닌 일자형의 건물의 개별적 배치와 자연과 어우러지는 형태가 이 지역 건축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로 생각됩니다. 이 대표적 사례가 소쇄원이고, 가깝게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아닐지라도 이런 태도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다른 어떤 지역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일 수 있습니다.

정명환 : 특히, 일본의 식민지배 방식의 도시개발과 달리, 양림동 서양촌을 중심으로 한 순수선교활동과 의료선교 그리고 서양식 근대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은 광주 현대건축의 기반이 되는 근대건축의 또 다른 맥락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건축되어진 수피아홀, 오웬(Owen) 기념관, 유진벨 기념관, 우일선선교사 사택 등이 아직 남아있고, 현재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양림동을 재생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홍근 : 그와 더불어 불의에 항거하는 각종 의병활동과 일제 강점기의 광주학생운동, 80년대 민주화운동,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표출된 랜드 마크 논란과 기존 건물의 철거와 보존에 대한 지역사회의 치열한 논의과정은 지역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봅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의 유명사례를 통하여 좋은 건축이 도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에서 이슈를 끌만한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하여 건축과 도시, 건축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양병범 : 호남 현대건축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성과 조형성이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주로 참조했던 인문사회적 주요 레퍼런스들은 '5 · 18'과 '예향', '빛의 도시', '광산업'이었습니다. 광주 역사상 가장 큰 건축(도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과 문화전당의 배경은 '빛+예술+인권의 도시'라는 인문사회적 자산이 '아시아 문화수도'라는 논리로 승화되어 물리적인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 행정구역의 변화인 광주광역시, 전남도청의 분리와 도청, 시청의 신도시 이전을 들 수 있으며, 기존 도심에서 각 관공서 청사의 이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의 지속적 생성으로 구도심 몰락 등이 호남 현대건축의 생성, 변화, 소멸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수도권을 모방한 개발로 지역의 아이덴티티는 더 없어졌다고 봅니다. 대도심 광주의 도청이전지에 5 · 18 민주화운동과 소외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상 같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농어촌에서는 새마을 운동 같은 관주도 '한옥주거와 한옥형 공공건축물' 프로젝트로 전라도 마을과 도시경관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길환 : 전주의 경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960년대에 전주 전(前)시청사거리에 모 조미료회사에서 에펠탑을 형상화하여 만든 탑이 있었습니다. 2~3층 조적건물이 대부분이었던 그 상황에서 철골탑에 현대적인 네온사인이 번쩍이는데 그 당시 건축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천지라고 할 수 있는 구경거리였는데 이 탑을 통해 건축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리 에펠탑의 시대적 배경처럼 말입니다.

호남지역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박홍근 : 도시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은 용도에 따라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것이 되어 특징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평야, 들판, 무등산, 흙 등의 자연

전주시청

미륵사지 전시관

적인 요소들은 이 지역의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건축하려는 타 지역의 건축사들도 생각하는 디자인 근저에 흐르는 아이덴티티가 아닐까요?

이효원 : 아이덴티티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특정한 풍토와 그로 비롯된 특정한 인문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대 이전에는 가능한 것일지 몰라도, 산업혁명 이후 근대건축은 몰지역성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광주로 특정하자면, 일제 이후 도시화되었고, 1960, 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근대건축으로 채워진 도시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자연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군집형이 아닌 일자형의 건물의 개별적 배치와 자연과 어우러지는 형태가 이 지역 건축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로 생각됩니다. 이 대표적 사례가 소쇄원이고, 가깝게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아닐지라도 이런 태도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다른 어떤 지역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병범 : 소쇄원, 다산 초당, 보길도, 운조루 등등 호남의 훌륭한 옛 전통건축에 대한 디자인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라면 오히려 쉬울 것 같습니다. 광주 현대 건축물들에 대해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기 위한 건축물 표본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 건축사들이 실현한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한국 현대건축의 아이덴티티에서 형태적, 공간적, 철학적 측면에서 분리해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길환 : 전북의 경우, 역사적 고도(古都)인지라 많은 문화재를 비롯하여 한옥마을과 익산금마 고도 등이 도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 한국 전통건축을 디자인적으로 현대적인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도시와의 건축적 성향이 좀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전주톨게이트 익산 미륵사지 전시관 군산근대 유산이 전북만의 색깔과 멋이 약간은 다른 지역과 다른 또 다른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속성이 너무 과도해 전통을 현대 위에 그냥 얹어놓은 듯 한 불균형 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며 전주시청처럼 최악의 건축물로도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륵사지 전시관처럼 미륵탑의 선을 잘 활용한 익산고도에 맞는 건축물도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현대와 전통의 기로에서 어느 정도 현대건축에 전통성을 가미시켜야 할지가 숙제인 것입니다.

조성호 : 호남 지역 도시와 자연에 맞는 조형과 형태, 재료의 특성화를 지역의 아이덴티티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통해서 살펴보면 최근 한옥을 현대화해서 자연과 마을 경관을 거스르지 않게 건축한 윤선도 전시관, 기존 도심에 스케일과 길을 맞추고 지하화 하여 랜드 마크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병원냄새 나지 않는 힐링 병원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전남대 화순병원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즉 '도시와 자연에 건축이 튀지 않고 그 일부로서 도시, 자연, 건축, 인간을 서로 평등하게 이어주는 정신'이 호남건축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명환 :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지역주의 건축으로 모아질 것 같아 호남지역에 대한 답을 언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각 도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 또는 토목구조물 등을 랜드 마크라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지자체의 캐릭터 마케팅 등 규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지붕의 형태나 건축형식은 특징일 뿐 지역성이라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나친 형태주의로 치우칠 경우 시간이 지나 또 다른 공해가 되거나 다양성의 기회를 차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아이덴티티는 문화입니다.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저변에 깔려있는 무형의 정신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자의 사고에서 그리고 형태와 공간 등의 건축적 언어로 지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질 때 이 지역의 건축적 아이덴티티라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 볼 때 어느 지역에서나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장소성에 근거한 건축, 기후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건축, 그 지역의 공공에

의재미술관_조성룡

용아빌딩_김한섭

전남대학교대강당_임영배

어비슨기념관_류연창

전주빙상경기장_이상돈

광주문화여성병원_박홍근

광엑스포주제전시관_조성호

기여하는 건축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직 큰 틀을 이루거나 가시적 형태로 보여 진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호남건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성룡의 의재미술관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윤대한 : 건축을 '개념의 형상화'로 본다면 개념에 대한 지역적 아이덴티티는 앞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 논의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형상화에 대한 지역적 아이덴티티는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 담론이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성, 사회성, 지역성의 논점에서 벗어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동일한 건축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은 디자인의 새로운 통합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부문에서 현대 호남건축의 지역 아이덴티티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어느 정도의 도덕적 의무감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즉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기 보다는 가우디나 차운기와 같은 개성강한 지역건축가를 길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다 더 새로운 실험적인 가능성의 결과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호남지역의 작가와 작품 중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이효원 : 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건축가로 먼저 김한섭과 임영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파인 김한섭은 근대건축의 제대로 된 이식을 광주에 실행하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용아빌딩(1957)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한섭의 제자인 임영배는 호남에서 태어나 호남에서 교육받고 건축가로서 활동한 이 지역의 제1세대 건축가로, 근대건축이 추구한 구조의 명료함과 기능의 합리성, 이로 비롯된 형태와 파사드 등 디자인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성취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설계한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무미한 광장을 가진 언덕 위에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상징하는 형태를 구현하면서 앞서 언급한 건축적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홍근 : 임영배 교수의 경우 시민회관도 의미 있는 건축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2세대 건축사들로 류연창, 박화수 건축사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 류연창의 진도향토문화회관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박화수 건축사의 CBS방송국과 광주건축사회관 등은 건축물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길환 : 전북을 살펴보면 전주지역 중심으로 1세대 건축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광서, 전형직, 엄주호, 이상돈 씨 등이 활동하시는데 그중 이상돈 전 전북건축사협회 회장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품 중 전주빙상경기장은 전주의 부드러움을 잘 살린 건축물로 기억에 남의며 전주세무서, 군산 근대시간여행 설계 등을 남기시고 협회에도 후배건축사를 위해 많이 조언하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예상됩니다. 길건축 역시 심혈을 기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대한 : 이 지역의 건축사들이 설계한 광주 현대건축에 대해 건축

사님들이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건축사가 설계한 현대건축물에서 회자할 만한 것으로 세계광엑스포주제전시관, GS빌딩, CGI센터, 문화여성병원 등이 있습니다.

호남지역 건축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신태양 :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회자되었고 또한 회자될 주요 비전은 '예향'과 '문화중심도시'가 아닐까요?

조성호 : 지역건축의 미래는 현대건축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주요 키워드인 'Nature' 'Earth' 'Wood'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건축이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또 다른 자연을 만드는 건축입니다. 구체적으로 호남건축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과 지역적 재료를 계속 실험해보는 단계로 예를 들면 한옥을 위한 영암 한옥박람회와 목재 건축, 담양의 대나무 건축, 목포대의 흙 건축 등이 좋은 예입니다.

박홍근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는 돈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문화가 성숙되면 건축문화도 함께 성숙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 의식 있는 건축주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건축의 미래 비전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범 : 호남지역 건축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역으로 국한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다라고 단정 짓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사회적 및 문화적인 이유로 팽창을 거듭하면서 변화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고 특히, 광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폴리,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광주천 수변정비사업 등 다양한 문화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건축적 미래비전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단순히 문화콘텐츠를 양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사직공원, 광주천, 예술의 거리 등을 연계하는 문화의 축을 형성하여 문화, 상업, 예술 등 짜임새 있는 도시기능의 복원과 재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품격 있는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나무 건축사례

한옥박람회

이효원 : 최근 광주에 있었던 주요한 건축 이벤트들의 특징은 관주도적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이에 따라 디자인이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써 이러한 흐름은 지역의 새로운 건축적 미래 비전의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민회관, 사직공원 타워,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광주의 어반폴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과거 형태로써 건축이 도시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여 공간과 이 안에서의 추억과 결부된 장소 감각을 통하여 도시공간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나 전문가적 식견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호남지역 공동체가 수용하고 용인하는 선에서의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광주에 있었던 주요한 건축 이벤트들의 특징은 관주도적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이에 따라 디자인이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써 이러한 흐름은 지역의 새로운 건축적 미래 비전의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민회관, 사직공원 타워,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광주의 어반폴리 등을 그 예로 들 수있습니다.

이길환 : 전북에서의 전주시는 이미 많은 도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경제위주의 개발방식이 아닌 '역사적인 고도의 전주', '정원도시로의 전주'가 되었으면 하는 비전을 가져봅니다. 여름에 열섬현상으로 전국에서 제일 더운 지방이 대구 다음에 전주라는 사실에 도시계획 및 건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부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5년 전에 시행된 전주시 도시계획 중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가 7~8년 전에 풀리게 된 것 또한 일부 우리가 갖아야 할 책임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미래 비전으로 어느 도시와는 다른 도시로서의 전주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윤대한 : 가치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비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건축의 비전도 결국 건축사에 의해 실

현되니까요. 과거 김수근이란 건축사를 통해 우리의 건축이 얼마나 새로 자리매김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지역에서 능력 있는 건축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역의 새로운 건축적 비전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건축주들이 비슷한 것이라도 서울의 건축사들에게 대해 보다 관대한 경우가 많더군요. 그러나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슬프기도 합니다.

호남지역의 건축설계 업무 환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양병범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부분에서 호남 지역의 건축설계환경은 암울하게 보입니다. 아직도 잔존하는 동서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한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최악이라고 생각되어지므로 건축설계 업무환경이라는 말조차 언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홍근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해 있는 한국에서 이 지역의 부족한 경제력의 한계가 건축설계 업무에 큰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과 예술과 접목된 독특한 건축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성호 : 호남지역의 건축설계 업무 환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낮은 설계비,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좋은 직원 구하기 어려움, 모호한 건축사의 지위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우리 건축사들의 자존심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명환 : 조직력과 시장성의 관점에서 광주는 대부분 건축사 1인 개인사업장 또는 건축사 1인 법인사업장이 주고, 다수의 건축사가 운영하는 법인사업장이 소수입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력확보 및 수련된 인력의 유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소수인력으로는 프로젝트가 집중될 경우 해결이 어렵고 프로젝트 수급이 어려울 경우 인력의 유지의 어려움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경우 단기에 걸쳐 계획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등을 수련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해결하기보다는 프로젝트별 전담인력이 한명씩 배정되는 형태입니다. 장점은 기획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수련 초기에 업무과중과 함께 보다 폭넓은 사고보다는 설계도서 생산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길환 : 호남지역에서 전주라고 업무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중소도시와 비슷합니다. 다만 규모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몇몇의 건축사님들의 노고에 여러 환경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훌륭하신 분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훌륭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한 :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프로젝트를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개념 및 기획설계를 할 수 있는 브레인의 수가 적고 그 능력이 취약함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회자될만한 건축물 대부분은 관주도의 건축물들로, 건축에 대한 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지만 건축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공무원들의 건축 및 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낮습니다. 좋은 건축물 뒤에는 반드시 좋은 건축주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관'의 전반적인 역량이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지닌 또 다른 특징은 의미 있는 건축프로젝트를 일으킬 수 있는 민간부문에서의 경제력 있는 건축주가 적다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찾을 수 있는 건축의 다양성에 대해 이 지역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민간부문에서의 경제력 있고 의식 있는 건축주가 많이 나타나길 희망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축물 설계들은 수도권 건축사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 지역 건축사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미합니다.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호남지역 건축교육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박홍근 : 정말 지역적 특징이 있을까요? 이미 건축교육이 전국화되어 지역적 특징이 많이 희석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년제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더욱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지역에서 극복해야할 과제로 봅니다.

조성호 : 저 또한 아직은 건축교육에서 이 지역의 특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목조, 흙, 한옥 등의 분야에서 지역적 특색 있는 건축가를 길러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병범 : 최근 의미 있는 건축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서울, 부산, 광주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과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 체험을 위한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인 '꿈다락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적 공통 주제에 맞추어 지역 상황을 건축적, 도시적인 교보재로 만들어 지역건축사, 교수진들이 대학생 스텝의 보조를 받아 1

학기 총 30여 시간 동안 이론, 체험, 실습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축학교는 자체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대학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대학교육도 자기 대학의 강의실에만 갇혀 있지 말고 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강사진(교수, 건축사, 공무원, 시민운동가, 인문학자 등)들이 강의하는 커리큘럼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제도 지역건축의 정체성을 출발점으로 한다면 더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길환 : 대학 건축교육을 제외한 전주지역의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전통건축설계를 하는 사업부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전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문화재 보존과 재정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문화재 시설의 탐방과 실측, 재정비등으로 교육과 실무를 병행하고 있고, 전북대와 원광대에서는 한옥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한국전통건축과 결합된 현대건축 프로젝트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과 실무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건축학도의 실무배출 후에도 통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의 꾸준한 발전과 보완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가 교육 연장의 장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예비건축사 양성에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예비건축사의 인성교육에도 무엇보다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윤대한 : 건축의 지역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차별성 있는 건축교육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 교육자로서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건축인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합화되어버린 설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특성보다는,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개념적인 이야기들 즉, 문화, 예술, 인권, 빛, 구도심의 재생, 전통과 근대건축문화의 공존, 자연, 친환경, 저탄소 등과 관련한 것들을 건축에 담아보고 교육하려는 노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 학생들에게 소쇄원을 공부하고 체험시킨 결과를 재해석하여 설계에 적용시키도록 한 것들은 훌륭한 전통건축이 남아있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시켜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교육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이효원 : 전남대학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지역의 건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과 '생태성'을 건축교육의 목표로 하고, 세부적으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그 인간을 위한 공간과 장소의 생성을 위한 교육, 교육받은 학생들이 건축을 경제적 수단이 아닌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도록 교육, 자연에 대한 이해와 건축이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축 교육으로 구체화시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명환 : 호남지역의 건축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지만, 학교교육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건축사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5+3」체계는 이전의 대학이 가졌던 건축학도의 배출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교육에서 실무를 거치는 건축사 양성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건축학도의 실무배출 후에도 통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의 꾸준한 발전과 보완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가 교육 연장의 장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예비건축사 양성에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예비건축사의 인성교육에도 무엇보다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또 다른 교육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은 관입니다. 관에 근무하는 건축관련 공무원의 의식입니다. 자격증을 따듯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입문하여 건축을 인허가의 대상으로 국한시켜버리는 일부의 의식 수준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도의 유지, 체제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검토의 임무를 맡고 있으나 능동적 사고를 통해 건축의 바라보는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과 실무, 관이 하나가 되어 교류가고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체계가 정립되고 이 지역에서 시민의식의 저변에 건축의 입지가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 오랜 시간동안 매우 흥미로운 대담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담론을 통하여 호남과 호남 건축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한 Youn, Dae-han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연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창조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였고, 1998년부터 광주대에 재직.
설계작품으로 대구야외음악당 등이 있음.
지역관련 광주현대미술관,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광주 특1등급호텔 등의
건립기본계획연구,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환경조사 및 홍보관 설계시공 등의 용역을 수행.

신태양 Shin, Tae-yang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대학원 건축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
저서로는 〈광주건축사(공저)〉 〈공간의 이해와 인간공학〉
〈근대건축미학〉 등이 있다.
인간공학, 공간심리, 인간행태에 대한 건축이론에 관심이 많음.

이효원 Lee, Hyo-won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남대에 입학하여 1997년 박사학위, 1998 건축사자격 취득.
서남대, 동신대에 근무하고 2003년부터 전남대에 재직.
설계작품으로 광주 마재우체국, 동신대 건축관, 전남대 용지관 등.
최근 광주의 1970년대 근대건축물에 관한 재생문제를 다룬
'광주공원시민회관 건축설계경기연구 및 관리용역' 수행.

※이 외 참석자의 약력은 이어지는 회원작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STAR CENTER AT JEONJU UNIVERSITY

설계자 | 이길환_KIRA | (주)길 건축사사무소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 환경대학원 건축설계 석사를 수료한 후 1996년 舍 · 건축사사무소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상대상을 3년째 수상했으며, 최근 전주도시재생거점센터 현상공모와 전주완주통합시청사 건립현상공모에 당선됐다. 현재 우석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와 전라북도교육청 BTL 운영성과 평가위원을 겸직 중이다.

- 설계팀 : 김완중, 최문규, 박형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무한구조
    - 기계분야 : (주) 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
    - 전기 · 통신분야 : 이린기술사사무소
    - 소방분야 : (주) 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

건축주 | 전주대학교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예림

시공사 | 서해건설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번지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589,872.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4,424.40㎡

연면적(Gross Floor Area) | 24,976.0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45%

용적률(Floor Area Ratio) | 4.23%

규모(Building Scope) | B2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주요마감재 | 알루미늄복합패널, 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6. 02 ~ 2006. 0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7. 08 ~ 2011. 01

사진(Photographer) | ©Kyungsub Shin

Client | Jeonju University

Architect | Lee, Kil-hwan

Project team | Kim, Wan-jung, Choi, Mun-gyu, Park, Hyung-joon

General Contractor | JEONJU UNIVERSITY

Location | 1200, 3-ga, Hyoja-dong, Wansan-gu, Jeonju, Jeollabuk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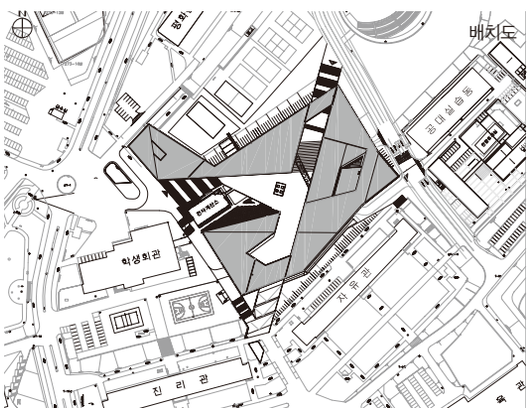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Muhan Structure

HVAC & Electrical Engineer | Office of Professional Engineers Yirin

Electrical Engineer | Samjin Top Deck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Aluminum complex panel, Color pair glass



배치

대지의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인공 ·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보행 및 주차공간의 분리, 중앙광장이 교내의 구심점이 될수있도록 안전한 보행 환경을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전체 컴퍼스 환경과 조화되고 강의동과 편리하게 연결된 캠퍼스의 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디자인 컨셉

전주대학교 스타센터가 신세대 학생들의 감각에 부합되는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향하여 디지털화, 지능화, 사회화로 종합적 문화공간으로 확충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목표였다.

Public Circulation – 레벨이 각기 다른 4개의 각 진입공간들은, 공적영역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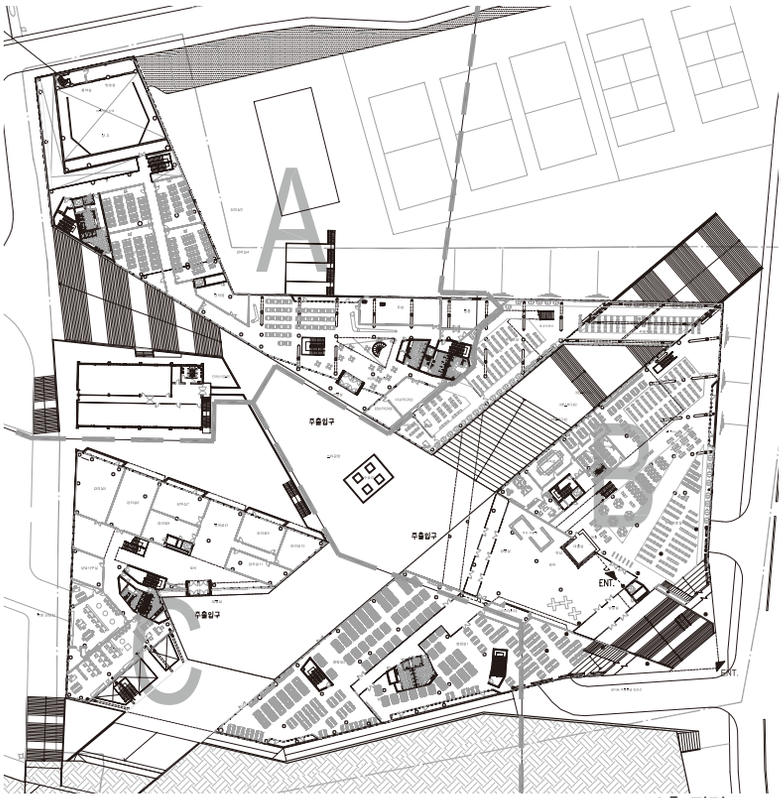
정면에서 바라본 전경

공하고 있으며, 누구든 건물 내부를 거치지 않고 사방에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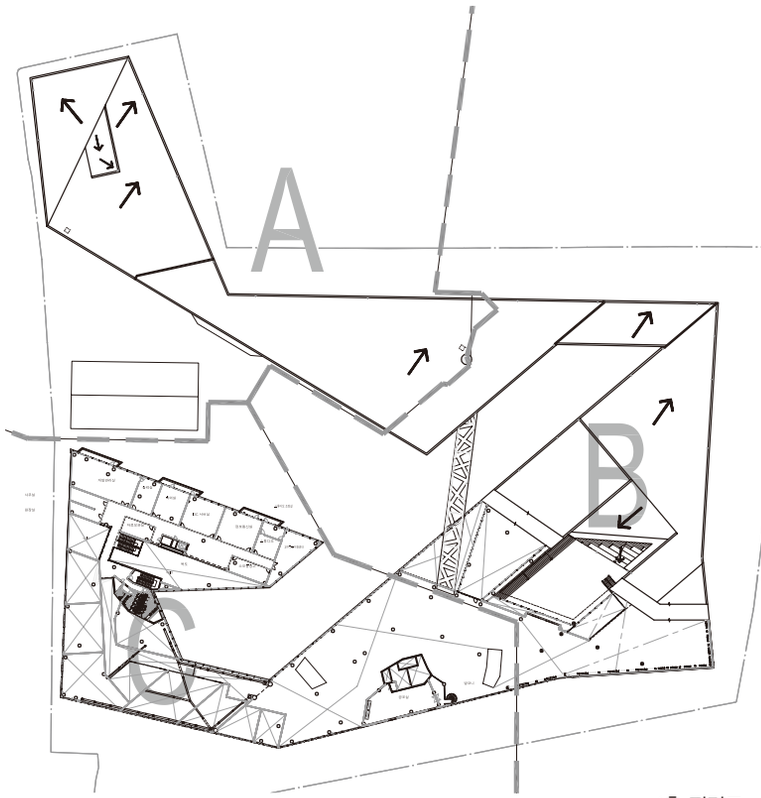
Area of Related Design – 스타센터에는 4개의 큰 영역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공간인 컨벤션센터, 탁트인 대공간의 도서관, 리빙룸의 푸드코트를 가진 Faculty Center, 전형적인 사무공간형태의 전산센터가 있다.

The Facade Wall and Openable Window – 솔리드한 벽체의 각 창은 고정창이며, 단 실과 통하는 곳은 열릴수 있도록 하였다. 환기를 위한 창, 채광을 위한 창, 돌충된 창, 크기가 점점 줄거나 커지는 연속된 창들이 커다란 벽을 3차원의 다양한 파사드를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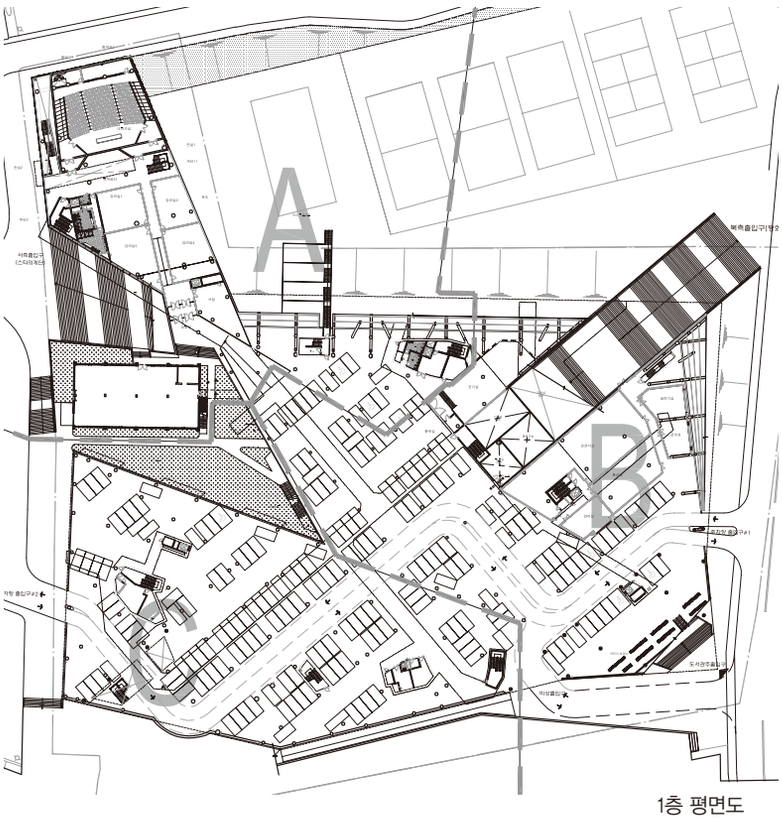
Box in Box – 컨벤션센터의 내부홀은 또 하나의 건물을 담고있다. 내부 홀에서는 컨벤션센터의 옥상이 보이며 또 하나의 홀 공간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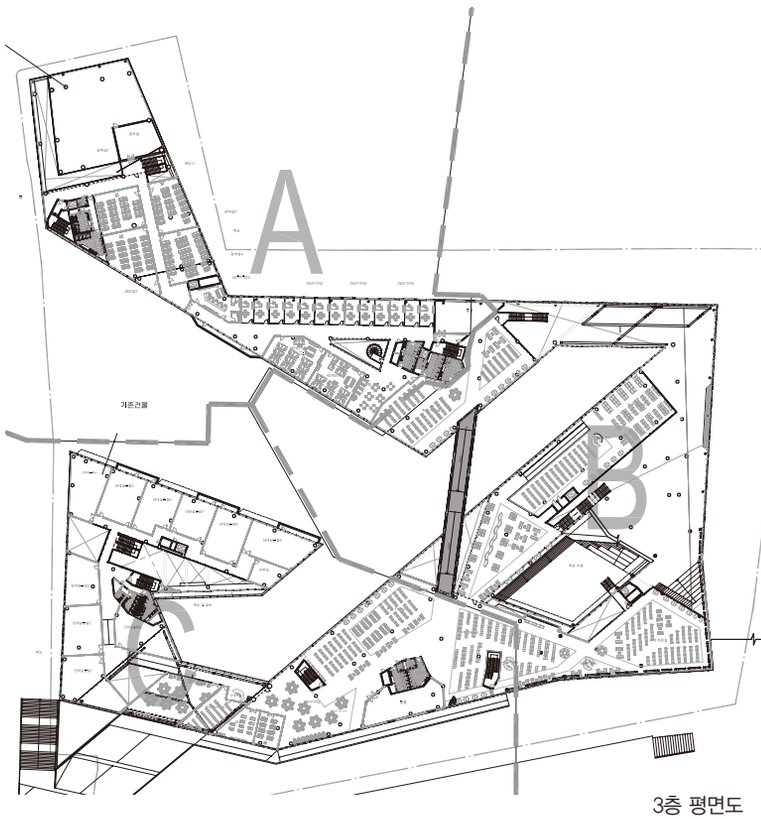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정면에서 바라본 야경

주 출입구

부 출입구

©Kyungsub Shin

불규칙적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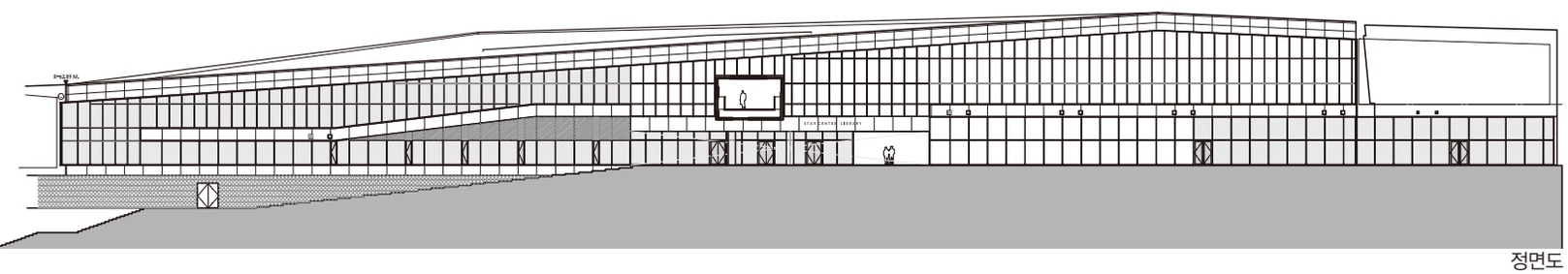
주 출입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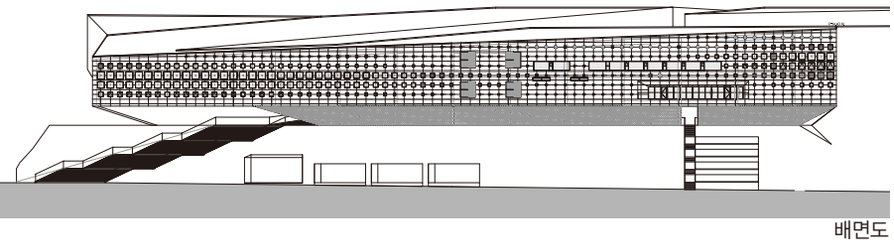
계단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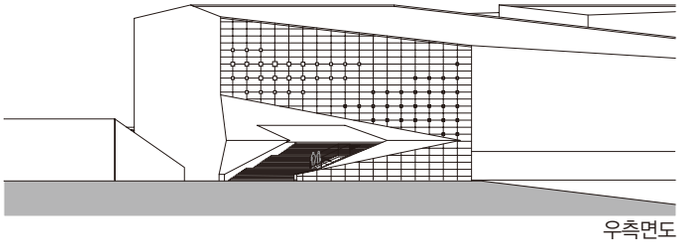
연결브리지

도서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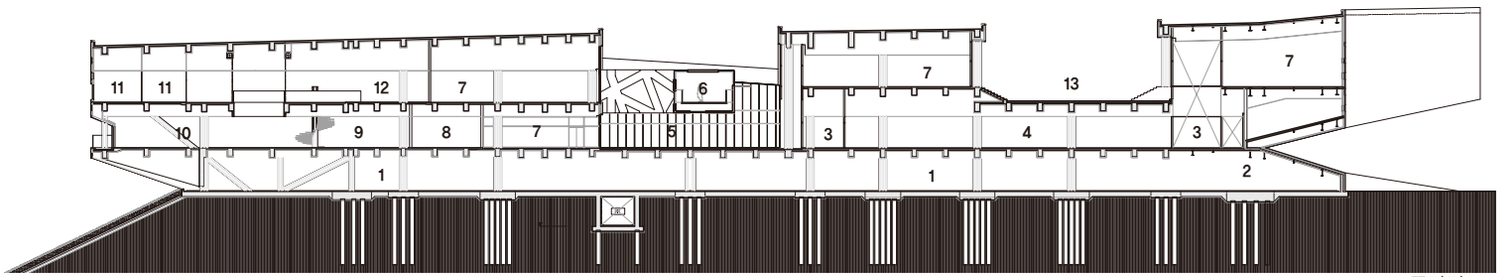
도서관 내부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1. 주차장
2. 자전거보관소
3. 방풍실
4. 로비
5. 스타광장
6. 연결복도
7. 자료실
8. 국제교육원
9. 국제교육원 유학생카페
10. 식당
11. 전임교수 연구실
12. 교직원 카페
13. 옥상조경



종단면도

국립 나주문화재 연구소
NAJU NATIONAL RESERCH INSTITUDE OF CULTURAL HERITAGE

설계자 | 조성호_KIRA | ㈜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국립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1989년부터 서울 공간건축에서 실무를 배우고, 2002년 광주 공간건축을 개소하였고,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표작으로는 목포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섬진강 생태관, 담양 실내체육관, 동신대학교 체육관, 전남대학교 의생명융합센터, 광주광엑스포 주제관 등이 있다.

- 설계팀 : 최현웅, 최시화, 김소희, 김주열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토탈구조엔지니어링
  - 설비분야 : ㈜환경설비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공간ENG
  - 토목분야 : 신우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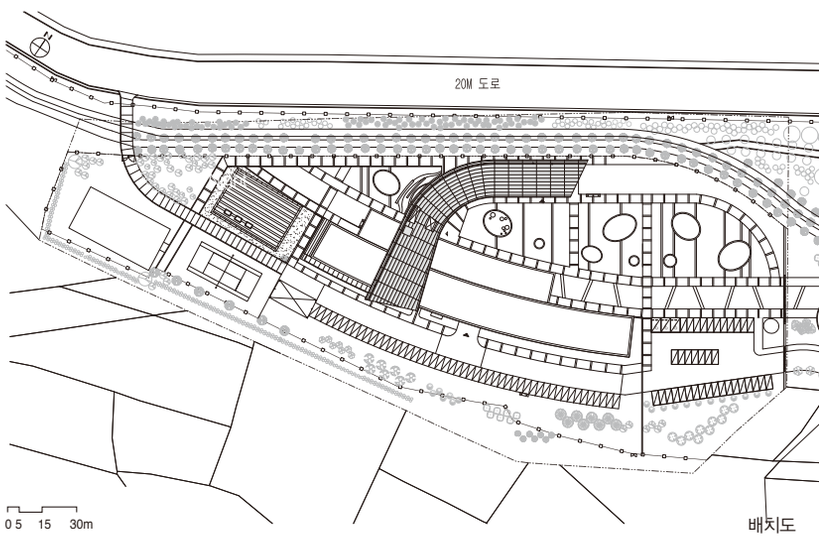
건축주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감리자 | ㈜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코리아산업개발

대지위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74–50번지 일원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5,643㎡ (공원전체면적 | 49,95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080.46㎡
연면적(Gross Floor Area) | 4,405.0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1.09%
용적률(Floor Area Ratio) | 15.90%
규모(Building Scope) | B1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합성목재루버, 알루미늄쉬트, 라임스톤,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08 ~ 2008.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9. 05 ~ 2010. 12

Client | Naju National Reserch Institude
Architect | Cho, sung-ho
Project team | Choi, Hyon-wung / Choi, Si-hwa / Kim, So-hee / Kim, Ju-yeol
General Contractor | Korea Development Corporation Co., Ltd.
Location | 174-50, Samyoung-dong, Naju-city, Chonnam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TOTAL Structural Engineering
HVAC Engineer | ENVIRONMENTA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SPACE ENG Engineering
Civil Engineer | SHINWOO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WPC louver, Al-sheet, Sand stone, Granite stone



배치도

정문에서 바라본 전경

HOLD HISTORY 역사를 품다

당초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로 건립된 나주문화재 연구소는 지금은 철거된 구 영산포 역사가 있던 공원에 건립되게 되었다. 이곳은 근대 철도 역사의 추억과 기억을 담고 있으나 아쉽게도 기존 역사는 철거되고 일부 철길과 플랫폼만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다. 주변은 철도역 이전으로 현재는 낙후된 공장과 창고, 주거지가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존 공원에 문화재연구소 기능이 더해짐으로서 고유기능인 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 업무,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 · 관리와 더불어 공원에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친문화적인 문화교육시설로서 두 가지 역할이 기대되었다.

Linear Park

기존 철길을 따라 형성된 선형적인 산책로와 철도역 재현공간을 거스르지 않고 건물을 배치하여 차량과 보행동선의 분리, 산책동선과 유물반입동선의 분리하여 기존 공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변 위해시설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

Safety Plan

지상 1층 공원과 접속부는 열린 전시, 체험공간을 제공하며, 전시실 및 세미나실은 일반인의 접근을 고려하여 공원 산책로에 개방하고, 수장–학예–관리 동선은 남측면에 별도 출입, 배치되어 폐쇄적인 조닝으로 안전성을 높였다. 지상 2,3층은 관리 연구자 전용 공간으로 쾌적한 연구, 도서자료, 사무, 식당, 휴게 공간을 조성하였다.

Ancient Sur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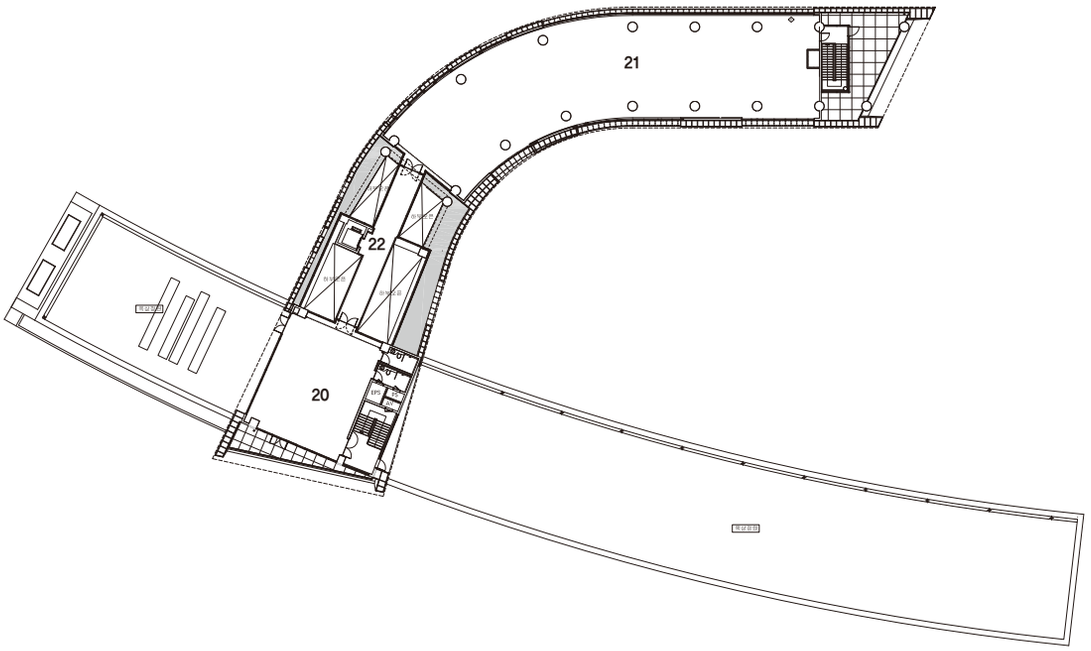
나주 출토 유물의 대표적 형태인 옹관의 원공을 도서 자료실과 식당 매스에 사용하여 문화재 연구소의 상징적인 조형으로 사용했다. 수장고의 긴 매스는 유적지의 유물파편에서 유추하여 사암과 목재를 사용하여 삼각 파편의 패턴을 완성시키며 역사의 흔적을 담는다.

주변 아파트에서 바라본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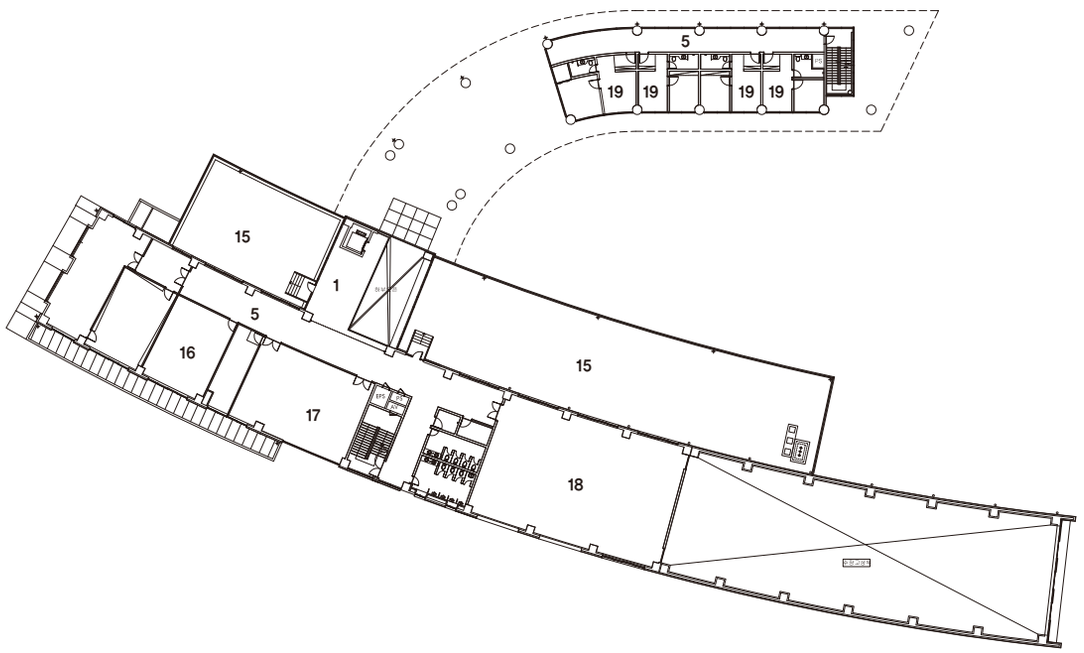
산책로에서 바라본 전경

주차장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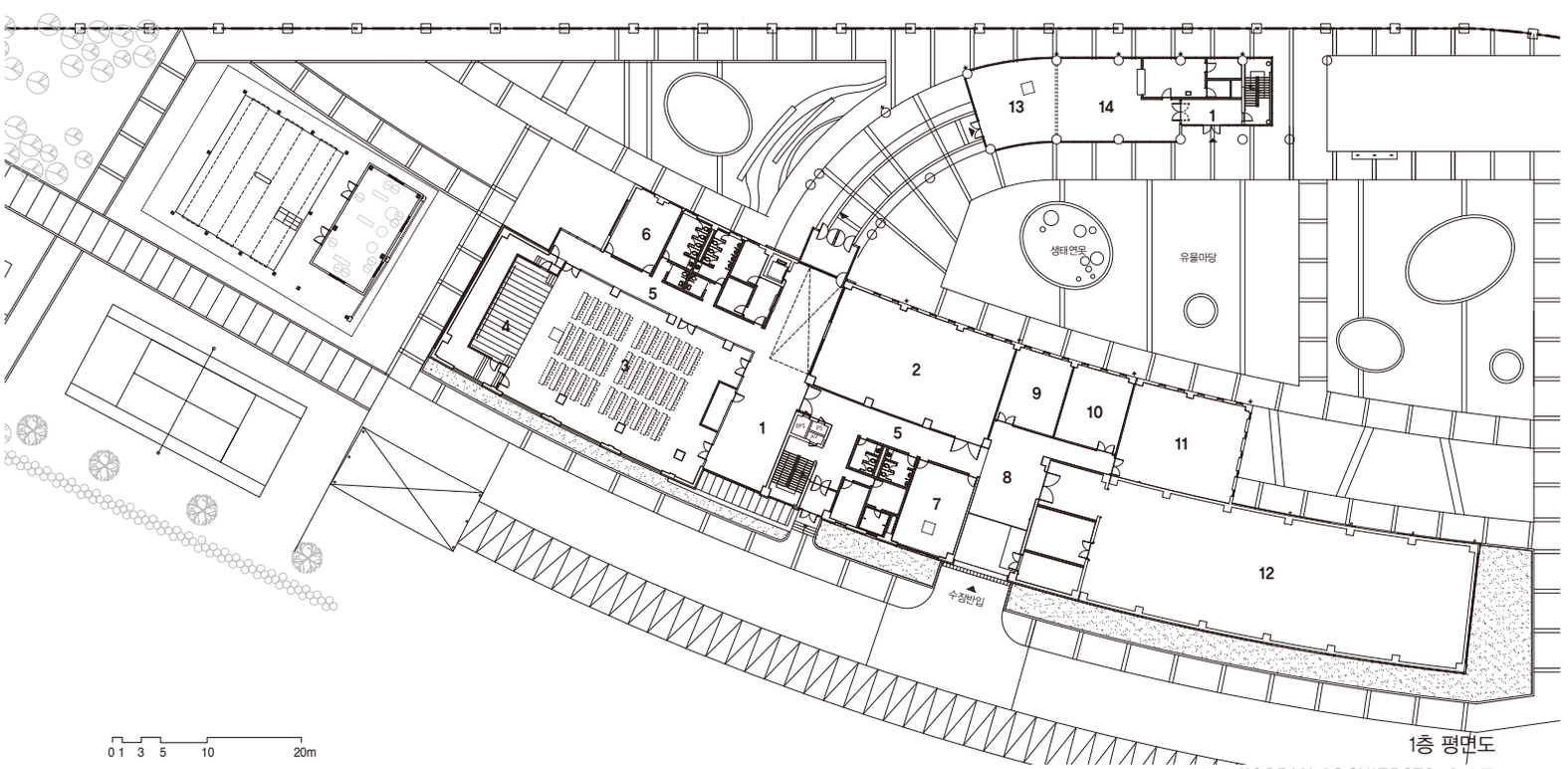
1. 홀
2. 전시실
3. 대회의실
4. 무대
5. 복도
6. 방문실
7. 세미나실
8. 해체실
9. 유물전시실 /실측실
10. 준비실/사진실
11. 보존과학실
12. 수장고
13. 휴게실
14. 식당
15. 테라스
16. 소회의실
17. 기획운영실
18. 학예연구실
19. 게스트하우스
20. 체력단련실
21. 도서자료실
22. 연결브릿지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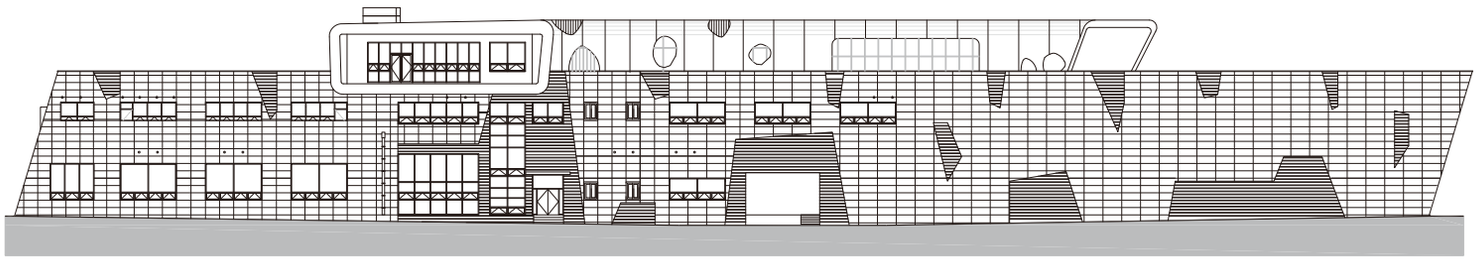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연결브릿지에서 바라본 전경

주차장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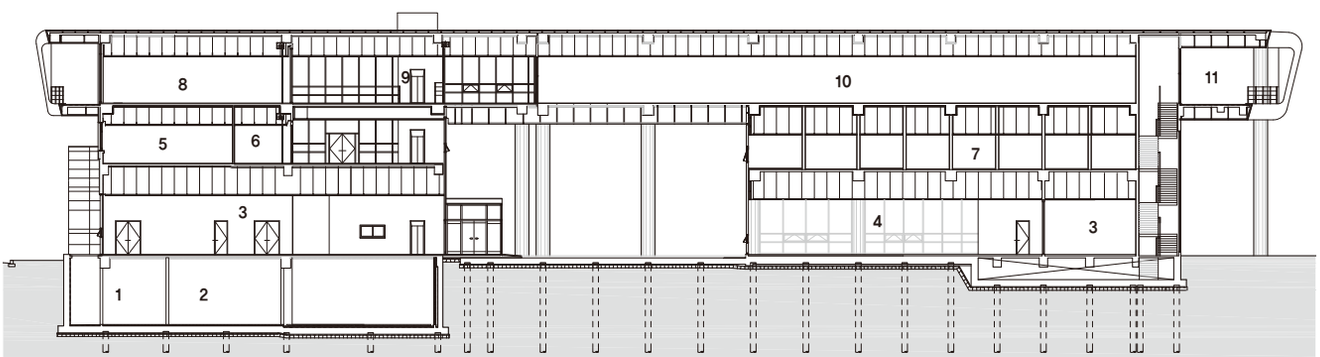
AL쉬트 오픈 디테일

홀



측면도

1. 전기실
2. 기계실
3. 홀
4. 식당
5. 기획운영실
6. 복도
7. 게스트룸
8. 체력단련실
9. 연결브릿지
10. 도서자료실
11. 테라스



단면도

동신대학교 기숙사 3, 4
DORMITORY 3 AND 4 AT DONGSHIN UNIVERSITY

설계자 | 박홍근_KIRA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울산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일건,창우,내외건축에서 실무를 익혔다. 1995년 빛고을 광주에 사무실을 열고 오늘에 이른다. 대표작품으로는 동신대 미래학사, 해남문화예술회관, 완도수산물유통센터, 문화여성병원 등이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200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1999년 광주시건축상 금상, 2009년 광주시건축상 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겸임교수와 나무심는건축인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설계팀 : 이광덕, 박경숙, 이세영, 류연아, 정재곤, 이혜인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국제구조건설 기술사사무소
  - 기계분야 : (주)새터이엔지 / (주)환경 이에스피
  - 전기 · 통신분야 : (주)좋은 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거성 엔지니어링 / (주)목양 엔지니어링

건축주 |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

감리자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토담건설 / 국제건설산업(주)

대지위치 |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주요용도 | 기숙사

대지면적(Site Area) | 568,34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757.80㎡ / 1,150.24㎡ (좌:기숙사 3, 우:기숙사 4)

연면적(Gross Floor Area) | 2,442.39㎡ / 4,991.5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0.13% / 0.2%

용적률(Floor Area Ratio) | 0.42% / 0.87%

규모(Building Scope) | 4F / 6F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마감재 | 점토벽돌, 노출콘크리트, 컬러 복층유리 / 화강석, 외단열시스템, 컬러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7. 02 ~ 2007. 06 / 2011. 01 ~ 2011. 0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7. 07 ~ 2008. 03 / 2012. 07 ~ 2013. 06

사진(Photographer) | Cho, Myeong-hwan

Client | DONGSHIN University

Architect | Park, Hong-guen

Project team | Lee, Kwang-deok / Park, Gyeong-sook / Lee, Se-yeong
Ryu, Yun-a / Jung, Jae-gon / Lee, Hye-in

General Contractor | TODAM / KUKJE Construction & Industrial Co.

Location | 252, Daeho-dong, Naju-si, Jeollanam-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KUKJE Structural Engineers Co.,Ltd

HVAC & Electrical Engineer | SAE TEO ENGINEERING corp. / HWAN KYEONG ESP corp.

Electrical Engineer | GOOD ENGINEERING corp.

Finishing Materials | Brick , Exposed concrete, Color pair glass / Granite Stone , Dry vit, Color pair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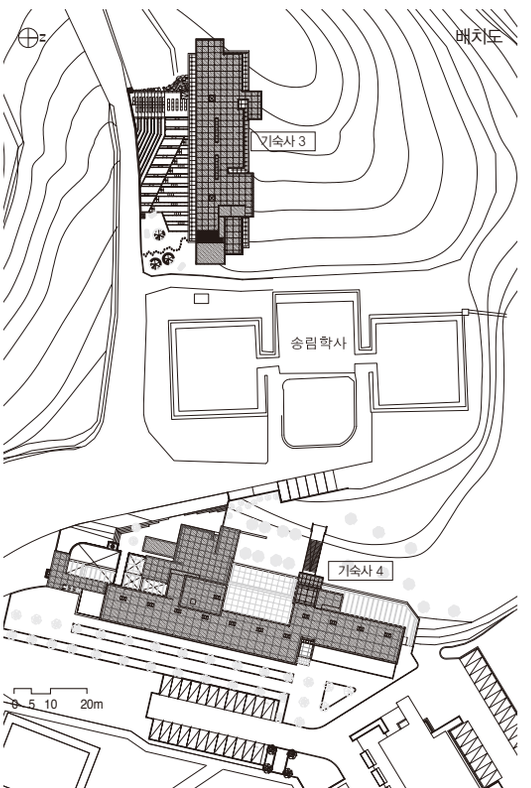
건축은 지형과 주변 환경에 순응하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나주 금성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캠퍼스는 야산에 있던 소나무들이 조경수 역할을 하며 건물들 사이에서 자연스런 숲을 이루어 좋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개교 때 건축된 첫 번째 기숙사 이름은 '송림학사'다. 그 후 지어진 기숙사(2)는 지명현상을 통해 당선되어 2006년에 완공되었고, 기숙사(3)는 2008년, 그리고 기숙사(4)는 2013년에 마무리 되었다.

본 건물은 학교에서 생각하는 위치나 용도를 고려할 때, 산을 등지고 넓은 캠퍼스를 바라보며 최대한 남향에 면하여 자리를 잡아야 했다. 부지는 경사진 곳이고 소나무 숲이 양호한 상태였다. 건물은 지형과 원래 나무 위치를 고려하면서 기존 터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고자 하였다. 그래서 일부 소나무는 앞마당에 그대로 있으며, 또 몇 그루는 건물 주출입구에 구조물의 일부가 되어 원래위치에 그대로 있다.

기숙사(3) 1층은 행정실과 영상강의실, 2층은 열람실이다. 3층과 4층은 남녀 학생들이 각각 한 개 층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주출입구 쪽 외벽은 수시로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도록 반사유리로 마감했으며, 역동성을 가진 형태를 통해서는 이곳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졌다.

기숙사(4)는 6층 건물이다. 경사지를 이용하여 1층과 3층이 지면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 자연스레 남녀 출입 동선을 구분하였다. 주출입구는 3층이며 레벨차를 이용하여 공간배치와 동선의 효율성을 갖도록 했다. 기존 기숙사인 송림학사와 근접함에 따라 건물사이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일부 생겼다. 이는 반사유리와 매스의 분절을 통하여 완화시키려 했다. 즉 주변 경치를 반사유리에 투영시켜 시각적으로 공간의 확장을 꾀했으며, 매스의 분절로 생긴 포켓공간을 이용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줄이고자 했다.

늘 설계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게 되고, 도면을 납품하는 순간부터 아쉬움이 뒤따른다. 그리고 언제나 예산은 부족하다. 최선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차선책 이었다고 변명을 하면서 부족함을 달래 본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주신 재단과 교직원분들께 감사할 뿐이다.



기숙사 3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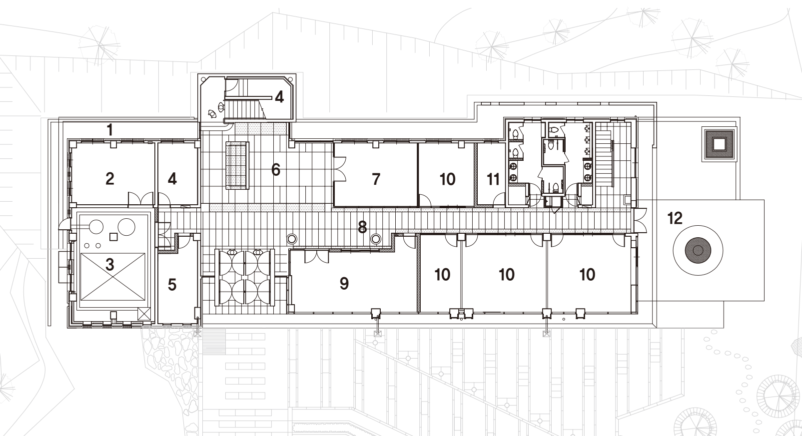
기숙사 4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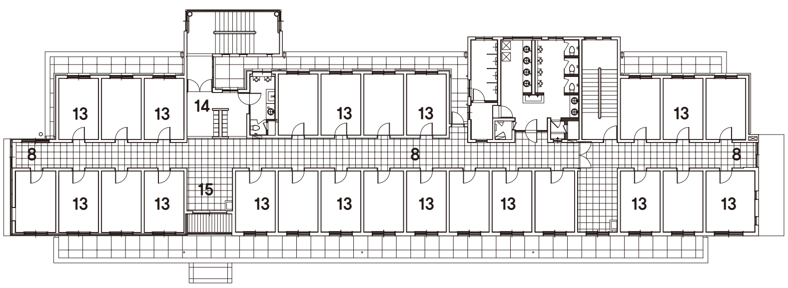
산책로에서 바라본 진입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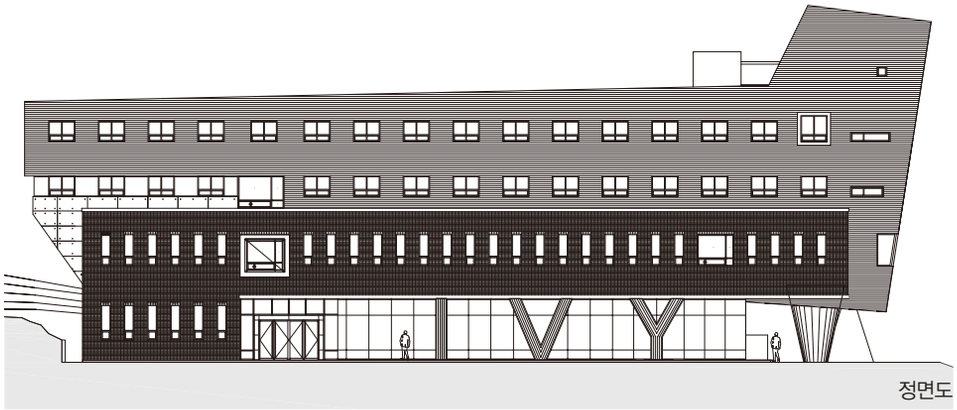
기숙사 전경

산책로에서 바라본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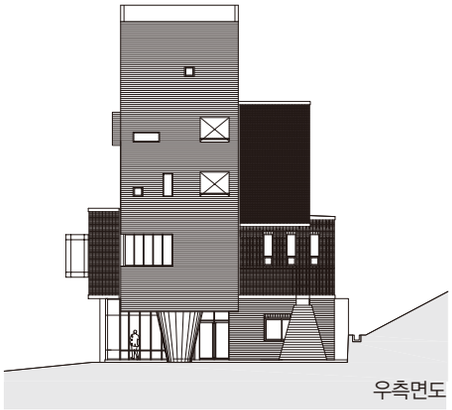
1. D.A
2. 전기실
3. 기계실
4. 창고
5. 사감실
6. 홀 및 휴게실
7. 정보검색실
8. 복도
9. 행정실
10. 세미나실
11. 통신실
12. 옥외공간
13. 사생실
14. 홀
15. 휴게실


1층 평면도


2~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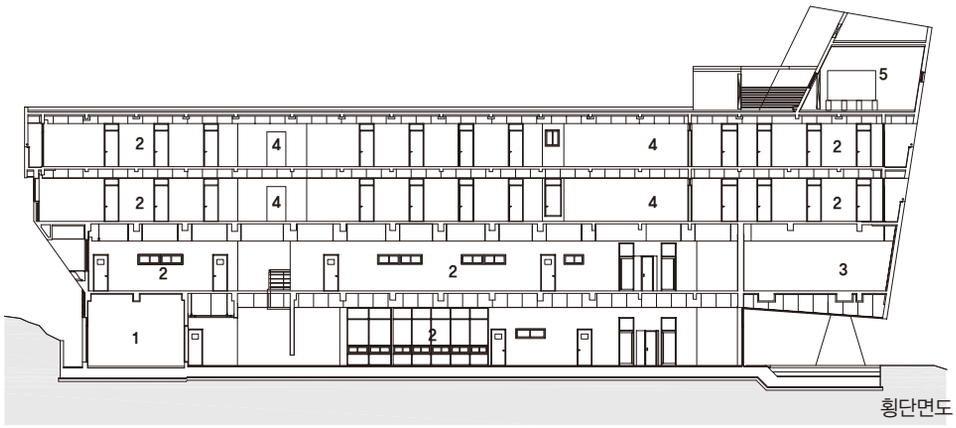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1. 기계실
2. 복도
3. 열람실
4. 휴게실
5. 물탱크실
6. 홀 및 휴게실
7.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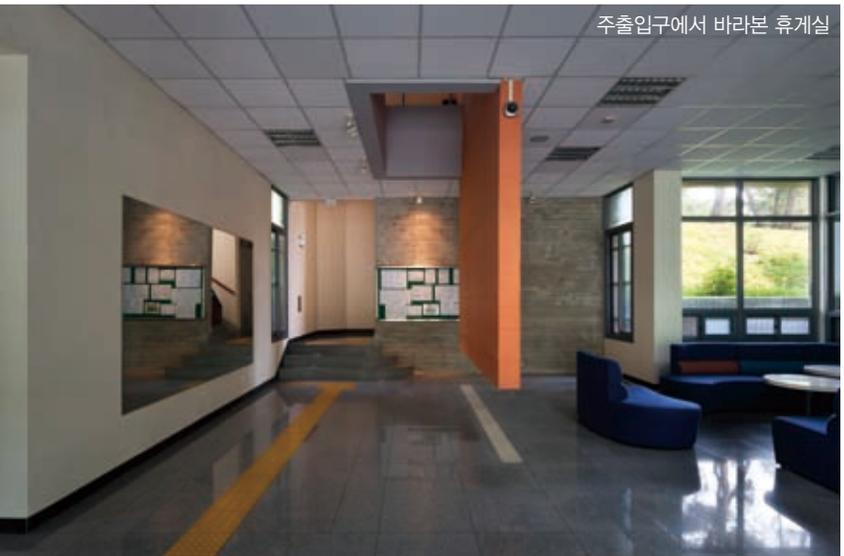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주출입구

1층 필로티 포인트 기둥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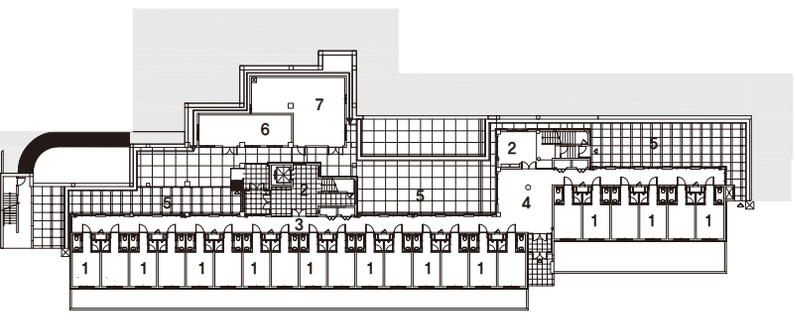
복도에서 바라본 휴게실

운동장에서 바라본 기숙사 1,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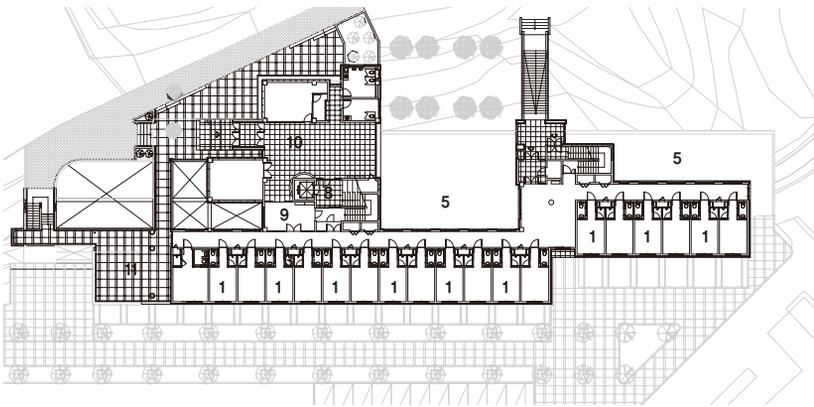
3층 주출입구 전경

산책로에서 바라본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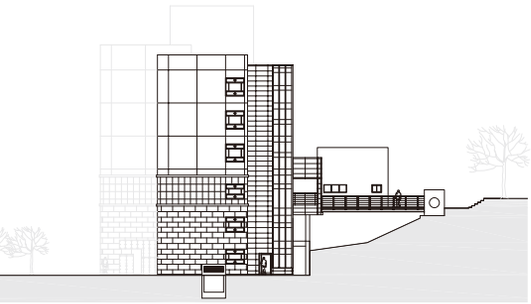
1. 사생실
2. 휴게실
3. 복도
4. 홀
5. 선큰
6. 기계실
7. 물탱크실
8. E.V홀
9. 휴게실
10. 로비
11. 휴게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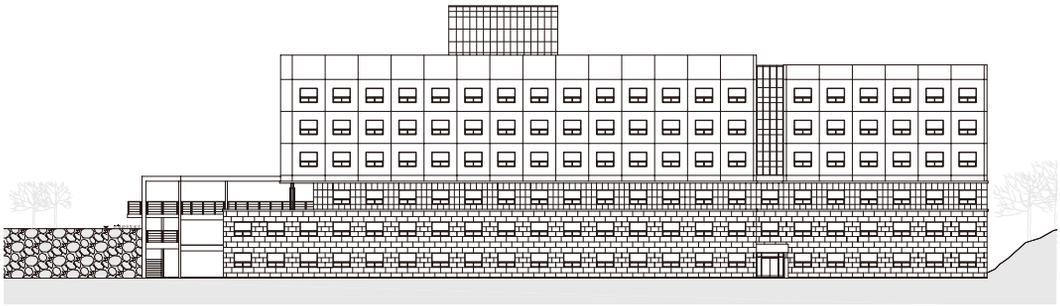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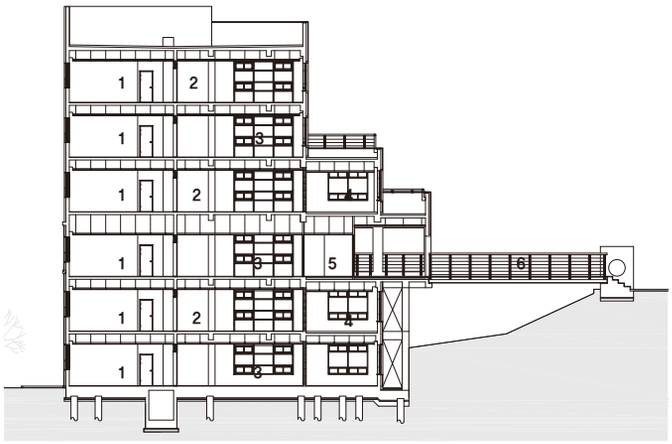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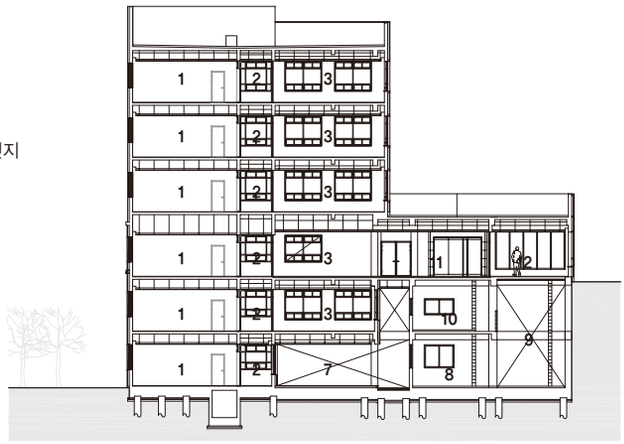


정면도



종단면도 1

1. 사생실
2. 복도
3. 휴게실
4. 세탁실
5. 방풍실
6. 철골데크 브릿지
7. 필로티
8. 기계실
9. 물탱크실
10. 전기실
11. 로비
12. 경비실



종단면도 2

진입로에서 바라본 전경

연결브릿지 전경

계단실

플로팅 매스
FLOATING MASS

설계자 | 정명환_KIRA |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광주대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남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대 건축학과 설계스튜디오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 광주현대병원, 한사랑병원, 선한병원, 서정병원, 효인병원, 위대항외과, LK메디컬빌딩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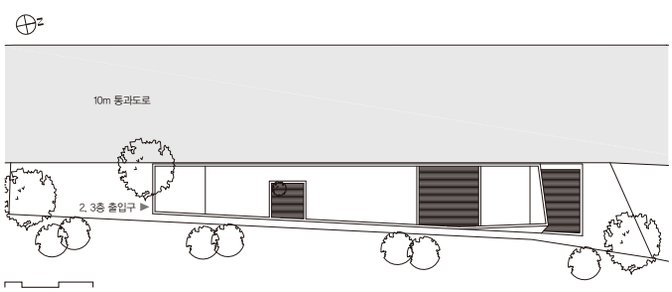
- 설계팀 : 정지웅, 박시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임종환(거림구조)
  - 기계설비 : 권진환(아인기전)
  - 전기분야 : 이영재(신가승이엔지)

건축주 | 박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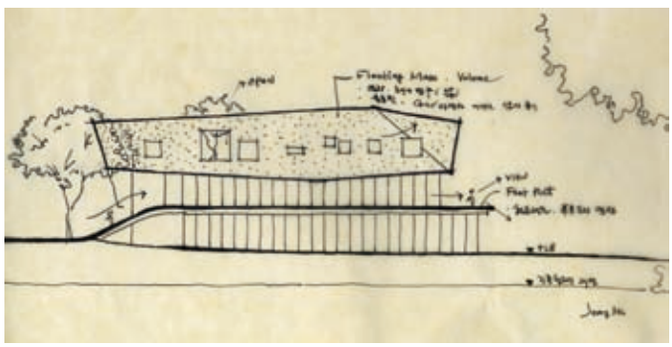
시공자 | 욱일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14-30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3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85.31㎡
연면적(Gross Floor Area) | 463.7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91%
용적률(Floor Area Ratio) | 144.92%
규모(Building Scope)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THK16브론즈컬러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6. 01 ~ 2011. 01. 31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10. 15 ~ 2011. 01. 31
사진(Photographer) | Jeong, Myung-hwan

Client | Park, Sang-hee
Architect | Jeong, Myung-hwan
Project team | Jung, Ji-woong / Park, Si-wan
General Contractor | WOOKIL Corp.
Location | 514-30, Jinworl-dong, Nam-gu, Gwangju,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Lim, Jong-hwan(GEALIM)
HVAC & Electrical Engineer | Gwon, Jin-hwan(AIN)
Electrical Engineer |Lee, Young-Jae(SINGASEUNG ENG)



배치도



스케치 이미지

Green Corridor, Green Trail, Green Garden

이제는 '푸른길 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진 폐선부지는 한때 송정리역–광주역–남광주역 그리고 지금의 효천역을 지나는 광주 도시 발전의 큰 축이었다. 2000년 남광주역의 폐역과 함께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 구간은 철도의 레일만 남긴 채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간다. 폐선부지는 도시공원화 사업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기다란 선형의 공원으로 다시 자리메김해지고, 그곳은 빠르고 육중한 스케일의 열차가 아닌 느리지만 소통이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있는 산책로가 된다.

Site

'푸른길 공원' 끝자락에 위치한 대지는 폭이 4~6m, 길이는 52m로 객차 두량이 머무를 만 한 협소하고 기다란 공간으로 철로가 있던 부지보다 1.8m정도 높다. 역사의 플랫폼을 연상시킨다.

Flat Plat, and FAOATING MASS

좁고 기다란 대지는 들어 올려져 선로를 받치고 있던 평평한 땅으로서 2층 바닥판을 형성 한다. 그 위에 우리의 기억속 어머니, 아버지의 삶과 희망을 싣고 달렸을 것 같은 열차는 네 명의 가족이 함께하는 작은 보금자리가 되어 그 위에 부유하게 된다.

Lim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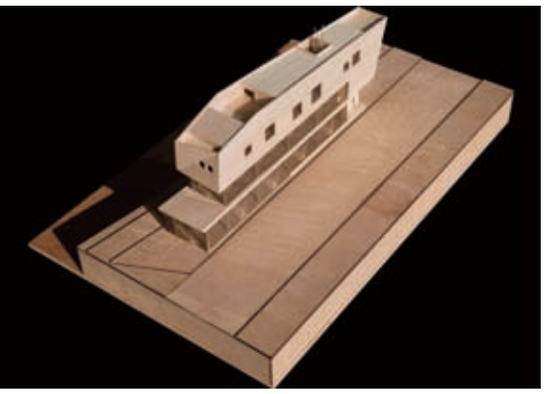
좁다란 대지의 한계 속에서 과제는 최대의 볼륨을 확보하는 것이다. 좀 더 넓은 폭이 가능한 우측은 정북일조권의 영향을 받아 상부로 갈수록 매스는 후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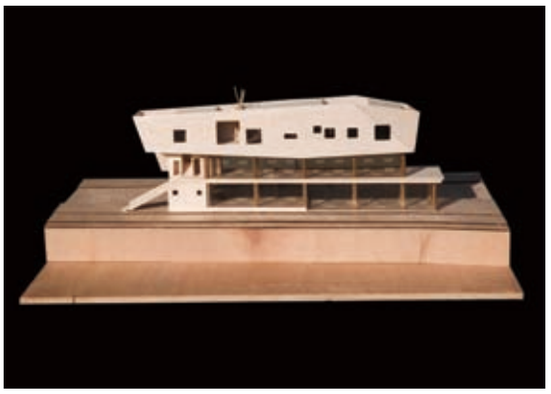
Floor and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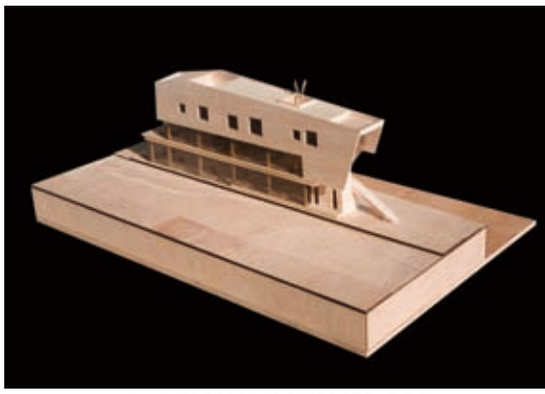
평면상 협소한 좌측에 코어를 두어 2층 음식점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생동감을 기대한다. 만남, 헤어짐, 그리움을 갖고 그 역사를 오르내렸던 것처럼….

3층은 주거로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여 내부계단으로 계획하였고, 3층에 오르면 기다란 선형의 공간을 또 만나게 된다. 복도를 통해 게스트룸, 중정, 거실, 주방, 자녀방, 안방이 순차적으로 나열된다. 작은 주거에서 마당은 절실하다. 거실에 면한 데크 마당과 거실에서 다락으로 오르면서 만나는 다락 마당은 광주 도심을 지나는 푸른 길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에서 만남과 소통의 작은 공동체공간이 되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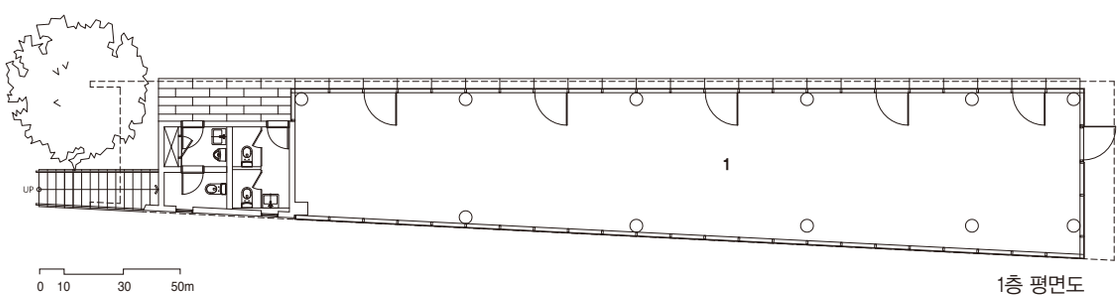
폐선부지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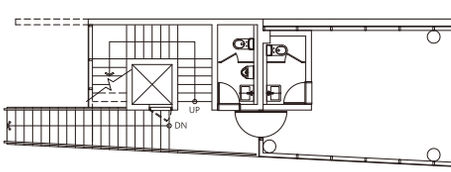




배면 도로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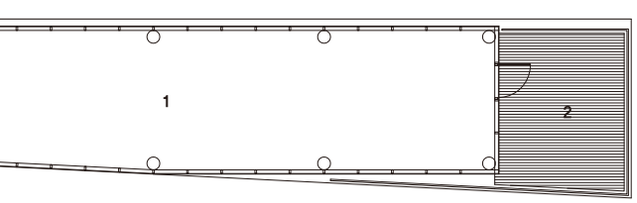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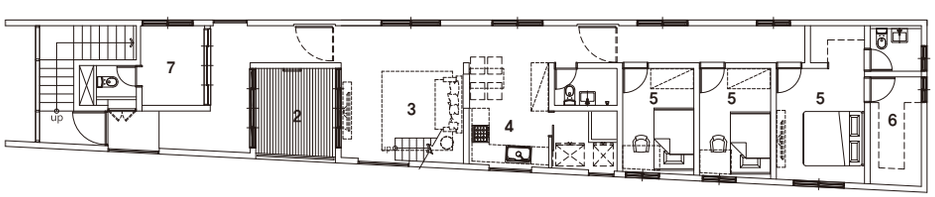


좌측면의 전경, 2층으로 오르는 계단

1. 레스토랑
2. 데크
3. 거실
4. 부엌
5. 침실
6. 드레스룸
7. 손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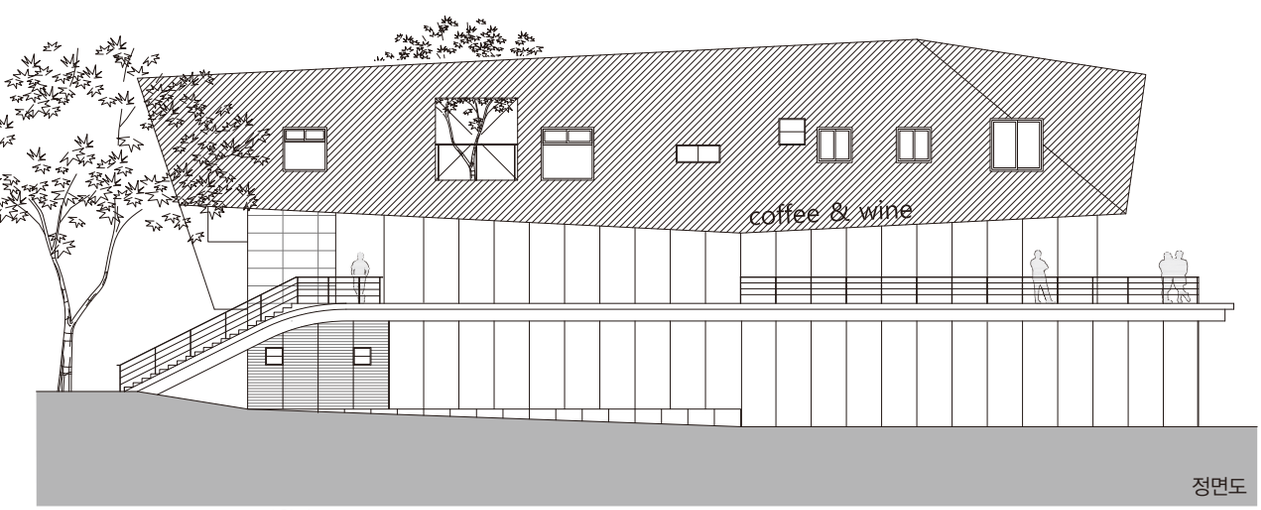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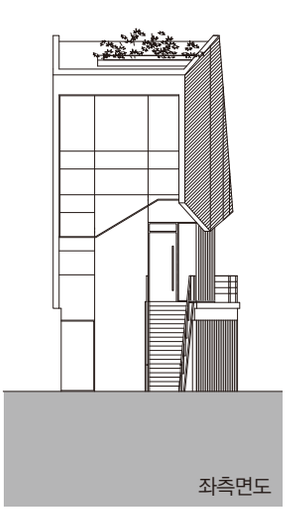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푸른길 공원에서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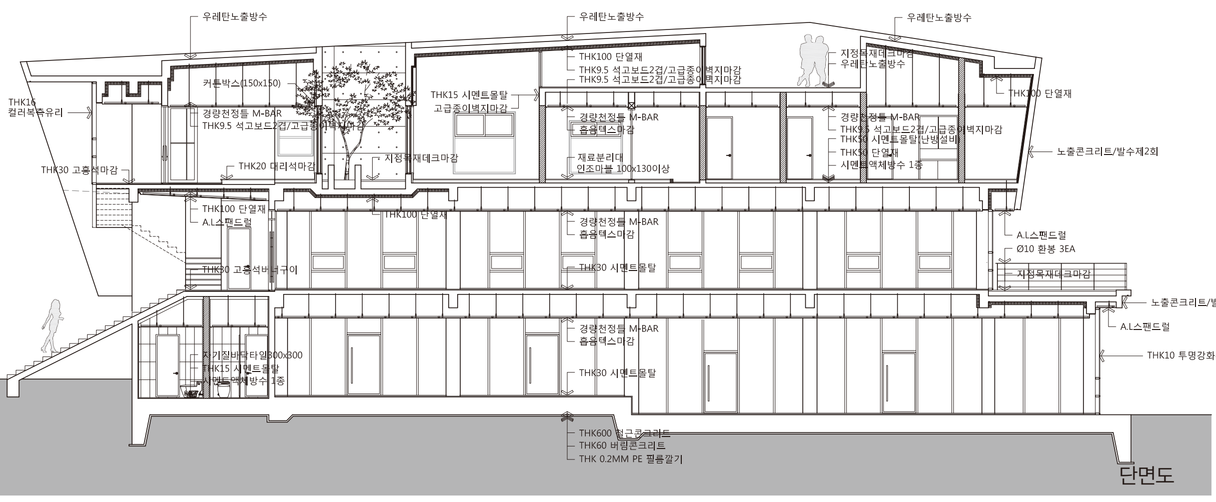
3층 배면 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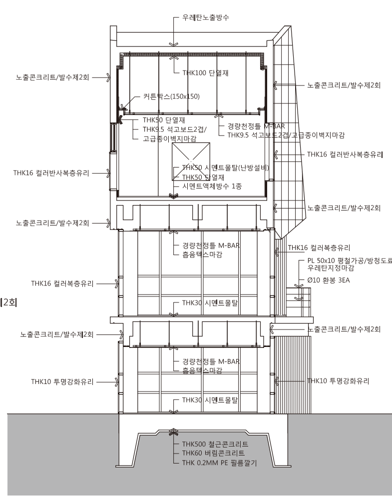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외부계단의 처마


우레탄노출방수
우레탄노출방수
우레탄노출방수
THK16
컬러복층유리
커튼박스(150x150)
경량천정틀 M-BAR
THK9.5 석고보드2겹/고급종이벽지마감
THK30 고흥석마감
THK20 대리석마감
THK15 시멘트몰탈
고급종이벽지마감
지정목재데크마감
THK100 단열재
THK9.5 석고보드2겹/고급종이벽지마감
THK9.5 석고보드2겹/고급종이벽지마감
경량천정틀 M-BAR
흡음텍스마감
재료분리대
인조마블 100x130이상
지정목재데크마감
우레탄노출방수
경량천정틀 M-BAR
THK9.5 석고보드2겹/고급종이벽지마감
THK50 시멘트몰탈(난방설비)
THK50 단열재
시멘트액체방수 1종
THK100 단열재
노출콘크리트/발수제2회
THK100 단열재
A.L스팬드럴
THK100 단열재
경량천정틀 M-BAR
흡음텍스마감
THK30 고흥석버너구이
THK30 시멘트몰탈
A.L스팬드럴
Ø10 환봉 3EA
지정목재데크마감
노출콘크리트/발수제2회
A.L스팬드럴
경량천정틀 M-BAR
흡음텍스마감
자기질바닥타일300x300
THK15 시멘트몰탈
시멘트액체방수 1종
THK30 시멘트몰탈
THK10 투명강화유리
THK600 철근콘크리트
THK60 버림콘크리트
THK 0.2MM PE 필름깔기

단면도


우레탄노출방수
노출콘크리트/발수제2회
THK100 단열재
노출콘크리트/발수제2회
커튼박스(150x150)
THK50 단열재
THK9.5 석고보드2겹/
고급종이벽지마감
경량천정틀 M-BAR
THK9.5 석고보드2겹/고급종이벽지마감
THK16 컬러반사복층유리
THK50 시멘트몰탈(난방설비)
THK50 단열재
시멘트액체방수 1종
THK16 컬러반사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발수제2회
노출콘크리트/발수제2회
경량천정틀 M-BAR
흡음텍스마감
THK16 컬러복층유리
PL 50x10 평철가공/방청도료/
우레탄지정마감
Ø10 환봉 3EA
THK16 컬러복층유리
THK30 시멘트몰탈
노출콘크리트/발수제2회
노출콘크리트/발수제2회
경량천정틀 M-BAR
흡음텍스마감
THK10 투명강화유리
THK10 투명강화유리
THK30 시멘트몰탈
THK500 철근콘크리트
THK60 버림콘크리트
THK 0.2MM PE 필름깔기

CGI센터

COMPUTER GENERATION IMAGE CENTER

LS
LS농업기계
동양기계

CGI센터

설계자 | 양병범_KIRA |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2003년 (주)유탑 건축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전남대, 순천대 건축학과의 겸임교수로 설계스튜디오를 담당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광주 CGI센터, 전남대 동아시아센터, 광주야구장 등이 있다.

설계자 | 오금열_KIRA |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신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를 취득하였다. 2003년 (주)유탑 건축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광주 CGI센터, 전남대 치대변원, 전남대 동아시아센터, 전남대 치대병원 등이 있다.

설계자 | 길종일_KIRA |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토문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2003년 (주)유탑 건축소사무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광주 CGI센터, 전남대 동아시아센터, 광주 노인복지타운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창오, 채승훈, 염은선, 장향숙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양홍석
– 토목분야 : 박진홍
– 조경분야 : 김재우
– 기계분야 : 김재식
– 전기/통신분야 : 이재신
– 소방분야 : 양청석

건축주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감리자 | 유탑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금강건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73-3번지

주요용도 | 방송통신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9,298㎡

건축면적(Building Area) | 5,390.85㎡

연면적(Gross Floor Area) | 14,286.5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98%

용적률(Floor Area Ratio) | 132.47%

규모(Building Scope) | B1 – 10F

구조 | RC, 철골트러스트 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 : THK3.0 알루미늄 쉬트판넬(지정색도장) 창호: THK 24 복층유리
내부마감 : 화강석, 수성페인트, 석고텍스, 비닐계타일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10. 27 ~ 2009. 04. 25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9. 05 ~ 2011. 06

사진(Photographer) | Gwon, Tae-wang

Client | Gwangju City

Architect | Yang, Byeong-beom / Oh, Keum-yeol / Gil, Jong-il

Project team | Kim, Chang-ho / Chae, Seung-hoon / Yeom, Eun-seon / Jang, Hyang-suk

General Contractor | kumkang Engineering& construction

Location | 373-3, Songha-dong, Nam-gu, Gwangju,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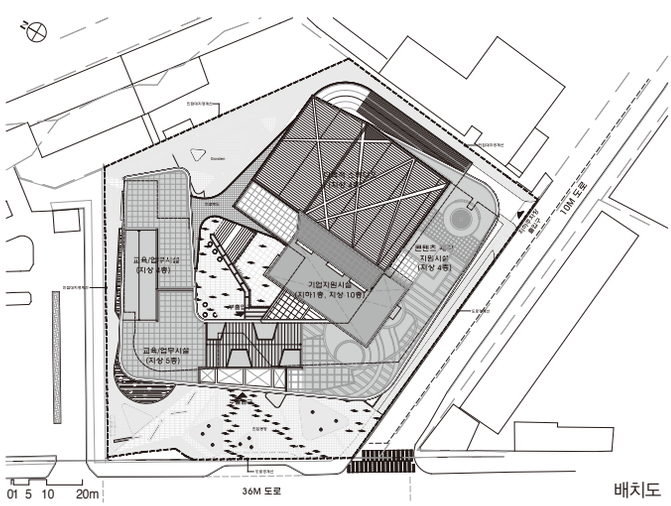
Structure | R.C Steel Trust

Structural Enginner, HVAC, Electrical, Civil | U T E A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Exterior_ THK3.0 Aluminum Sheet, Window_ THK 24 pair Glass
Interior: Granite, PVC tile, Water paint

CGI센터는 인근 디지털콘텐츠 관련 산업 시설들이 집약적으로 배치된 남구 송하동에 위치한다. 대지는 국도1호선, 제2순환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주변에는 서측으로 화방산, 북동측에 옹녀봉, 남동측에 안산이 위치하여 아늑하고 포근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전면에 송원대, 우측 남부소방서, 차량등록소, 후면에는 자동차관련 공장시설들이 위치한다. 본 대지는 도시축, 방위축, 자연경관축 유지하고 있으며, 서측 36m, 남측 10m 도로에 인한 통과차량 소음 및 후면의 연계 및 확장이 고려된다.
발주처에서 제공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엔지니어, 관리자,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4가지의 공간의 카테고리를 제안하였다. 1) 시큐리티존으로 컨텐츠 제작지원시설 2) 프라이빗존으로 기업임대사무실 3) 세미퍼블릭존으로 교육 및 업무지원시설, 4) 퍼블릭존으로 체험관, 자료실, 편의시설을 배치하였다.

배치 프로세스는 정면의 개방감과 후면과의 연계를 위해 상징축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좌측에 업무지원시설, 우측에 콘텐츠제작관련 시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중정형 배치 계획을 통해 이벤트, 휴게 등을 위한 진입광장, 선큰, 후면가든, 수공간을 두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차량진출입은 남측 10m도로를 이용하여 계획하였다.
지하 1층은 휴게 및 다양한 성격의 문화, 교류, 가상체험, 영상 등 이벤트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미디어선큰을 계획하였으며, 선큰과 푸드코트는 서로 연계하여 공간의 가변성을 부여했다. 지상 1층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경험과 제작 스튜디오 계획을 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프로젝트룸, 카페테리아, 영상아카이브, 모션캡쳐스튜디오가 있다. 모션캡쳐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작업이 원활하도록 부대시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계획하였으며, 로비 좌측에 위치한 카페테리아는 이용자를 위한 정보교류와 휴게공간으로 계획하며, 반대편 우측에 위치한 프로젝트룸은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체험하고, 관람,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계획하였다. 지상 2층은 업무시설 및 디지털콘텐츠제작 및 교육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교육실, 미디어변환실, 편집실 등을 계획하였다. 특히,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시설은 프리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마스터콘텐츠의 작업흐름을 고려하여 조닝 하였다. 지상 3층은 이용자의 접근시간별로 변화하는 시사실을 계획하여, 시사실은 평일에는 믹싱스튜디오로, 주말에는 이벤트, 영화상영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한다. 지상 4층은 저층부와 상층부의 기능을 구분하는 버퍼존을 형성하며 기업임대사무실이 시작되는 층으로 저층부의 지붕면을 활용한 옥상정원을 계획하여 입주자의 휴게공간을 확보하였다. 기준층은 임대사무실의 규모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장방형 모듈을 계획과, 환경이 좋은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그 면적이 증대하여 임대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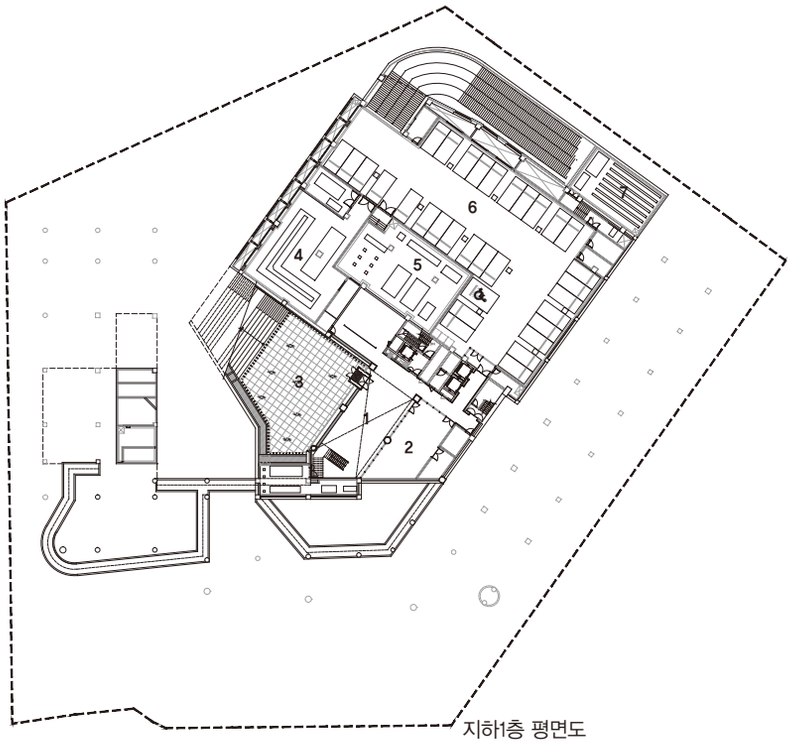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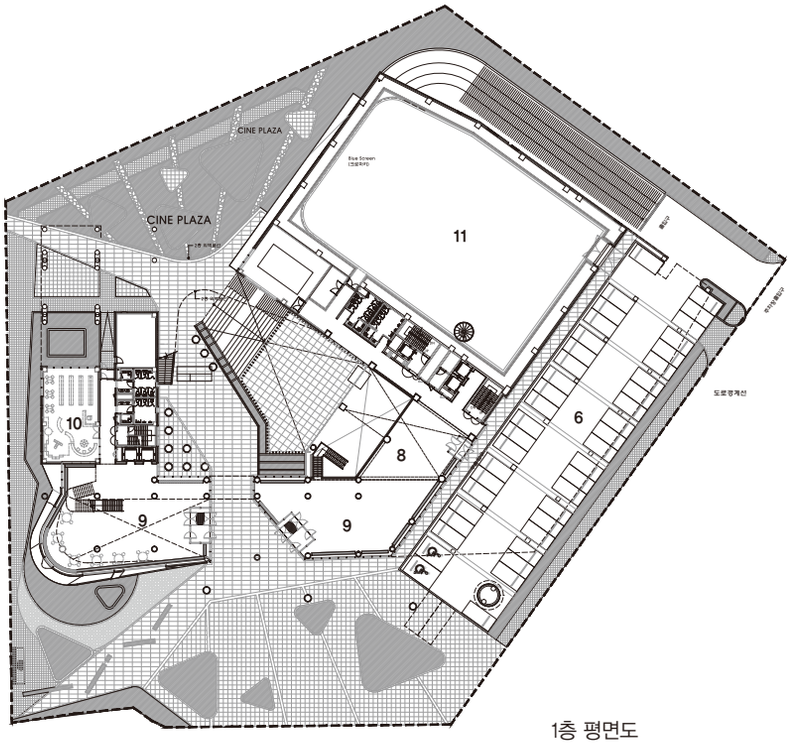
송원대에서 바라 본 모습

송원대 정문측에서 바라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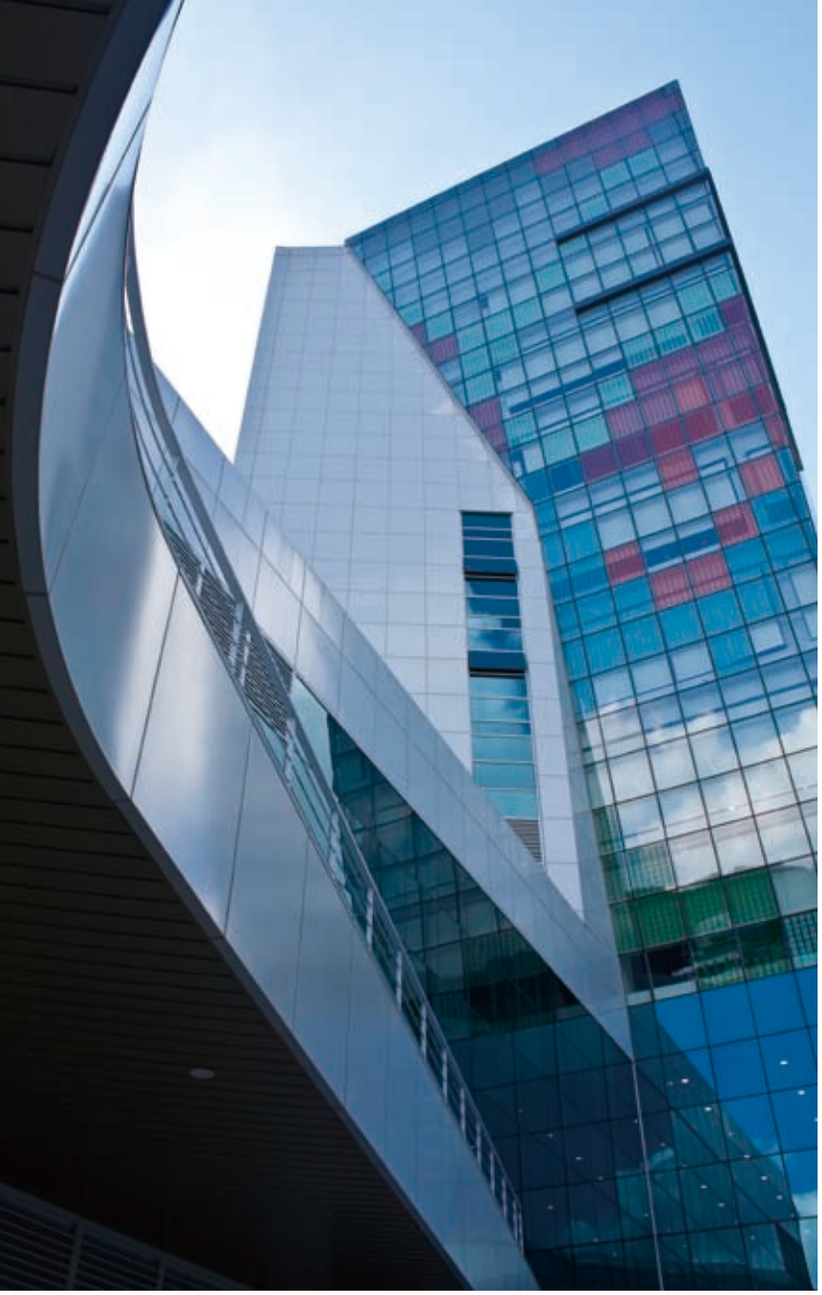
진입광장에서 바라 본 모습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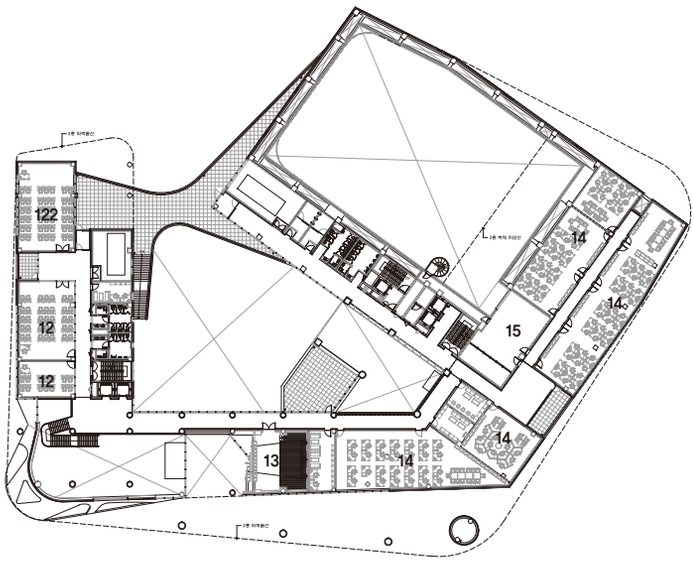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씨네플자라에서 바라 본 모습

1. 홀
2. 편의시설
3. CINE PLAZA
4. 전기실
5. 기계실
6. 주차장
7. 물탱크실
8. 로비
9. 다목적홀
10. 전시홀
11. 다목적스튜디오
12. 교육실
13. 시사실
14. 공동작업실
15. 부조정실
16. 운영사무실
17. 회의실
18. 영사준비실
19. 랜더팜운영실
20. 수면실
21. 자료/휴게실
22. 영상편집실
23. 필림레코딩실
24. 종합편집실
25. 랜더팜/영상장비실
26. UPS실
27. DI미디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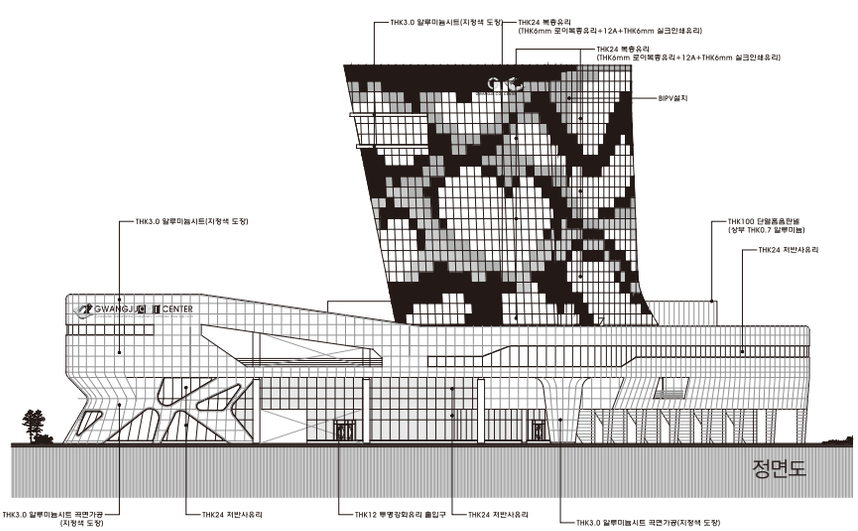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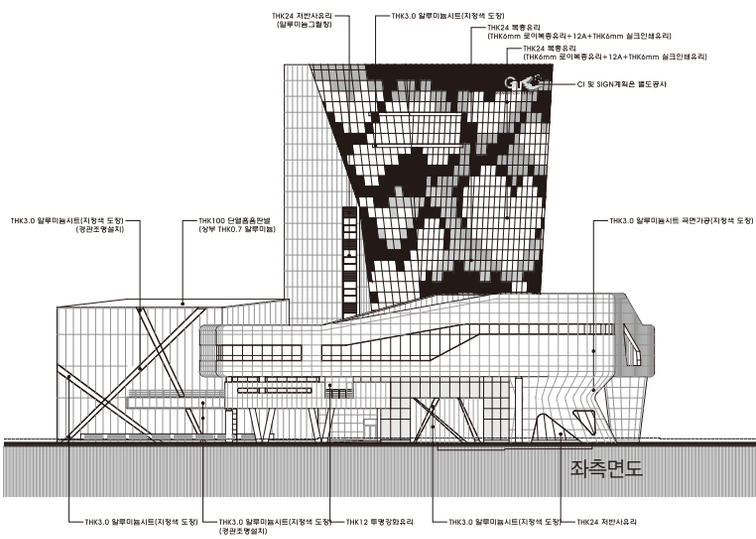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3층 복도에서 바라 본 모습

업무시설 로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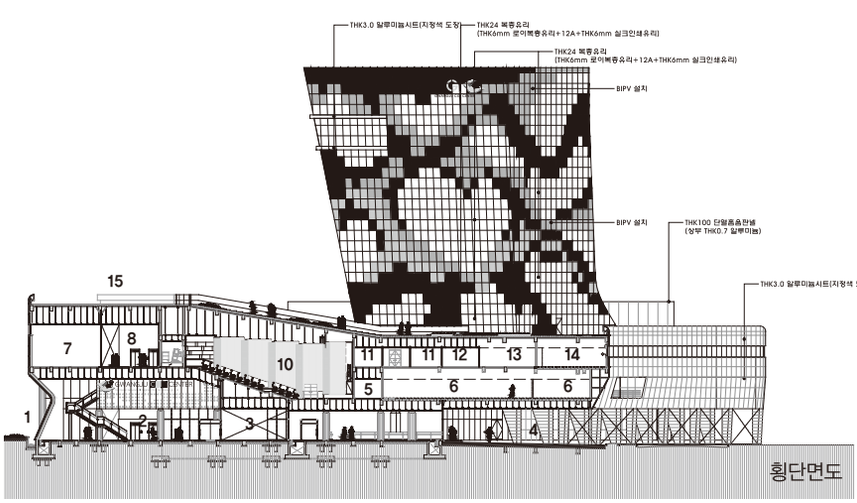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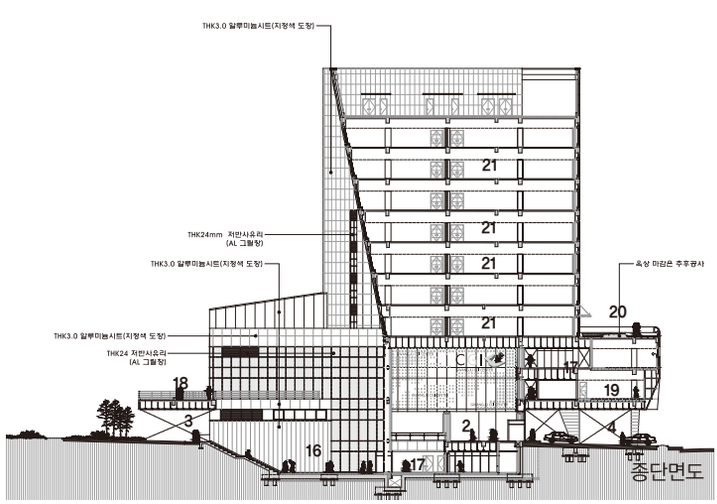
좌측면도

콘텐츠 제작시설 로비 모습

1. 수공간
2. 다목적홀
3. 필로티
4. 주차장
5. 준비실
6. 공동작업실
7. 대회의실
8. 휴게실
9. 조정실
10. 시사실
11. 수면실
12. 자료 및 회의실
13. 랜더팜운영실
14. 영상편집실
15. 옥상휴게공간
16. CINE PLAZA
17. 홀
18. 연결통로
19. 분장실
20. 옥상휴게공간
21. 콘텐츠제작실



횡단면도



중단면도

하남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_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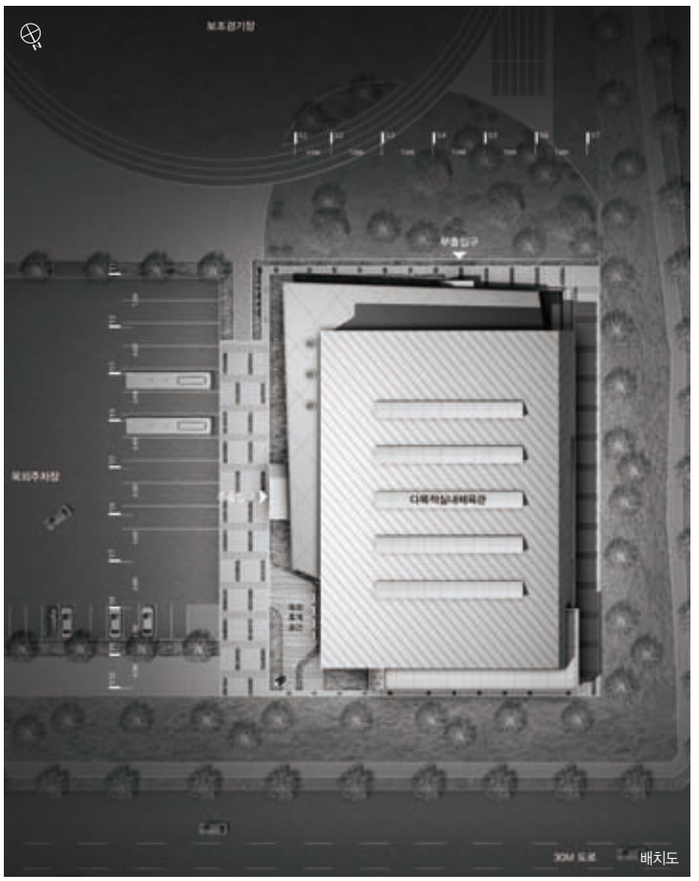
HANAM MULTIPURPOSE GYMNASIUM

발주자 : 경기도 하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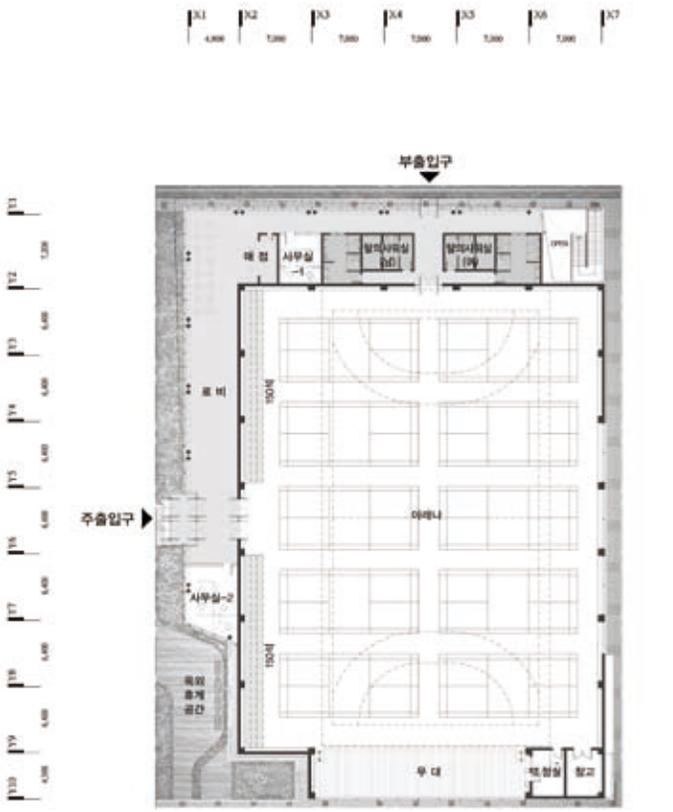
설계자 : 노형래 KIRA |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원중, 장승현, 조영채, 유진선, 박재광, 윤지영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00번지 (하남종합운동장 내)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체육관
대지면적	140,979㎡
건축면적	8,153.85㎡
연 면 적	14,362.68㎡
건 폐 율	5.78%
용 적 률	10.1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1층
주요마감	외부-금속패널, 고밀도목재패널, 로이복층유리 내부-목재후로링, 자기질타일, 무석면비닐타일, 친환경 흡음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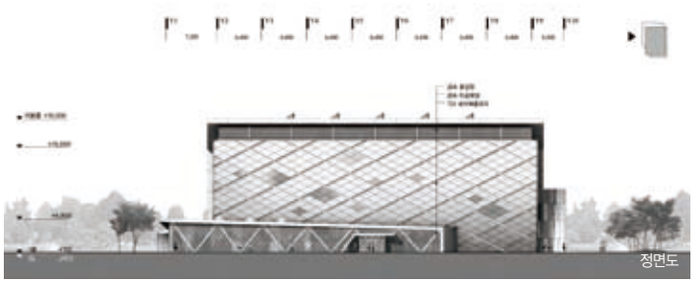
본 건물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주민의 문화, 체육활동을 위해 계획되었다. 인근 주민의 주차장 동선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외부 휴게공간을 배치하였고, 기존 시설과 연계성 및 형태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매스는 과도한 장식적인 요소 배제,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실내 무대벽을 커튼월로 설치하여 미사용 시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자연환기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계획 하였다.
입면은 한강에 비치는 물빛을 모티브를 형상화하여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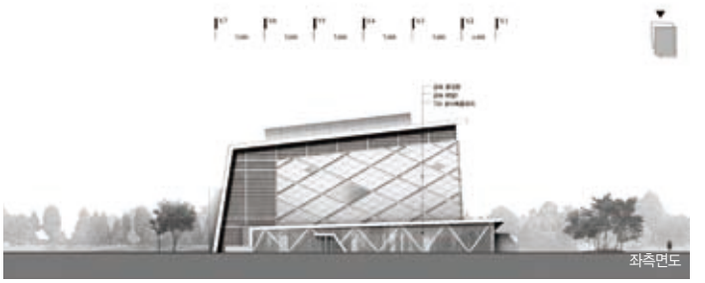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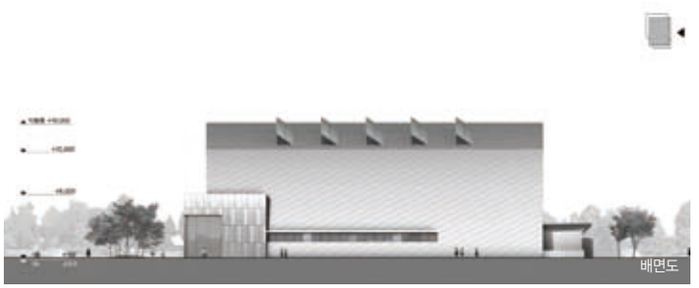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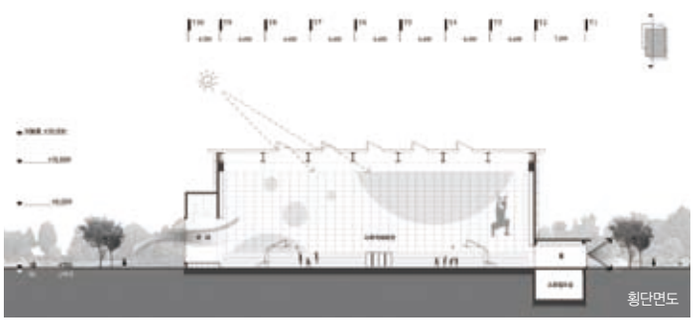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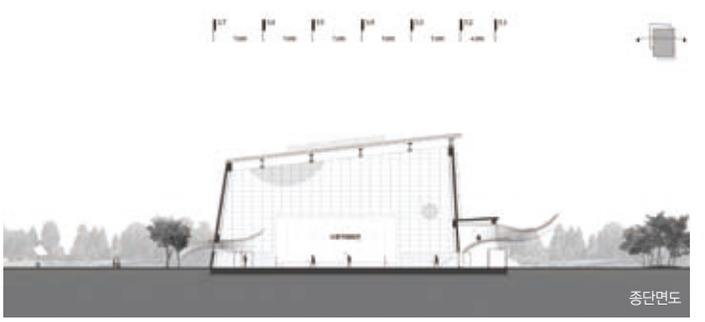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코이카 창립 22주년 기념 제1회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대학(원)생 공모전

The 1st KOICA Establishment Ceremonial Architectural Competition

'팔레스타인 제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지난 7월 19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글짓기 · 사진 · 광고 · 건축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글짓기는 16회, 사진과 광고는 3회가 되었고, 건축디자인 공모전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금번 공모전은 관련분야 학생 및 전문가에게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문화환경과 그에 기반한 건축적 접근을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고자 주제를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으로써 KOICA의 인도주의적 가치 및 한국적 미를 재해석하여 건축을 통한 새로운 ODA 문화 창출' 또 '협력국의 문화 및 지역성을 반영하고 현지인들의 삶과 융화되는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했다.

흔하지 않게 국내지역 대상의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니고 가능성이 무궁한 지역의 한 부분인 팔레스타인(제닌)에 건설될 청소년센터의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던 공모전의 결과를 지면으로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 **대상 사업 및 내용**
  - 대상사업 : 팔레스타인 제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 연면적 및 규모 : 2,700㎡ (3층 이하)
  - 건축공사비 : 240만불
  - 사업내용 : 제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여성, 아동들의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풍요로운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지향하는 청소년센터를 건립함
- **참여대상** : 국내 대학(원)생 1팀 2인 이내
- **시상내역**
  - 대 상 (1명)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해외견학
  - 금 상 (2명)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해외견학
  - 은 상 (3명)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동 상 (5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입 선 (10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문의사항** :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총괄팀 방설아 건축전문관 031-740-0859

심사평

김인철(아르키움 대표) – 심사위원장

금번 공모전의 심사 주안점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개발도상국의 건축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이에 건축을 대하는 진정성을 표현하는 방법론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서구에서 발신된 모더니즘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형식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이제 세계의 곳곳은 획일적인 건축양식에서 벗어나 고유의 정체성을 찾으려하고 있다. 현대건축의 기술로 쌓은 지식을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건축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지역주의로 표현되는 자기 확인은 우리의 전통건축이 갖고 있던 내재적인 의미를 찾는 것일진대 다른 지역의 건축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주관을 객관화시켜 보는 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반만년의 시간이 쌓은 우리의 전통건축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오늘날의 지식으로 재창조하는 "한국적인 건축"이 가능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팔레스타인에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있다. 그들의 가치를 밝히고 우리의 현대적 지식을 결합시키는 과정을 숙성시켜나간다면 ODA 건축을 통한 한국의 원조사업이 재원과 기술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며 상호간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모전에 참가한 모두가 건설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건축을 생각하는 공부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기대한다. 풍토에서 비롯되는 건축이 어떻게 다루어져야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탐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입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을 공부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건축가로 완성되는 긴 시간에서 짧은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긴 호흡으로 착실한 과정을 치룰 준비에 게으르지 않기를 당부한다.

신춘규(CGS건축 대표)

금번 코이카의 건축 아이디어 학생공모전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결실이 있었다. 현상설계의 공고를 접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수원국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원조국인 한국에 대한 인식을 건축에 어떻게 표현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기성 건축사들에게도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2차 심사의 11팀의 발표를 본 후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금상을 받은 두 개의 팀 중 '在仁院(재인원)'은 어질 '인'자를 개념화하여 두 나라의 전통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중정을 두고 팔레스타인의 건축적 스타일을 무난하게 잘 녹여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The Mound of Jenin' 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솔리드와 보이드 공간으로 잘 규명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큰 융단과 같은 지붕으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냄으로 지역적인 기후 특성에 잘 대응함과 동시에 돌과 언덕이 많은 지형적인 특성을 잘 살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고 평가된다.
대상을 받은 'Healing Tent for Jenin'은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독창적이면서도 건축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된 안이다. 텐트가 두 개의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되는 가를 착안하고 이를 이용해 건축공간의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액티비티를 이끌어내는 매개체로 승화시킨 점이 아주 높게 평가 받았다. 이 안은 이대로 실현하여 짓는다 하더라도 코이카의 사업으로 별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본 공모전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축부분에 있어서의 학생공모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및 코이카의 국제활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송기봉(범건축 부사장)

출품 작품들 간의 수준 차이가 비교적 컸던 공모전이었다.
디자인의 출발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성과물까지, 이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던 바람을 고스란히 충족시켜준 작품도 있었고, 반면 기대에 못 미친 작품도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현지의 여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이지만 건축은 아랍 양식을 따르지 않고, 추운 나라가 아니며, 석재가 목재보다 훨씬 싸다는 점, 커튼월이나 유리의 조달이 어렵다는 점 등을 미리 이해했더라면 더 좋은 작품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안뜰 상부에 가변형 막구조를 도입하여 안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게 하였고, 외부와는 어느 정도 폐쇄감을 유지하면서도 내부로는 완전히 열린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당장 그대로 건축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서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대상

Healing Tent for Jenin

전대호, 임혜지(인하대학교 건축 대학원)

금상

在仁院

김경재, 이원호(목원대학교)

在仁院 (제닌 청소년 센터)

- 한국과 제닌의 공간적 만남
: 커-사이공간과 툇마루 계획

제닌시 청소년 센터는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만남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센터의 건립은 현재 제닌시의 지역사회 문제와 청소년들의 스포츠,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써 제시될 것이다. 더 나아가 유디화 (제인청-제닌인) 청소년 센터는 세계로 향한 한국의 인디그를 실천하고, 제닌시 청소년들이 꿈은 인성과 인품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제닌시 청소년 센터 계획에 있어 가장 큰 주안점은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전시적 만남과 청소년들의 활동적인 행태를 지원하는 공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의 스트레스인 스포츠,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제닌시와 한국의 연대가 더욱 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한국-팔레스타인의 공간적 만남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인 커-사이공간으로 제시한다. 이는 각 공간들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한국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건물과 마당으로 정의되는 공간구성 방식을 말한다. 제닌시 청소년 센터는 제와 제 사이에 마당을 두어 각 공간들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외부와 내부 그리고 지면과 건축 간의 공존을 의도하는 한국적 공간 유전자를 담게 될 것이다.

모든 청소년들의 활동적인 행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각 공간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한국 건축구조에서 볼 수 있는 툇마루를 계획하였다. 커-사이공간이 대지 전체의 연결과 확장을 가져다준다면 툇마루는 작은 단위공간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한 옥식의 공간으로도 역할을 한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제닌시의 기후인 고온 건조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지붕과 툇마루를 통한 일사조절로 옥식과 활동적인 행태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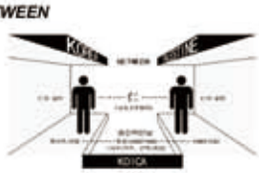
Ent. & Plaza

Court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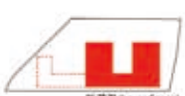
Footsal Field

Mai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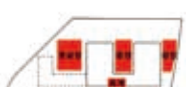
BETWEE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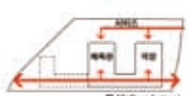
커 공간(Layer Space)



사이공간(Between Space)

툇마루(TaeMaru)

자속가능성(Passive Design)



동선(Circ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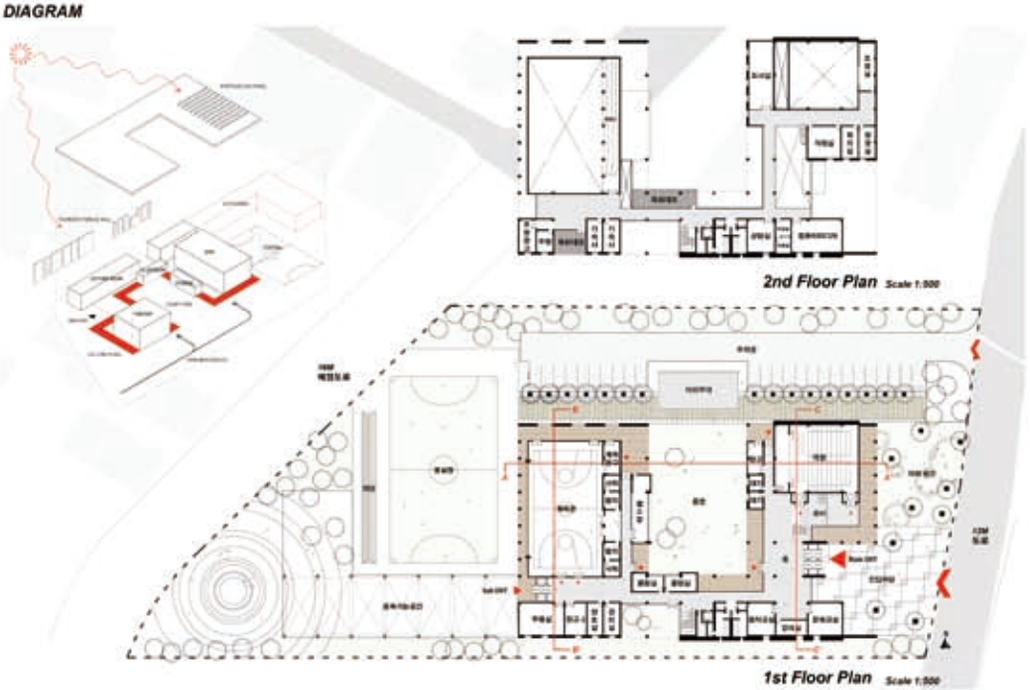
SITE ANALYSIS & PLAN

1. 실내체육관과 야외 운상장을 계획하여 기술고등학교와의 연계성 확보
2. 메인입구와 야외모임 공간을 계획하여 초등학교와 SITE의 연계성을 확보
3. 부간입구와 외부주경을 계획하여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예정도로 고려 (수원 증축가능 영역)
4. 증정을 계획하여 주차장과 MASS, 체육관과 극장, 그 외 프로그램을 간의 연계성을 확보
5. 본건소 주차장에 대응하여 주차장을 계획 하고 극장, 실내체육관의 서비스지원

BUILDING SCHEME

- 대지위치 : 팔레스타인 제닌시 Al Madares Area
- 대지면적 : 10,000㎡
- 건축면적 : 2,752㎡ 건폐율 : 27.52%
- 연 면 적 : 2,865㎡ 용적율 : 28.65%
- 층 수 :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 29대 (장애인 1대)

DIAGRAM



2nd Floor Plan Scale 1:500

1st Floor Plan Scale 1:500

SECTION Scale 1:500

Key map

ELEVATION Scale 1:500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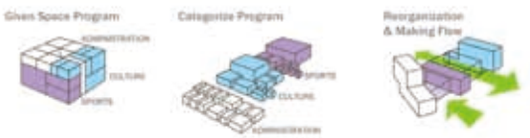
The mound of Jenin

이경섭(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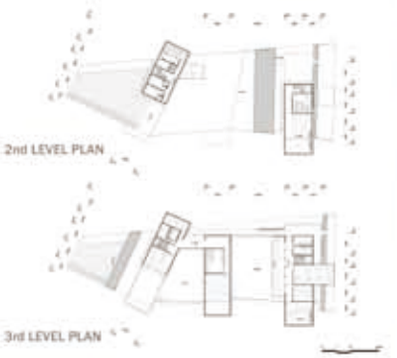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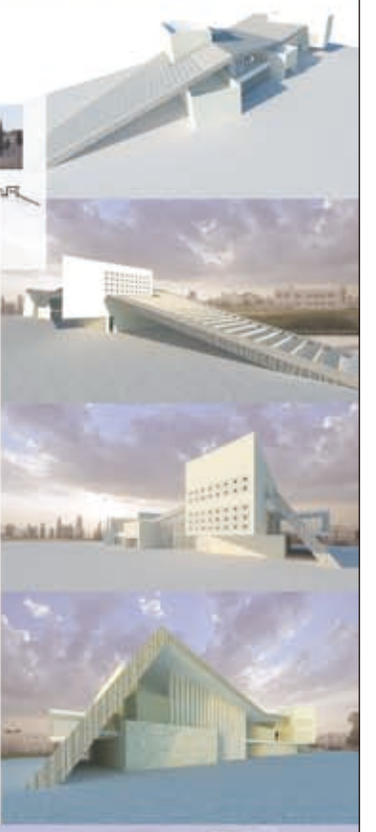
CONCEPT

DESIGN PROCESS



PLAN





은상

Open Scenery

이내현(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건축디자인과)

> Urban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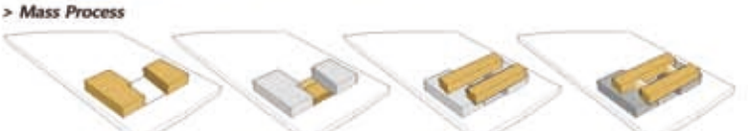
> Master Plan

Cultural Youth Center in Jenin Municipality
Use : Gymnasium/Theater/Culture Center
Site Area : 10,000m²
Gross Floor Area : 2,742.35m²
Bldg Scale : 3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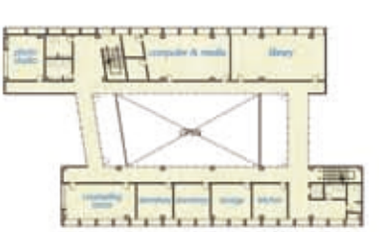
> Approach & Motive

[Entry Barriers]
[Material]
[Open Gate]

> Mass Process



> Floor Pl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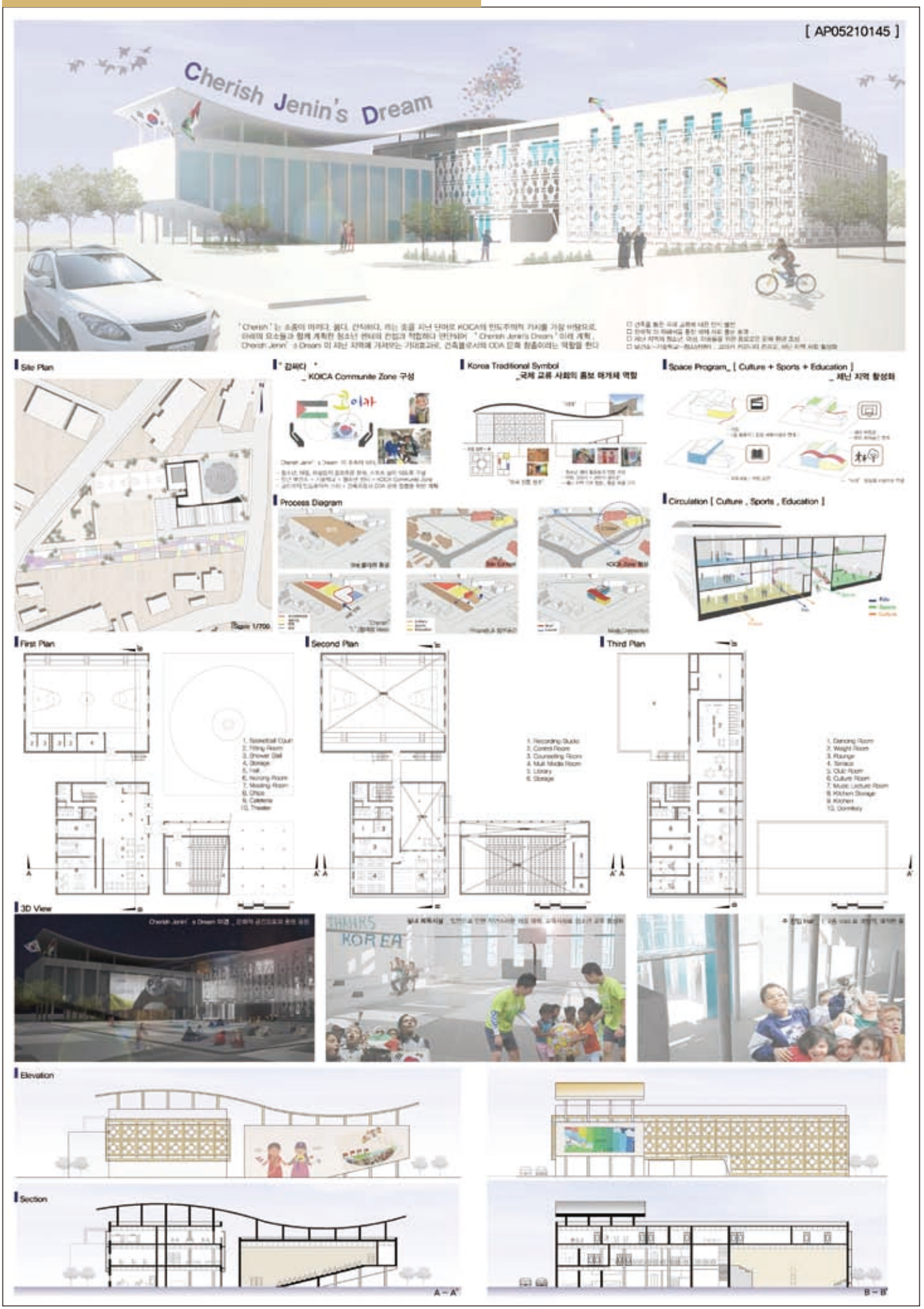


> Section

은상

Cherish Jenin_s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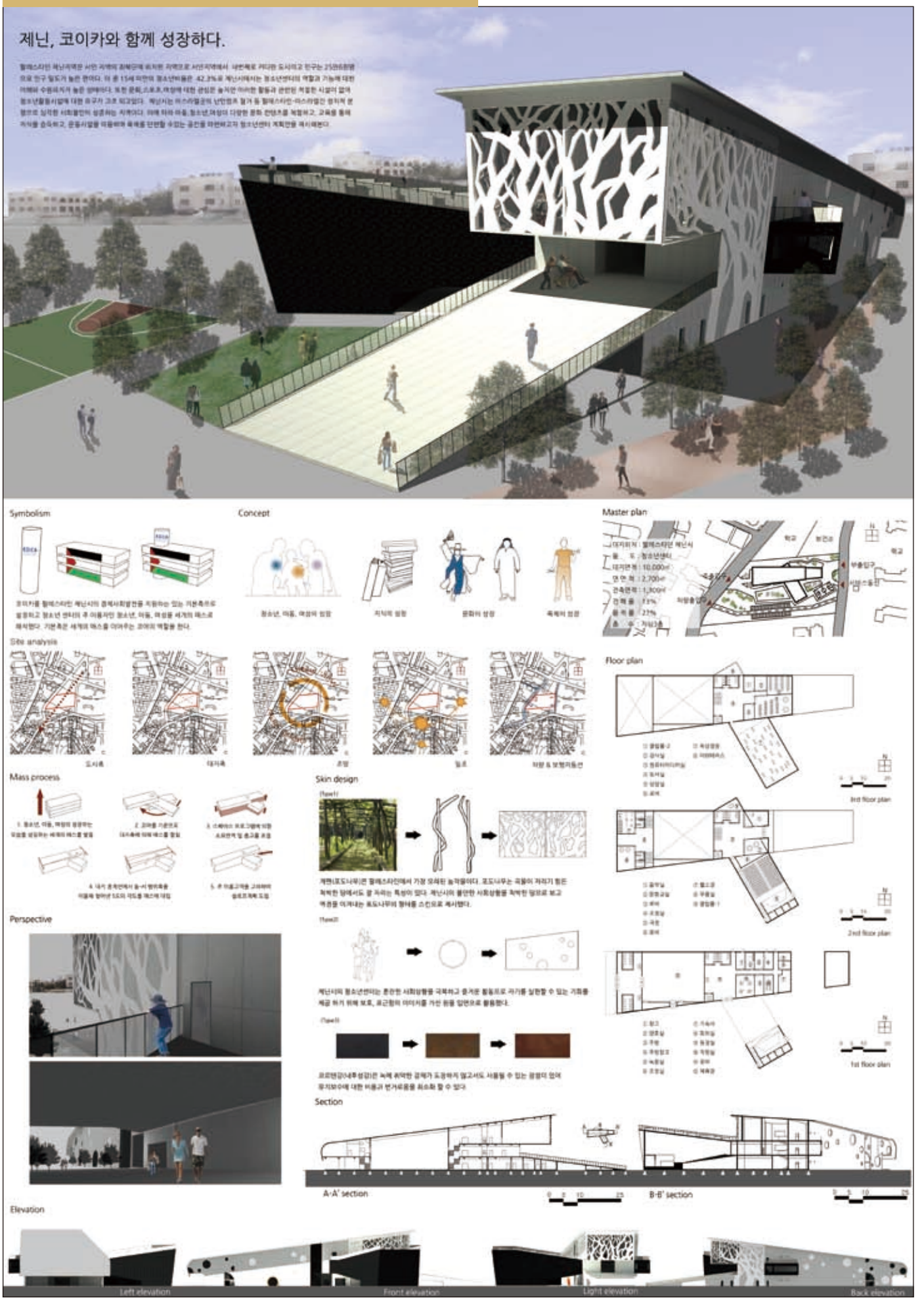
김현아, 이영수(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은상

제닌, 코이카와 함께 성장하다

권백주, 장민영(우석대학교 건축, 인테리어디자인학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제청

Request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cquirement of School Site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07. 7. 14.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2010. 3. 17. 준공인가를 받았다.

(2) 위 재건축사업구역의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이고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가구수는 30가구가 증가한 800가구인데,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 중 일부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 등을 조합에 매도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정산을 받음에 따라 제청신청인은 주택 중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2010. 10. 7. 제청신청인에게 일반분양한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3) 제청신청인은 2011. 3. 3. 위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182), 그 소송의 계속 중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1. 8. 19.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아1354).

2.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1헌가32 결정의 요지

(1)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인데,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겨나지 않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킨다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법적 공백 상태를 막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존속하게 하여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2014. 12. 31.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

발사업분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 규정까지 잃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되,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4. 12. 31.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3. 판례 평석

(1)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며, 납부된 부담금은 학교 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존 건물의 증축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에게만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헌재 2008. 9. 25. 2007헌가1 결정;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기존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 대상이 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게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되는 경우 기존에 비해 가구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취급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학교시설의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던 것이다. 즉, 이 사건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들 사이에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하는 차별을 초래하고, 바로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보는 데에 헌법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3)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기도 한다. 본 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임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하는 법적 공백 상태를 야기하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2014. 12. 31.까지 법률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존속하게 하여 이를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는 결정(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옥은 근대를 어떻게 맞이했나?

Hanok's Response to modern Society and Change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주임교수

개항과 전통건축의 사회적 위상

1876년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여 서구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양제도의 도입으로 중앙의 제도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시와 건축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지방의 경우 근대적 제도와 새로운 기능을 수용할만한 새로운 건축물이 뒤따르지 못했다. 중앙에서는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양의 건축을 도입하였지만, 지방의 경우 전통건축의 틀 속에서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통건축의 사회적 입지는 중앙에서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지방에서는 차선책으로 전통건축이 선택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지역에서 근대적 기능을 수용한 전통건축의 공간적 · 구조적 변이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1897년 서구를 모델로한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대한제국의 출범은 경운궁의 첫 정전의 건축양식으로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을 선택하였으나, 동시에 전통적인 건축적 질서의 상징인 중화전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는 대한제국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지만, 전통의 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통건축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의 변화

서양건축이 이 땅의 건축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던 것은 건축 자체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시기에 서양건축이 이 땅에 도입되면서, 건축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스템을 바꿔 놓은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안정을 유지해왔던 전통건축 생산체제는 19세기 이후 임금제가 확산되고, 경복궁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공사이후 건축장인들의 도시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복궁 건축이후 고급기술을 가진 장인조직이 민간에 참여하면서 건축술의 향상과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전통건축에서 일어난 변화는 건축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건축기술자들은 여전히 도제방식에 의한 사설교육체제에 의해 길러졌고, 건축재료는 자연이 공급해주는 재료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산업혁명에 의해 확립된 공장을 통한 대량생산 체제와 대량소비 체제는 건축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산업이전과 이후의 건축에서 가장 큰 차이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건축 수요의 증가는 건축재료의 빠른 생산과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연에만 의지하던 건축재료는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했고, 건축을 생산해내는 기능공과 기술자들 역시 제도화된 교육시스템 내에서 대량으로 길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구의 변화된 시스템이 개항이후 이 땅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개항과 함께 이 땅에 이식된 서구식 건축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전통장인을 위한 교육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전통건축 생산을 담당하는 장인의 양성이 제도권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사회를 책임질 건축은 더 이상 전통건축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정책입안자/집행자들에게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비록 제도권 건축교육에서 전통건축기술자의 양성시스템이 배제되기는 했지만, 사회적 관성으로 인해 전통건축에 대한 수요는 여전했고, 이전의 장인들의 삶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과거의 생산시스템의 관성으로 전통건축의 생

산이 가능했지만 장기적으로 후속세대의 단절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전통건축기술자의 급격한 소멸과 기술의 단절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통건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항이후 새롭게 등장한 기능들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이 필요했지만,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새로운 건축의 생산은 자연스럽게 전통건축에게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변화의 동인이 되었다. 대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빠르고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서 구법의 변화와 생산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미세하지만 건축의 모습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주택에서는 주문 생산시스템에서 생산 후 판매시스템으로 변화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통건축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였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뒤 쫓을 뿐이었다. 그 결과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진적인 전통건축 생산시스템의 붕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개항이후 새로운 서구적 사회시스템을 위한 건축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고, 정부주도의 새로운 사회시스템은 대부분 서양의 건축을 통해 수용되었지만, 서양건축이 민간에서 필요로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까지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연스럽게 전통건축에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시주택의 등장이었지만, 주택 뿐 아니라 학교와 교회 그리고 상업시설 등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건축의 용도 전환에서부터 양식적 변화, 더 나아가 구조적인 변화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전통건축의 근대적 변용

개항이후 이 땅에 들어온 서구문물의 경우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많았지만, 이들 서양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서양건축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와 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통건축 기술자와 전통건축의 활용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전통건축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거나, 어깨너머로 배운 전통건축기술자들이 서양건축을 눈썰미 좋게 전통건축에 덧붙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통건축의 용도변경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전통건축의 용도변경이다. 그중에서도 보통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용도가 사라진 전통사회의 건축물이 학교건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학교건축은 제도적 근대화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전국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교육시설에서 뚜렷하게 시차가 존재했다. 중앙의 교육시설이 서양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반면 지역의 학교건축은 전통적인 지역 건축생산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따라서 교육시설에서 여느 근대적 시설보다 광범위하게 전통건축의 전용이 이루어졌다.

교육기능을 전통건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로 전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공간을 가진 한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준 것이 향교와 객사를 비롯한 지역의 공공건축이었다. 이중에서 갑오개혁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도가 폐기된 객사가 보통교육 시설로 많이 전용되었다. 갑오개혁으로 실시된 '소학교령(1895)'에 따라 서울에는 관립소학교, 지방에는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서울의 소학교가 구제도하의 교육기관인 사학(四學) 또는 관청 등이 이용되었던데 반해, 지방에서는 각 지방의 향교와 객사 및 재(齋) 등이 활용되었다. 1902년 9월에 설립된 사립 안성소학교가 1906년에 공립안성보통학교로 개편된 후, 1908년에 안성객사를 수리하여 교사로 사용한 것이 그 한 예다.

전통건축 중 각도의 감영은 도청으로 사용되었고, 다양한 관청의 시설이 '군수비대' 등으로 전용되었다.

그림 1.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배치도

그림 2. 여수공립보통학교로 전용된 진남관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경우 1895년부터 통역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여러 관립외국어 학교를 1906년에 하나로 통합하였는데, 이때 전통건축을 활용하였다.(그림 1)의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배치도는 전통주택의 변용을 통해 서양식 교육기관이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의 1911년 군사시설로 대공간을 가지고 있던 진남관에 여수공립보통학교(현 여수서초등학교)와 여수공립심상소학교(현 여수동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대한제국 멸망으로 용도가 사라진 군사시설을 총독부가 학교시설로 전용한 것이다. 사진에서 진남관의 구조체를 그대로 둔 채 새롭게 칸막이를 하여 교사로 상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건축구법과 재료의 활용

근대기에 발생한 전통건축의 변용 중에서 가장 광범한 것은 서양식 건축구법과 재료의 수용이다. 전통건축의 지붕구조는 처마끝이 길게 내미는 캔틸레버구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붕의 하중으로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구법인 탓에 전통건축에서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이러한 전통건축의 구조적 속성으로 인해 전통건축의 지붕은 (그림 3) 전화국 건물 전체 규모에 비해 과도한 크기와 하중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지붕구조의 속성으로 인해 전통건축의 내부공간은 깊이를 갖기 어려운 홑집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개항이후 서양의 양식건축과 함께 도입된 목조트러스구법은 지붕의 경량화를 가능케 했고, 함께 보급된 붉은 벽돌은 밀도가 높은 도심지 건축에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유리가 공급되어 공공건축에서 유리가 전통건축의 창호지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미닫이창호를 대신하여 여닫이 창호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림 3. 전화국

(그림 3)의 전화국은 디자인은 전통건축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건축재료와 세부 의장적인 측면에서는 서양건축을 상당히 많이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구조와 지붕의 모습은 전통건축을 따르고 있지만, 벽체는 벽돌로 시공되었고, 출입구에는 벽돌로 만든 아치가 있고, 창호는 여닫이에 유리가 사용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건물의 높이다. 건물의 전면에 서양인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서양인의 키를 감안할 때 전화국의 처마 밑 높이는 일반적인 전통건축의 높이를 훨씬 초과한다. 이는 이 전화국이 단순히 기존의 전통건축을 고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화국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양 문물 도입 초창기에는 한옥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양의 제도와 기능을 수용하는 시설로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전통건축의 틀은 유지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서양의 건축구법과 재료 및 의장적 요소들이 적극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전통건축공간의 변화

한국의 전통건축은 장방형의 가로로 긴 평면구조를 근간으로 하며, 도리방향으로 확장이 용이한 지붕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내부공간의 길이방향 확장에는 유리했지만 길이에 대한 직각방향으로의 확장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강화도 성공회성당에서 보여지듯 길이 방향의 장방형 평면을 근간으로 하는 교회건축을 수용하기에는 적합한 측면도 있었다. 동시에 공간구조의 중층화를 통해 공간의 수직방향 확장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건축은 완벽하게 중앙의 신도석과 양측에 복도를 갖는 바실리카식교회의 공간을 구현할 수 있었다.

그림 4. 강화성당 전경

그림 5. 강화성당 내부

(그림 4)는 전통적인 우리건축의 진입방식과는 다르다. 우리의 건축은 장변의 지붕면이 정면을 형성하는데, 성공회 성당은 측면의 합각부분을 주출입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 기독교건축에서 로마의 포럼에 장변이 면했던 바실리카를 단면으로 출입구르로 삼으면서 바실리카식 교회가 탄생한 것과 비견된다. 강화성당은 주출입구를 합각부로 바꾸고, 4칸으로 구성된 단변중 2칸을 회중석으로 삼고 양편의 각 1칸을 복도로 삼아 바실리카식 성당의 공간구조를 구현했다. 여기에 회중석과 복도의 높이차이를 이용하여 고측창을 설치한 방법도 초기기독교의 바실리카식교회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고측창을 만드는 방법은 전통건축의 중층지붕을 구성하는 방법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건축구법에서 공간의 이용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기능을 교리에 적합하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통건축공간구조의 변화 중에서 주목할 것은 현관의 등장이다. 현관은 전통건축이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면서 덧붙여진 공간인데, 전통건축은 서양건축과 달리 채의 각 실에서 독립적으로 외부공간과 진출입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면서 전통건축에 현관이 부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적 윤곽은 전통건축의 모습을 갖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과 밖의 관계는 현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현관이 건축물의 내외부 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관의 사용은 전통건축이 갖고 있는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의 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청의 내부화와 각 실들을 복도로

그림 6. 가회동 한씨 가옥, 1920년대

연결시키고 이를 다시 창호로 막아 대청과 툇마루의 내부공간화와 함께 각 실들 사이의 기능적 연계성이 확보되었다.

(그림 6) 가회동 한씨 가옥의 경우 행랑채를 겸한 대문간이 별도로 존재하며,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의 건물 군으로 형성되었는데, 행랑마당에서 기단을 오르면 안채에 설치된 돌출된 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옥의 근대기능 수용과 변용: 교육시설

제도적 근대화에 따른 근대시설의 사회적 수요는 새로운 건축의 필요성을 가져왔지만, 신건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상황에서 사회적 수요를 담당한 것은 전통건축이었다. 한편,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구열강과 일본이 각축전을 벌이고 러일전쟁이 발발하는 등 당시 조선의 특수한 상황도 조선시대 전래의 공공건축이 대대적으로 일본군사시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용도가 폐지되었던 사량진객사의 경우 일본해군이 수리하여 사용했다는 기록(독립신문 1897.6.29)이 있고,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강서군지(1936)'에 따르면 갑오경장으로 객사가 폐지되자 건물이 훼철되고 그 자리에 보통학교와 전매국판매소가 입지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1)]

한옥 학교건축의 탄생

학교건축은 제도적 근대화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시설의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이다. 특히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신건축이 대부분 중앙중심으로 그 수요가 발생하여 비교적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만, 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건축은 여느 근대적 시설보다 빠르게 기존 시설의 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분으로 19세기말 20세기 초 한옥이 어떻게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기 시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기존의 한옥이 학교시설로 전용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로 전용될 수 있는 한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준 것이 '객사'건축이었다. 객사의 용도전환은 갑오개혁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객사의 용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새로운 수요층으로 등장한 보통교육의 보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초등교육시설

2005년 여상진의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 변화' 연구에는 대표적인 공공건축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객사가 근대기에 어떻게 전용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건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잘 밝혀져 있다. 객사의 용도전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학교시설로의 전용이었다. 갑오개혁에서 부국강병과 독립수호를 위해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소학교령(1895)'에 따라 초등교육기관 설립이 이어졌다. 소학교는 서울에는 관립소학교, 지방에는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서울의 소학교가 민가나 구제도하의 교육기관인 사학(四學) 또는 관청 등이 이용되었던데 반해, 지방에서는 각 지방의 齋, 鄕校, 客舍 등이 활용되었다.

제도적으로 한옥이 근대적 기능을 수용한 첫 시작인 셈이다. 예를 들어 1902년 9월에 설립된 사립안성소학교의 경우 1906년에 공립안성보통학교로 개편되었는데, 1908년에 안성객사를 수리하여 교사로 사용하였다.

갑오개혁이후 소학교로의 전용

총독부 문서 '各道所在客舍取調 ノ 件'에 따르면, 강원도의 30개 군, 전라북도 20개 군, 함경북도 10개 군, 충청남도 21개 군에서 조사된 객사가 정리되어 있는데, 여상진이 조사 정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보통학교 교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는 1906년 8월 통감부에서 '보통학교령'이 발령된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상진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일합방 전에 전용이 이루어진 객사는 다대포 객사를 비롯한 31개소이고, 한일합방이후에 전용이 이루어진 객사는 39개에 이른다.

객사의 교육시설로의 전용을 장려함은 고종실록에도 나타난다. 고종실록 44년 3월 29일(양력), 관보 광무11년(1907)4월 1일자에 따르면

'오늘날 급선무는 교육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늘 학교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사에 관심을 두었었다. 관립과 공립의 학제는 대체적으로 구비되었으나 학생들을 교육하는 조건에서는 늘 궁색한 것이 걱정인데 무엇보다 넓고 큰 건물들을 갑자기 도처에 짓기가 곤란하다. 여러 군들에 있는 객사 건물에는 궐패를 둔 것 외에 아직 큰 칸들이 많으며 사신들이나 손님이 들어본 일이 없는데 전부 내버려두어 무너지고 있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 모두 잘 수리하여 교사로 만들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데 대하여 공문을 만들어 각 해당 도의 관찰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로 언급되어 확대하는 보통교육의 시설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객사의 전용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왕조 개창이래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배례의 장소가 되었던 객사제도는 1907년 11월 폐지되었다.

'객사'건축의 변용 – 학교건축

객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학교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구조적 공간적 변용이 불가피하다. 객사의 사용은 우선 어느 건물을 교사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1)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908년 4월 비안현 객사 병산관에 설립된 병산학교(현 비안초등학교)에서는 객사의 정전을 제외한 '동대청과 서대청'내에 4개의 교실을 마련하였다고 하며, 전라도 금산객사도 1907년 3월 사립금신학교로 전용되었는데 이 때 서대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안성객사의 경우 1908년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 객사를 수리할 때 일본인 훈도 통정이 궐패를 봉안한 객사 정전까지 범하려 하자 안성군수는 '동편과 서편의 두 대청만 교사로 수리하고 궐패 정전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처해 달라고 학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아, 객사의 학교 교사 전용은 정전을 제외한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개천공립보통학교

그림 8. 통영보통학교(세병관)

세부적으로 교사로 전용된 건물에서 일어난 변용을 살펴보면, 주출입구의 설치와 창호의 변화 그리고 벽체재료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중등교육시설

중등교육시설 역시 초기에 한옥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중등교육시설의 경우 초등교육시설과는 한옥 사용에서 다른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초등교육시설이 보통교육의 실시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 하에 관시설이 적극 이용되었지만, 중고등교육시설의 경우 관공립학교이외에도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관공립학교의 경우 지방보다는 서울에 집중되었던 것도 중등교육시설이 초등교육시설의 한옥전용과 다른 경향을 갖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판단된다.

시설은 대부분 신축되어 한옥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고, 사학의 경우 한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산학교의 경우 한옥교사로 지어지기도 하였다.

관립학교: 한성외국어학교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배치도를 살펴보면, 매입한 기존 한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건물간의 연결과 교사로 전용된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공간의 변용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한옥을 교육시설로 전용하였지만, 전래의 건축에서 근대적인 기능을 수용하면서 일정한 부분에서 전통건축의 변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옥의 근대적 변용: 배치도에 따르면 중심에 관리부서가 배치되고, 해당 어학군별로 교실이 기능별로 조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교육기능을 담당했던 향교나 서원 등에서도 기능별 조닝은 있었지만, 한성외국어학교의 조닝이 이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단일 목적이 아닌 다종의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교육과 지원기능에 따른 기능 배분이외에도 교육종류별 조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닝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의 모델이 구축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특이할만한 점은 일어부교사와 화장실이 기능적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1 참조)

사립학교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된 이후 양정, 보성, 휘문, 중동, 오산, 대성 등의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이들 민간사학에게는 뚜렷하게 정립된 학제나 교과과정이 없었다. 게다가, 근대적인 학제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의 모델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학교들의 시작은 대부분 한옥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한옥교사는 정동에 설립된 이화학당이 최초이지만, 본격적인 중등학교의 한옥교사는 사립학교령이 공포된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화학당 : 이화학당은 1886년 미국 북감리교회 여선교사 메리 스크랜턴(M. Scranton)에 의해 정동에 설립되었다. 1883년에 미국의 공사관이 정동에 자리 잡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가 여성을 위한 학교를 건설하였는데, 이 때지은 교사가 최초의 한옥학교건축이다.

그림 9. 최초의 한옥교사, 정동

그림 10. 한옥교사 자리에 신축된 메인홀

1885년 7월 고종으로부터 학교와 병원 사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스크랜턴 여사는 1886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886년 11월에 한옥교사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 때 완성된 한옥교사는 동향으로 지어졌으며, 높은 축대 위에 7개의 방을 가진 큰 기와집으로, 규모는 전면 88피트(약 27×24m) 규모에 건평 200평에 달했다고

2) 강선혜 외, 정동 이화학당 한옥교사의 복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권 10호, 2005년 10월

한다. 중앙에 중정을 지닌 'ㅁ'자형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2)]

근정전의 규모가 630㎡라는 점은 감안하면, 약 660㎡에 달하는 한옥교사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한옥교사는 증가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1897년에 철거하고 붉은 벽돌로 지은 2층의 메인홀이 같은 자리에 건축되었다.

이화학당이 한옥으로 건축된 것은 같은 시기에 지어진 배제학당 교사(1886년 8월~1886년 12월)가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과 비교된다. 백낙준의 기록(改新敎宣敎史)에 따르면 '1887년에는 67명이 재적하였고, 이해에 한국인을 위하여 헌금된 돈으로 지은 르네상스식 당사(堂舍)를 감독 와렌(H.W. Warren)의 주례로 헌당식을 가졌다.'고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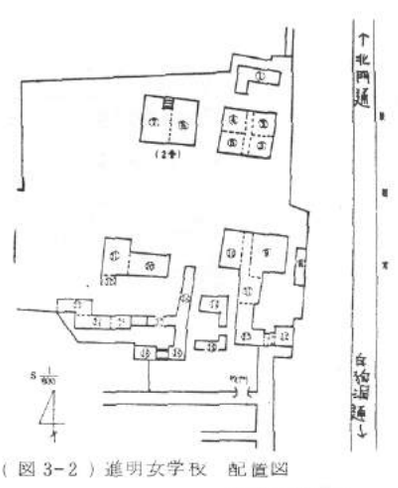
그림 11. 2006년 이화여대에 복원된 한옥교사

그림 12. 배재학당 신축공사 모습

같은 시기에 같은 선교사 그룹에 의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학교였던 배재학당의 교사가 서양건축양식으로 지어지고, 여학교인 이화학당의 교사가 전통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적어도 기술적인 문제로 이화학당이 한옥교사를 선택한 것이 아님은 알 수 있다.

진명여학교 : 엄비로부터 하사받은 청선궁터에 추가로 한성부 북서 순화방 창성동의 길씨 소유민가를 추가 매입하여 1906년 4월에 개교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초기 진명여학교는 전통한옥을 교사로 사용하였지만, 곧이어 조적조 교사가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1908년 10월 연 90평의 벽돌조 2층 교사가 준공되었다. 1912년의 진명여학교의 배치도에 따르면, 기존 한옥건물에 조적교사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図 3-2) 進明女学校 配置図
(1912年度)
그림 13. 진명여학교 배치도

진명여학교의 배치를 살펴보면, 앞서 설립된 관립 한성외국어학교의 배치와 매우 유사하지만,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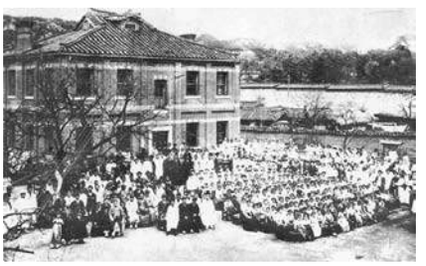


그림 14. 구교사(1908)

한옥에서의 근대교육 실시는 자연스럽게 전통건축의 변용을 가져왔다. 진명여학교의 배치도에 따르면, 전체 외관에는 변화가 없지만, 벽체와 창호 부분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용은 주로 디테일에서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개교1주년 기념사진에서 보이는 교사의 입면에서 유리가 전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창호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접이식 창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명여학교의 기본 배치는 기존 한옥의 배치를 따르고 있으나, 1908년에 신축된 벽돌조 2층 교사를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양옥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명여고 75년사에서 보이는 1909년의 교사가 1908년에 신축된 조적조 교사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지붕의 처리인데, 지붕이 곡선은 사라졌지만, 전형적인 한옥 팔작지붕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기숙사

그림 16. 개교1주년기념

그림 17. 양잠수업

숭실학당 : 1901년 9월에 완공된 숭실학당 교사는 2층 한옥으로 지어졌다. 교사가 한옥으로 지어진 것은 'Nevius Method'의 '교회 건물은 그 지방 교인들이 스스로 짓도록 하되 그 지방에 알맞도록 하라'라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숭실학당 교사는 벽체는 조적구조이지만, 지붕은 한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한양절충형 교사의 첫 사례로 판단된다. 이 교사의 1층에는 교무실과 교실 5개(16×16ft)가 위치하고, 2층에는 강당(16×40ft)이 있었다.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유형을 갖지 못했던 조선에서, 전통건축의 변용을 통해 일단 근대교육을 수용하는 모습을 여러 학교에서 보였는데, 이중에서 숭실학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근대교육을 전통건축을 통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의 최초의 학당과 1911년의 교사는 전통건축의 다층화를 통해 근대적 기능이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8. 최초학당(도서관)

그림 19. 숭실학당(1911)

그림 20. 사랑방학당

그림 21. 숭실학당 과학관(1935)

오산학교(정주군 갈산면, 1926) : 오산학교는 학교출범과 함께 오래 동안 한옥교사를 사용한 사학이었다. 특히, 아래 오산학교 한옥교사 전경에서 보듯이, 일시적인 한옥의 학교건축 전환이 아닌, 본격적인 한옥교사의 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전경은 물론이고, 개별교사에 있어서도, 한옥이 근대적인 학교시설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현관이 덧붙여지고, 2-3칸이 하나의 유닛으로 하는 교실군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교사가 한옥의 전용이 아닌 신축 당시부터 학교용도를 전제로 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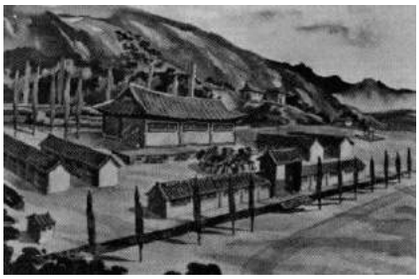


그림 22. 오산학교 한옥교사 전경

그림 23. 오산학교 한옥교사

세부적으로 이전 한옥학교등과는 달리 창호에 양식건축에 사용되었던 오르내리창이 설치된 것 등도 양식건축의 세부가 한옥교사에서 소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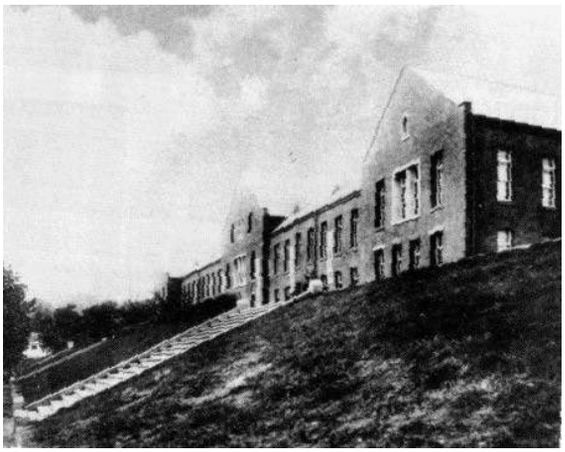


그림 24. 오산학교 본관

오산학교는 초기에 한옥교사로 출범하였으나, 본관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오산학교출신으로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 후 총독부에 근무하던 건축사 박동진의 설계로 조적조 교사가 지어졌다. (그림 18)을 살펴보면 비록 건축재료는 벽돌이었지만, 건축외관에 있어서 중앙부와 양날개부분의 처리나 창호의 처리는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형식과 유사하다.

이는 이미 중앙부를 강조하고 교사의 양쪽 끝을 박공면으로 처리하는 형식이 교사건축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종묘정전의 기둥과 벽체

House created by a poem

건축과 함께하는 시로 지은 집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기둥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촉촉이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문, 조사당, 응향각들이 마치 그리움에 지친 듯 해쓱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 했다.

기둥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

흔히 두리기둥이라 불리는 목재의 원(圓)기둥은 **"두리기둥 서고 청기와 올니 소슨 / 저기가 호남문장(湖南 文章) 드나들든"**[1]이란 시와 같이, 궁궐과 관아, 사찰에서도 중심이 되고 권위를 갖춰야 하는 건물에 주로 쓰였다. 이러한 원기둥은 3개의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기둥의 지름이 어떤 부분이나 똑 같은 원통형 기둥은 송광사 국사전, 내소사 대웅보전, 개심사 대웅전, 정읍 피향정 등에서

화엄사 각황전의 굽은 두리기둥(좌)과 경복궁 근정전의 수직 두리기둥.

보이는데, 민흘림이나 배흘림기둥보다 적게 사용되었다. 위를 좁게 한 민흘림기둥은 화엄사 각황전과 개암사 대웅전, 서울 남대문과 수원 장안문 등에 사용되었으며 안정감이 있다.

배흘림기둥은 서양건축의 엔타시스와 같은 것으로 기둥길이 1/3에서 1자 높은 곳을 최대지름으로 하여 기둥머리가 가장 작고 밑동은 기둥머리보다 크지만 기둥몸보다는 작은 형태로 착시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 졌다. 윗 글의 대상인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과 강릉 객사문 등이 남아있다.

각기둥은 네모기둥이 대부분으로 원형기둥과 같이 민흘림양식을 사용한 곳이 있으며, 관청과 사찰은 물론 민가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 각 기둥 중에는 경복궁 내 향원정처럼 육모평면에서 쓰이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리고 팔모기둥은 추녀를 받치는 활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 김동환「광한루에 올라」

※주기 :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 //는 연바꾸기, ///는 전략, 중략, 후략 시 사용.

원기둥과 각기둥의 용처를 구분한 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천원지방(天圓地方)에서 연원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경회루가 원기둥과 각기둥을 혼용하고, 영양의 석천서당은 정면4칸의 작은 집임에도 복판 2칸 대청의 중앙 기둥과 양쪽 가의 기둥만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중앙의 기둥은 2간의 대청이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두리기둥을 박았을 것이고, 양가의 기둥은 건물의 각진 것을 싫어하는 한국적 정서가 물신 풍겨난다. 그리고 나머지 두면은 모두 면을 맞추어 공간을 가둬야 하기 때문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정말 조그만 건물인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우렸다."[2]는 글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궁궐의 정전, 향교의 대성전, 사찰의 대웅전과 같은 주전은 두리기둥이었고 이러한 재목을 벨 적에는 나무에게 고사를 지내는 등 의전을 갖추었다. 하지만 위엄을 갖춰 두리기둥으로 지은 궁궐도 빼앗긴 나라에선 한갓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트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1940년 일제(日帝) 밑에서 신음하던 민족에게 조지훈은 봉황수(鳳凰愁)를 읊었다.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풍경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룡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너의 그림자. 패옥 소리도 없었다. 품석 옆에서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 둘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일반인들은 기둥하면 대부분 4각 기둥을 떠 올리게 되고, 기둥에 붙이는 '춘련(春聯)'을 떠올릴 것이다. 주련(柱聯)은 벽이나 기둥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로, 시구(詩句)를 연하여 걸었다는 뜻인데, 이러한 주련은 사찰이나 고관대작들의 집이 아니면 없는 것임에 반하여 춘련(春聯)은 **"立春大吉(입춘대길) 建陽多慶(건양다경) 萬事亨通(만사형통)/집집마다 문 위에 기둥에 새로 쓴"**[3]것을 붙여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련이나 춘련 때문인지 기둥에는 붙이는 것 말고도 사랑의 정표를 매기도 하였다.**"국수당 기둥에/분홍 댕기 // 어느 기집애 매고 갔노 / 남의 눈 꺼리면서 // 남의 눈 꺼릴 적엔 / 혼자 속 태우든 게지 // 산새야 너는 알지 / 행여 내 좋아하든 그 애 아니든."**[4]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감상하다 보면 색깔이 떠오른다. 국수당 기둥은 주칠(朱漆)한 붉은 기둥이어야 연애의 뜨거움에 맞을 것이며, **"정거장 대리석 기둥에 기대어 / 오지 않는 것만 기다리고 섰다. / 낯없는 사람들끼리 모여들다 / 낯없는 방향으로 헤져 간 뒤엔 / 대리석 기둥과 내가 도로 남는다. / 그래도 나는 가슴을 안고 쮜리히행 급행열차를 기다리고"**[5]의 대리석 기둥은 매끄럽게 다듬은 흰색이 어울린다.

1. 주련이 걸린 기둥 2. 에렉테이온(Erechtheion)신전의 여인상 기둥 카리아티데스(Caryatides). 그리스 아테네

성경 속 이야기를 영화화한 삼손이 데릴라에서 삼손은 신전의 돌기둥을 무너뜨려 자신을 눈 멀게한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이는 장면은 영화의 클리이 맥스이다. 아시리아인들은 포로들을 발가벗겨 기둥에 달아 놓기도 하였다.

집을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은 동 서양이 다를 바 없으나 석재를 사용한 서양과 목재인 동양은 필연적으로 다른 양식을 갖게 되었다. 서양의 돌기둥은 주초(柱礎, base), 주신(柱身, shaft), 주두(柱頭, capital)로 구성되지만, 동양의 나무기둥은 주춧돌이 별도일 수밖에 상태에서 서양의 주신부분만을 기둥으로 일컫는다. 그렇지만 무량수전처럼 엔터시스를 가진 기둥은 기초에 면한 부분을 기둥뿌리(柱脚)이라 하고, 평방과 접합되는 꼭대기를 기둥머리 그리고 나머지 몸통부분을 기둥몸(柱身)이라 한다.[6] 또한 주두가 없는 대신 익공, 주심포, 다포 등에 단청까지 하여 서양의 주두보다 화려한 멋을 내기도 한다.

서양건축의 기둥양식은 주두가 간결한 도리스식(Doric), 화려한 코린트식(Corintian) 그리고 중간형태의 이오니아식(Ionic)의 3양식이 그리스로부터 발전하여 로마시대에는 토스카나식(Tuscan)과 콤포지트식(Composite)이 추가되었는데, 이 5양식은 르네상스 이후에도 사용되었다.[7] 이러한 양식 외에 그리스 아테네의 에렉테이온(Erechtheion)신전에는 카리아티데스(Caryatides)라고 하는 여인상이나, 아틀란트라는 남성상으로 기둥을 삼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등사의 추녀를 받들고 있는 나부상이 있으나 기둥은 아니다.

한국의 기둥은 이러한 정형을 탈피하여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를 기둥으로 세운 경우가 꽤있다. 더 나아가 수직으로 가공하면 아예 기둥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굽고 뒤틀린 나무들로 기둥을 삼아 건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창의성 내지 친환경, 자연주의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서양은 물론 건축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동양에서도 특히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8]

2) 김홍식「한국건축의장 서설」
3) 김달진
4) 김동환「댕기」
5) 조병화「역(驛)」부분
6) 고건축용어집 451쪽
7) 5양식도
8) 서양은 바로크시대에 정형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꽈배기기둥이나 옹이가 있는 나무형태의 기둥을 만들었다.

3. 개심사의 종루 4. 영주 가학루 5. 청룡사 대웅전 6. 개심사 심검당

이 중 유명한 것으로는 안성 청룡사의 대웅전, 서산 개심사의 심검당, 구례 화엄사 구층암 요사채와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그리고 개심사의 범종각과 영주 가학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주목해야 할 것은 개심사 범종각이다. 휨의 형태가 서로 다른 네 개의 기둥으로 큰 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이는 할 수없는 건축이다. 이러한 예는 기둥 외에 대들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전북 선운사 만세루는 대들보 위 종보는 디딜방아 모양의 Y자 나무를 사용하였다.

동물의 집에도 기둥이 있을까? 정지용은 **"외ㅅ가마귀 울며 나른 알로 / 허울한 돌기둥 넷이 스고 / 이끼 흔적 푸르른데 / 황혼에 불게 물들다."**[9]며, 사람과 같이 기둥을 세우고 집짓기를 하는 까마귀를 관찰하고, 함민복은 "거미란 시를 한 편 써 봐야지. 우선 거미를 잘 관찰하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에서 끙끙 앓는 내게 집은 거미집 기둥 하나가 되어주며 나를 깨우쳤다.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거미를 관찰한다고 발버둥친 생각 전체가 담긴 집이 거미집 기둥 하나로 쓰이다니. 기겁하여 쓴 시가 거미이다. 아니 집이 내 손을 잡고 써준 시가 거미다."

불빛 나가는 창가에 줄을 쳐 놓았다 / 새소리와 꽃향기를 가로막고 / 내 집을 기둥 하나로 삼아 / 농부가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있다

–함민복 '거미'

"그늘이 뚝뚝 떨어져 내리는 날 / 땅 속에 제 발목을 묶고 / 생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지 / 누구도 알지 못했기에 / 몸 안쪽에 세워 놓았을 테지 / 수직의 성(城)이 되어 / 제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테지 / 눈과 팔다리는 보이지 않아 / 균형을 잃지 않는 한 몰랐을 테지 / 버팀목이란 이름으로 세워져 / 측량한 만큼의 공간에 갇혀 / 다른 노래를 담아 둘 수 없는 / 가슴을 열고 들여다보면 / 달리 과녁을 빗나간 적 없이 / 낡아가는 뿌리의 소리가 들릴테지"[10]

감춰지든 드러나든 튼튼함과 아름다움만 생각하면서 무수히 만들어 낸 건축사의 기둥, 그 기둥들에게 시인은 땅에 뿌리박고 거대한 지붕을 떠받들며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생명체로서 애처로운 삶을 그리고 있다.[11]

벽(壁)

2행시로 유명한 강우식은 **"살아가는 슬픔, 벽, 뚫고 넘어도 벽 또 벽, / 가슴에 소금 못을 박고 유수(流水)인생액자도 건다."**[12]면서, 세상사는 어려움을 벽에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벽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막힘과 어려움 고독 등과 함께한다. 하지만 건축의 벽은 필요불가결의 존재이다. 집안에 벽이 없다면 부부방도 자녀방도 없으며 화장실도 변기의 위치만 있을 뿐이다. 아파트의 경우 벽이 없다면 옆 집과 한 공간에서 사는 것이 된다. 이는 정전이나 단수 등 일시적 불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 벽이 없다면 추위와 더위는 물론 비바람도 막을 수 없으니 집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의 전통주택은 대부분 목조로 되어 있으나, 옛날 서민층들은 목재구하기가 어려워 토담집을 지어 살았다. 토담집은 진흙을 짚을 썬 여물과 함께 뒤섞어 대문짝 등을 거푸집 삼아 다져 쌓은 벽에 지붕을 한 것이다. 벽이 두꺼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장점이 있으나 구조적으로 약하여 방 하나에 한 칸(2.4M) 이상 넓히기가 어려웠고 문을 크게 낼 수도 없었다. 어쩌면 나의 아버지요,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토담집 주인의 한 생이 스스로 지은 토담과 함께 하고 있다.

산자락 토담집 한 채, 벽이 기울었다. 흑 한줌 덥석, 발등에 떨어진다. 뭉텅 살점이 나간 흙벽, 벽의 갈빗대가 들어났다. 벽 속에 갈대가 묻혀있다. 군데군데 바람을 메운 자국들, 덧씌운 투박한 손자국에 수심이 가득하다. 누군가 흙손으로 벽의 주름을 펴고 흙 한 덩이 떼어 척, 구멍을 메울 때 불도장처럼 마음이 찍혔으리, 저 벽 속에 살던 두꺼비 손을 가진 사내, 갈대 한 짐 마당에 부려놓고 벽의 뼈대를 촘촘히 엮었으리, 황토를 져 나르고 실팍한 장딴지로 흙을 치대면 욕심 없는 맨발에 흙은 반죽처럼 순해져서 벽이 되었을 것, 벽 속에 벽이 들어간 사내는 집의 중심이 되었을 것. /// 중심을 잃은 벽, 입술을 달싹이는데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마경덕 '흙, 벽'

토담집은 쉬이 허물어지기에, 지금 볼 수 있는 한옥은 모두 목조

9) 정지용 「봄」 부분
10) 「기둥의 구조」 박혜숙. 인천 강화. 「바람의 벼」 외
11) 일주문, 교
12) 「벽」 강우식. 1942. 강원 주문진. 「살아가는 슬픔 벽」 「종이학」

라고 봐야 한다. 목조한옥의 벽체에 대한 찬사를 보자. "한옥의 입면에 그려지는 추상은 온기가 배제된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이 아니다. 집안에 일어나는 훈훈한 가족살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휴머니즘적 추상이며 살림살이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리얼리즘적 추상이다, 한옥의 입면은 회벽과 목재 이외에 는 어떤 다른 것도 절제한다. 문도 꼭 필요한 만큼만 나 있다. 한옥의 추상입면은 비대칭이라는 또 하나의 건축적 매력을 갖는다."[13] 그렇지만 회벽이나 회사벽은 대가에서나 통용되던 고급재료이고 통상적으로는 진흙에 볏집 자른 여물과 모래를 섞어 짓이긴 흙벽을 가구 사이 작은 나뭇가지나 대나무로 엮어 놓은 뼈대에 발랐다.

사람들은 동굴생활 속에서도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고[14]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덤의 벽과 지상의 벽에도 벽화를 그렸다. 서라벌 황룡사 법당 안에 솔거가 그린 소나무에 새들이 앉으려다 벽에 부딪혀 죽었다는 전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도 벽에 그림을 걸고, 벽에 기대어 가구나 침대를 놓는 등 사람들은 벽과 참으로 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벽에다 못을 칠 때 얘긴데요, 만일에 벽이 못더러 '넌 죽어도 안 된다'하면 못이 그 자리에 들어가 박힐 수 있을까요? 또 벽에서 못을 뽑을 때 얘긴데요, 만일에 벽이 못더러'넌 죽어도 못놔주겠다' 그러면 못이 나올까요? —윤제림[15] '어린날의 사랑'

벽과 못의 유쾌한 대화와 달리, 아래 시를 벽이 읽는다면 억울하다할 것이다. 작은 못이 버티는 것은 벽의 힘이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이다.

"연장통에 누워 있는/녹슬고 쓸모없던/작은 못 하나/바로 세워 벽에 박았더니/내 키만한 거울을/든든하게 잡고 있네"[16]

메밀꽃 핀 그림 액자 하나 걸으려고 / 안방 콘크리트 벽에 박는 못 / 구멍만 만들고 풍경은 고정시키지 못한다 // 순간, 그 구멍에서 본다 / 제 몸의 상처 포기하지 않으려고 / 안간힘을 쓰고 있는 벽 /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떨어져 나온 / 조각들 // 벽, 날카로운 못 끝을 생살로 감싸 안아야 / 못, 비로소 올곧게 서는 것을 // 망치질 박힘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나 // 부스러지려는 자신을 악물고 / 기꺼이 벽으로 버티며 견디고 있는, 저 / 수많은 사람들 향해 몇 번이나 / 못질했던가 // 꾸부러지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고 / 작은 풍경화 한 점 고정시키며 / 더불어 벽으로 살기까지[17]

이십년 넘게 벽 같은 남자와 살았다. 어둡고 딱딱한 벽을 / 위태롭게 쾅쾅 쳐왔다. 벽을 치면 소리 대신 피가 났다. 피가 날 적마다 벽은 멈추지 않고 더 벽이 되었다. 커튼을 쳐도 벽은 커튼 속에서 자랐다. 깊은 밤, 책과 / 놀다 쓰러진 잠에서 언듯 깨보면 나는 벽과 뒤엉켜 있었다. / 눈도 코도 입도 숨도 벽 속에 막혔다. / 요즘 밤마다 내가 박혀 있던 자리에서 우수수 돌가루 /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벽의 영혼이 마르는 슬픈 소리가/들린다. 더 이상 벽을 때릴 수 없는 예감이 든다. / 나는 벽의 폐허였다. 그 벽에 머리를 처박고 / 식은땀 흘리는 나는 녹슨 대못이었다.

—최문자 '벽과의 동침'

'벽이라 생각하며 함께 살아온 남편,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는 벽 속에 박힌 녹슨 대못'이란 고백은 아내들의 공통분모일 것이다. 못이 안벽의 대상이라면 외벽은 단연 담쟁이가 차지한다. 벽을 온통 푸르름으로 뒤덮는 담쟁이는 희망이며 절망을 덮고 성공에 이르는 투사이다. 삶도 이와 같은 것이지만, 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간 담쟁이가 되어버렸다.

담쟁이는 벽을 평지로 알고 산다 / 담쟁이는 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 평지 끝 절망의 벼랑과 만난다 / 벽을 놓지 못한 채 / 제 한 몸 던져 / 끝끝내 매달려 있는 / 담쟁이의 벽 / 하늘에 목숨을 맡긴 채 / 평지 끝 절망의 벼랑에서 / 고공 투쟁하는 / 벼랑 끝 절망이 /담쟁이의 희망이다[18]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그때 /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 결국 그 벽을 넘는다[19]

앞으로 갈수 없는 길은 // 기어오르는 것인가 // 벽이면 담이면 달러 붙어 / 드디어 넘어서는 것인가 // 교육원 붉은 벽돌담에 달라붙어 뻗쳐 올라간 너를 보면/우리들의 사랑은 노래가 아니라 / 달라붙는 것임을 / 달라붙어 소리 없이 넘어서는 것임을 알았다 // 그리하여 벽은 더 큰사랑이 되고 / 더 큰 절망이 되고 / 절망은 뿌리박고 살며 / 뿌리박고 넘어서는 일임을 알았다 ///[20]

김과장이 담벼락에 붙어있다 / 이부장도 담벼락에 붙어있다 / 서상무도 권이사도 박대리도 한주임도 / 모두 담벼락에 붙어있다 //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 밀리지 않으려고 / 납작 엎드려 사력을 다해 / 견뎌내는 저 손 / 때로 바람채찍이 손등을 때려도 / 무릎팍 가슴팍 깨져도 / 맨손으로 암벽을 타듯이 / 엉키고 밀어내고 파고들며 / 올라가는 저 생존력 // 모두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다 / 이 건물 저 건물 / 이 빌딩 저 빌딩 / 수많은 담벼락에 빽빽

13) 임석재 「우리건축 서양건축 함께 읽기」
14) 알타미라 동굴벽화
15) 윤제림. 1959. 제천. 「삼천리호 자전거」 외
16) 고광근 · 시인. 1963. '작은 못' 부분
17) 「못을 박다가」 신현복 · 시인, 1958.
18) 「담쟁이」 강상기. 1946.
19) 「담쟁이」 도종환. 1954.
20) 「담쟁이」 윤재철. 1953. 논산. 「아메리카들소」 외

7. 곡전재. 한옥의 벽은 농염(濃艶)하지 않고 고졸(古拙)하다. 8. 선운사 대웅전 측면의 기둥과 벽체 9. 화엄사

하게 붙어 / 눈물나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1]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담쟁이부터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간담쟁이임을 깨닫게 하는 시와 달리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장애 또는 관계나 교류의 단절 등의 시어로써 벽이 존재한다.

노래를 불러도 부딪쳐 돌아오고/눈길을 보내도 꺾이어 돌아오는 / 벽 안에 내가 산다. / 어지럽게 시어(詩語)들 흩어 놓고 / 장난감 가지고 혼자 노는 / 자폐증 환자로 내가 산다 / 그래도 하늘이 있어 하늘보고 희죽이 웃지만/하늘은 반응이 없다 / 그래도 산이 있어 산보고 말 걸지만/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고 산도 모른다 / 그래도 바다가 있어 바다보고 소리치지만 /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 나는 언어를 잊어버렸다 / 벽안에는 강이 있지만 / 강에 흐르는 물은 보이지 않는다 / 나는 벽안에 혼자 산다.

–김필규[22] '벽'

하늘, 산, 바다로 시를 쓰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알아주는 이도 없기에 벽에 꽉 막혀 오직 혼자서 몸부림치고, 그럴수록 벽은 더욱 단단해진다.

한낮의 햇빛이 표본처럼 납작하게 눌린 채 벽에 걸려있다. 하얗게 박제된 그 언젠가의 시간이, 나프탈렌 속에 보존되었던 마른 꽃잎처럼 바스락 거린다. 오려붙인 듯 선명한 한 때의 풍경들이 벽속에 꼼꼼히 저장된다. 그 벽.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빛도 없다. 슬픔이 고여 응고된 벽의 입안에서 쑥 쑥 자라 올라 범람하는 소리들, 빛들, 세상의 어둠들이, 한밤중이면 무거운 침묵에 들어 스스로 환해진다, 이 안과 밖의 소리,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벽은 더 단단해진다.

–신지혜 '벽의 침묵'

서정주의 '벽'이란 시는 봄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지, 암울한 일제로부터 해방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으니 위의 시들보다는 희망적이다.

덧없이 바래보든 벽에 지치어 / 불과 시계를 나란히 죽이고 //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닌 / 여긔도 저긔도 아닌 // 꺼져드는 어둠 속 반딧불처럼 까물거려 / 정지한 "나"의 / "나"의 서름은 벙어리처럼 ... // 이제 진달래꽃 벼랑 햇볕에 붉게 타오르는 봄날이 오면 / 벽 차고 나가 목매어 울리라! 벙어리처럼 / 오–벽아.

–서정주 '벽'(36동아 신춘문에 당선시)

시의 주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벽은 기능과 용도에 의해 나눠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하게 처리되지만 외벽은 건물의 성격과 외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건축사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돌과 벽돌 등 과거의 외벽과 달리 현대의 외벽은 유리와 알미늄을 비롯한 각종 금속재는 물론 목재류까지 그 재료가 다양하며,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자유곡선과 비정형의 입면들이 속출하고 있다.

/// 하루 종일 나는 그것과 만난다. / 피하면 피할수록더욱 접근하는 것 / 그것은 너무도 불길을 상징하고 있다. // 지금 거기엔 파리와 / 아무도 읽지 않고 /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격문과 정치포스터가 붙어 있을뿐 / 나와는 아무 인연이 없다. // 그것은 감성도 이성도 잃은 / 멸망의 그림자 / 그것은 문명과 진화를 장해하는 / 사탄의 사도 / 나는 그것이 보기 싫다. / 그것이 밤낮으로 /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 나는 한 점의 피도 없이 / 말라 버리고 / 여와의 부르시는 노래와 /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한다.

–박인환[23] '벽'

박인환은 6 · 25 전쟁 후 어지러운 정치 세태를 증명하듯,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정치포스터와 격문이 붙어있는 외벽을 보고 절규하며 절망한다. 이러한 전후(戰後)의 불안은 박양균의 시에도 나타난다.

아닌 밤중에 나는 잠을 잃고 내 야윈 눈을 들여다본다. 무엇에다 견주어보자는 듯이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는 십촉 등 희미한 벽에 쓰러지는 듯 붙여본다. 벽에는 서리가 싸늘하게 앉아 있었던 건지 너무나 차가움에 놀라 붙였던 손을 떼어 버린다. /// 나는 흥분한다. 손바닥은 가느다란 고동을 느낀다. 손이 숨을 쉰다. 벽이 가느

21) 「담쟁이 넝쿨」 권대웅. 1962.　22) 시집 「가슴에 흐르는 강」　23) 「목마와 숙녀」

다란 숨을 내뿜으면 내 폐부는 가느다란 숨을 내 뿜고 벽이 또 크게 숨을 들이키면 내가 또 크게 들이 킨다. 아닌 밤중 산짐승이 다 죽었는데 나는 벽과 마주앉아 뉘하고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이 싸늘한 심장을 벽에다 살라놓고 심야(深夜)의 적료(寂廖)를 깨물어 본다.

–박양균 '벽'

평자들은 박양균의 시가 '사물의 정관(靜觀)과 세밀한 묘사를 통해 현실의 다양한 상황과 자연의 대비에 의한 이미지를 형상화시킨다.'고 평한다. 전쟁으로 인한 살육, 이를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고독한 고뇌와 함께,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를 찾을 수 없는 벽 속에 갇혀 있는 신세. 그에 비하면 아래의 시는 어려운 일제시대, 객지생활에 지친 시인의 좁다란 방의 바람벽에서 고향집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 또한 가난을 이기는 고결한 선비정신이 배어 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 이 흰 바람벽에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 이 흰 바람벽엔 ///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스시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24]가 그러하듯이

–백 석 '흰 바람벽이 있어'

타향살이는 아닐지라도 50대 후반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묵었을 값싼 여인숙의 하룻밤, 그 빛바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 있다. "여행 마지막 날 나는 무료하게 누워 흰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여관이 으레 그렇듯 사랑해, 내일떠나 따위의 낙서가 눈에 띄었다 벽과 벽이 끝나고 만나는 모서리에 빛바랜 자줏빛 얼룩, 기묘한 흥분을 느끼며 얼룩을 바라보았다 / 두 세계의 끝이며 시작인, 모서리를 통해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다래순 냄새가 났다 ///"

–김선우[25] '산청 여인숙'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들이 몇 년 전에 벌써 과반이 되었다. 한국은 외국의 건축전공자들이 학위논문을 쓸 정도로 경이롭게 여기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시인은 남북의 대치상황을 비유하면서 단절과 불통의 아파트를 비판하고 있다. 벽 하나 사이로 너의 집과 나의 집을 구별하는 아파트의 벽. 방은 잠자는 사람의 관이 되기도 하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의 관이 되기도 한다.

10

11

10. 낙안읍성 관사부엌의 판벽 11. 담쟁이 벽

옆집 남자가 죽었다 /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는 죽어 있고 / 나는 살아 있다 그는 죽어서 1305호 관 속에 누워 있고 / 나는 살아서 1306호 관 속에 누워 있다 / 우리는 거울처럼 마주 보고 / 마주 보고 드러눕고 마주 보고 일어나고 / 마주 보고 맨몸에 물을 끼얹으며 / 마주 보고 확성기를 틀고 마주 보고 팬터마임을 하고 / 마주 보고 대포를 겨눈 채 / 오늘 나는 옆집에 문상가지 않는다 ///관이나 방이나 그와 나는 호수가 다르니까

–김혜순 '남과북'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빵을 배고픈 이들에게 나눠주는 마음, 벽을 허무는 경지를 초월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다.

나는 이제 벽을 부수지 않는다 / 따스하게 어루만질 뿐이다 / 벽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어루만지다가 / 마냥 조용히 웃을 뿐이다 / 벽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 봄눈 내리는 보리밭 길을 걸을 수 있고 / 섬과 섬 사이로 작은 배들이 고요히 떠가는 / 봄 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수 있다 // 나는 한때 벽속에는 벽만 있는 줄 알았다 / 나는 한때 벽속의 벽까지 부수려고 망치를 들었다 / 망치로 벽을 내리칠 때 마다 오히려 내가 / 벽이 되었다 / 나와 함께 망치로 내리치던 벗들도 / 결국 벽이 되었다 / 부술수록 더욱 부서지지 않는 / 무너뜨릴수록 더욱 무너지지 않는 / 벽은 결국 벽으로 만들어지는 벽이었다 //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 그 빵을 들고 거리에 나가 /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정호승 '벽'

다음호에 계속

24)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삶은 불행했지만 고결하게 살았던 시인들이다.

25) 김선우. 1970. 강릉.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외

한국건축 태동의 주역 —예산지역 건축사 김세환(Ⅲ)

Architect, Kim, Se-hwan, From Yesan, Who Pioneered Korean Architecture.

해방 이전과 이후 근현대건축과 작품활동(1950~1970)을 중심으로

김득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농지개량조합

Agricutural Land Improvement Association

대지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147
대지면적 : 7,131.00m²
건축면적 : 565.00m²
연 면 적 : 892.00m²
건 폐 율 : 7.92%
용 적 률 : 12.51%
규　　모 : 지상 2층
구　　조 : R.C조, 조적조, 슬라브
설　　계 : 김세환
감　　리 : 김세환
준　　공 : 1963년 5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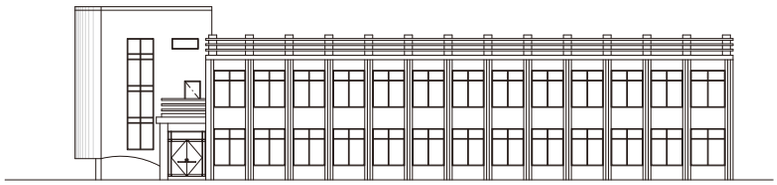
공사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면서 30여 년 만에 완공을 보게 된 예당저수지 축조물은 일제 강점기시대 시작으로 해방과 더불어 중단과 6 · 25전쟁으로 4 · 19혁명을 거쳐 군사정부가 미곡 증산의 목적으로 1964년에 완공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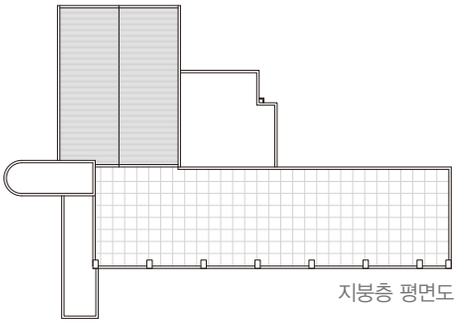
1946년 11월 예당수리조합으로 인가된 본 조합은 1962년 1월 21일 예당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하였고, 예당저수지 축조 중에 본 지사건물은 김세환의 설계로 1962년 9월에 착공하여 1963년 5월에 준공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그 당시 충남도청은 웅장함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외관은 루버가 강조된 건축물로 채광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고, 주출입구와 계단의 동선계획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강한 MASS의 돌출된 계단을 중심으로 남측수직루버와 서측 수평수직루버의 대표적 변화를 비례적으로 조절하여 정면성을 부각시켜 줌으로써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옥상의 콘크리트 투영난간과 파라펫은 모던한 느낌을 주는 요소로써 그 당시 60년대의 현대 건축물로 뛰어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외형은 옛 모습 그대로 보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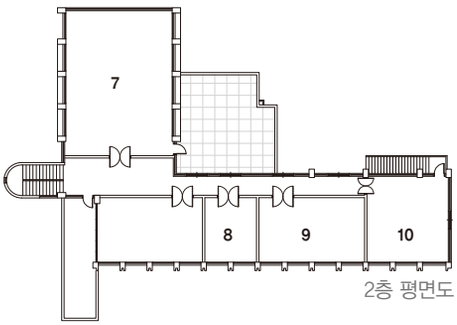
현관

계단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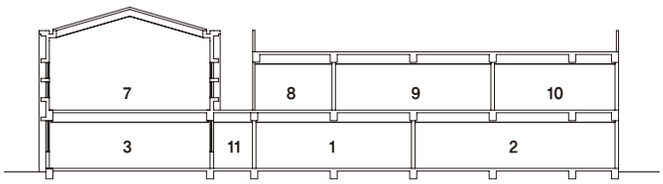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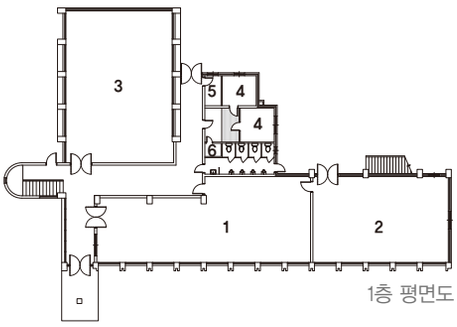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_행정실
2_기술실
3_관리실
4_방
5_보일러실
6_샤워실
7_대회의실
8_지사장실
9_소회의실
10_상황실
11_복도



단면도



1층 평면도

예산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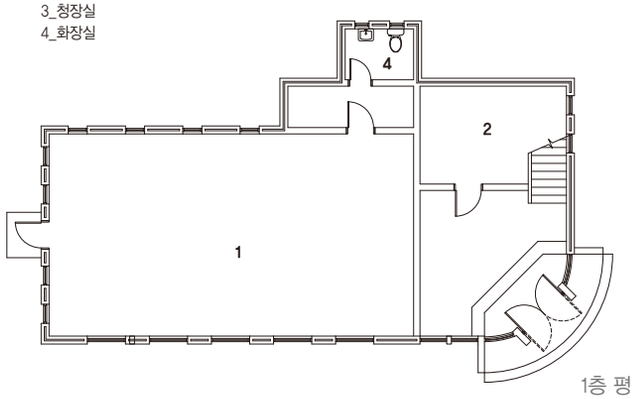
Yesan Education Office

대지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4-1외 2필지
대지면적 : 870.00㎡
건축면적 : 98.00㎡
연 면 적 : 196.00㎡
건 폐 율 : 11.26%
용 적 률 : 22.52%
규　　모 : 지상 2층
구　　조 : 조적조, 목조마루, 함석경사지붕
설　　계 : 김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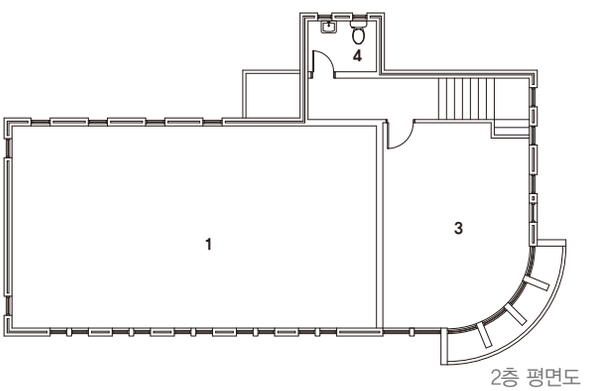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교육청 청사로 35년간 사용하였던 건물로 외피는 백색의 벽면을 바탕으로 긴 창은 수직감을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1층과 2층 창 크기를 비례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하중감을 느끼도록 디자인 되었다. 또 입구 정면에 부분적으로 루버를 사용함으로써 정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산 교육구청 청사

1_사무실
2_등사실
3_청장실
4_화장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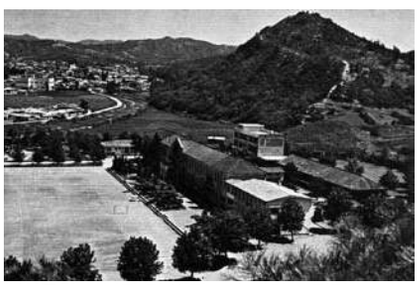
중앙극장(현. 역전마트)

Joongang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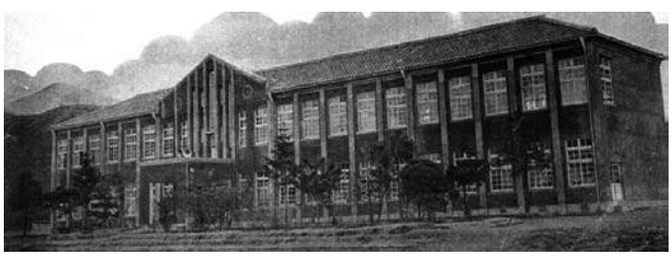
대지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13-9
대지면적 : 1,143.00㎡
건축면적 : 750.60㎡
연 면 적 : 847.10㎡
건 폐 율 : 65.66%
용 적 률 : 74.11%
규　　모 : 지상 2층
구　　조 : 연화조, 조적조
설　　계 : 김세환
준　　공 : 1965. 11. 10.

1960년대 도시 번화한 거리에 건축된 극장으로 전성기를 지나 현재 근생마트로 사용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의 업종변화로 본래 내부의 모습은 알 수가 없으나 내부 무대와 객석에 기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화전용극장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내부 2층 영사실과 외부 정면입구 그리고, 2층 영화상영 포스터 부착을 위해 강조된 정면 부분과 일부 측면은 본래의 모습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예산중학교 본관 및 별관교사 배치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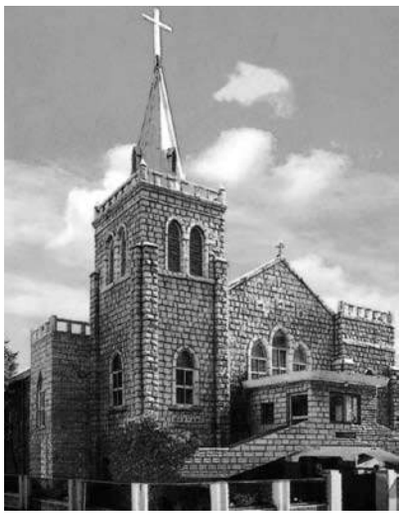
본관 포치 부분


예산중학교 본관 건물

예산중학교 본관 및 별관

- **위치** : 예산읍 주교리 350
- **구조** : 조적조, 목조마루, 기와
- **규모** : 지상 2층
- **연도** : 1957년 3월 준공
- **유무** : 철거
- **설계** : 김세환
- **감리** : 김세환

중고등학교 분리로 인하여 1951년 10월 1일 개교(18학급) 중학교가 신설되었다. 6 · 25사변 종전 후에 새로운 교사가 필요함에 따라 예산읍 주교리 350번지에 조적조 2층 본관 및 별관 건축물이 1957년 3월에 준공되었다. 그 이후에 예산농업고등학교에서 중학과정 전교생들이 현재의 건물로 이사하게 된다. 예산중학교 본관은 전체적으로 횡적인 비례 속에 현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칭이 이루어진다. 1층의 본관 포치 부분이 깊은 음영을 만들며 2층 이상의 몸체를 가볍게 들어올린다. 중앙에 표현된 강한 수직적 요소는 시각과 동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산제일감리교회

예산제일감리교회

- **위치 :** 예산읍 예산리 479-9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석조
- **규모 :** 지상 2층(2000년 철거)
- **연도 :** 1962년 6월 19일 준공(착공 후 8년)
- **건축면적 :** 115.96㎡
- **연면적 :** 241.28㎡
- **설계감리 :** 김세환

예산제일감리교회는 1955년 5월 9일 기공하여 1962년 6월 19일 완공까지 8년간 공사가 진행된 건축물이다. 고딕양식인 종탑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설계와 감리는 물론 감독까지 맡으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인 작품 중 하나다. 2000년도에 철거된 이 건축물은 보전가치가 있는 종교건축물로서 아쉬움이 더할 따름이다.

반공회관(자유회관) 전경

자유회관의 정면(구 반공회관)
2001년 해체직전의 마지막 모습

반공회관(자유회관)

- **위치 :** 예산읍 대회리 247-11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규모 :** 지상 2층(2002년 철거)
- **연도 :** 1970년 준공
- **부지면적 :** 2,232㎡
- **연면적 :** 1,497㎡
- **수용인원 :** 500명
- **설계감리 :** 김세환

반공회관은 예산문예회관 건축물이 없던 시절에 유일하게 집회장소로 사용된 건물이다. 이 건축물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비품, 의자 하나하나까지도 군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반공의식 교육장으로 크고 작은 집회장으로 이용해 왔다. 군민의 성금과 정성이 담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회관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던 건축문화 유산을 오히려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군 당국이나 문화원이 50여년 된 애환이 깃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문화원을 이전 신축한데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평촌초등학교 본관

조림초등학교 본관

장복초등학교 본관

동신초등학교 본관

구만초등학교 본관

주교초등학교 본관

평촌초등학교 외

1950년대는 2층도 짓기 어려운 시대에 구하기 힘든 건축자재와 부족한 기능공 등으로 주로 시멘트벽돌로 지어진 초등학교 건축물은 1, 2 교실로 시작하여 양쪽 옆으로 연결 증축 또는 1층 위에 2층으로 증축, 자재는 주로 민군정 원조로 목재, 시멘트, 철근 등을 의존해 건축되었다.

시멘트벽돌은 현장에서 제작한 검사제품을 신축 및 증축에 사용하여 해마다 1, 2교실식 이어온 학교다운 건축물들이다. 통학거리와 늘어나는 학생을 고려하여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 신축 · 증축을 하였다.

한국 근 · 현대 건축기술사연표(3/3)

Modern Korean Architectural Technology Chronological Table

한동수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송이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부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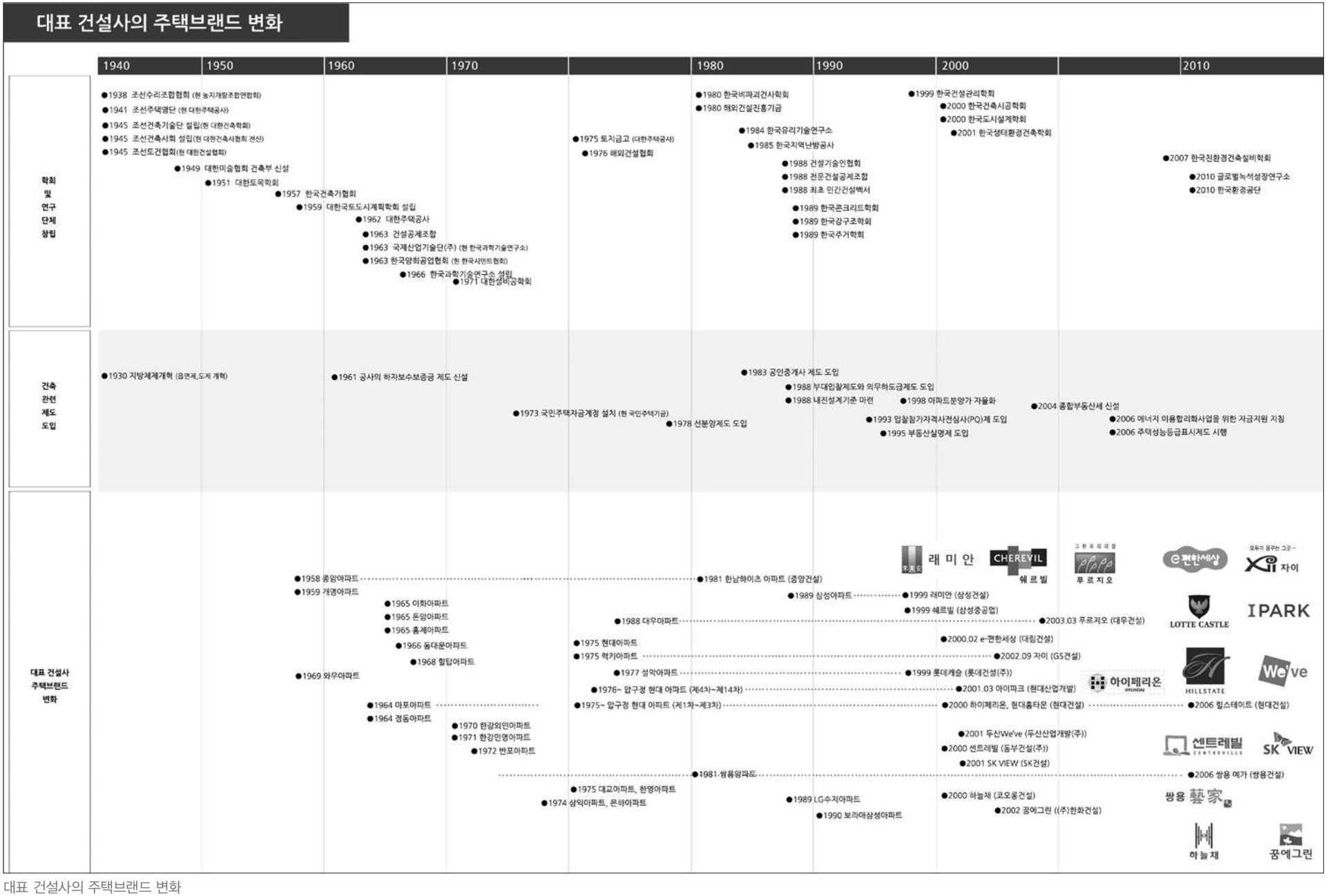
대표 건설사의 주택브랜드 변화

우리나라의 주택 브랜드의 기원을 따져본다면 아마도 일제강점기 경성 내외에 주택지를 개발하면서 지명을 취해 붙인 신당정 주택지, 명수대주택지, 돈암정주택지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앞선 것으로는 관공서와 공장의 관사와 사택에 붙여진 철도관사, 조선은행관사, 총독부관사 등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관공서나 회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므로 건설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건설사와의 관계로 본다면 1930년대 조선토지주식회사의 주택지개발이 그 시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브랜드라고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유사한 사례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1937년 11월 21일자 동아일보 광고에 등장하는 공덕정쌍룡대(孔德町雙龍臺) 주택사무소의 주택분양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해방 이후에는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종암아파트, 정동아파트처럼 지역의 이름을 붙인 아파트 브랜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의 등장과 더불어 건설회사의 이름이 곧바로 아파트의 브랜드화 되거나 보라매삼성 아파트처럼 지명과 건설회사의 이름을 함께 붙여서 부르는 경향을 보였다. 한때는 순수 한글을 이용한 브랜드도 유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센트레빌과 같은 영문, 푸르지오 같은 변형된 한글, 래미안 같은 한자, 하늘채 같은 순수한글 등 건설사별로 이미지 전달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명칭의 브랜드화 전략은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와 상호관계가 있으며 이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삼성의 래미안이 1999년 상표권 출원을 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사의 명칭이 주택브랜드의 강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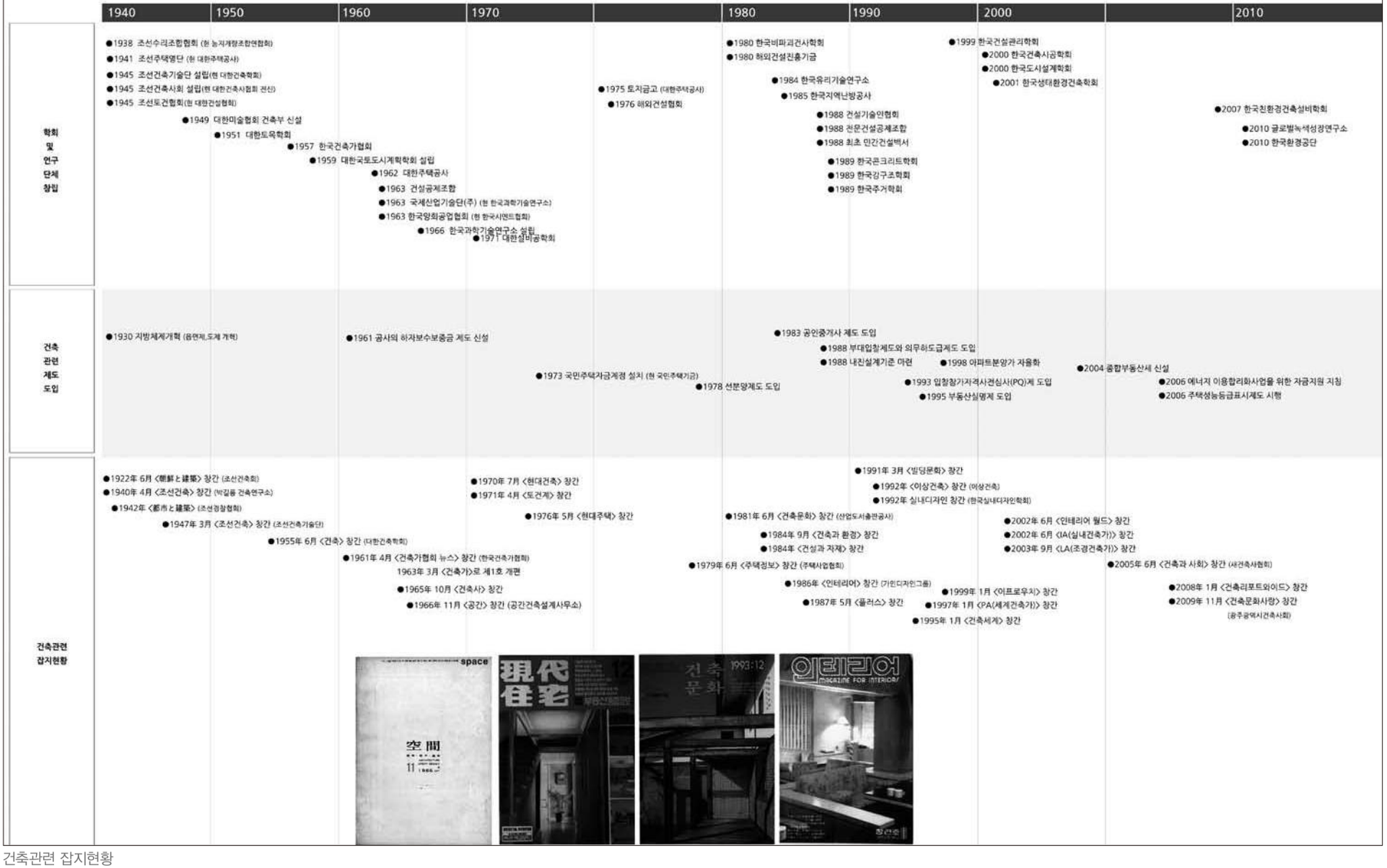
건축 및 건설 관련 잡지 창간의 변화

잡지는 정보의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인터넷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컸다. 해방 이전의 대표적인 건축잡지로는 조선건축회가 1922년에 창간한 〈조선과 건축〉을 들 수 있다. 이 잡지는 해방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건축계의 전반적인 정보 소개, 활동 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방 이후에는 학회를 중심으로 기관지들이 간행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건축잡지의 성격을 띠고 간행된 것으로는 1966년에 창간된 공간이 있다. 공간은 현재 국내에서 간행되는 건축잡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계에 대한 그 영향력을 매우 크다. 그리고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건축잡지들이 연이어 창간되었으며 이러한 건축잡지들은 외국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건축계의 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했다.



대표 건설사의 주택브랜드 변화

건축관련 잡지현황



건축관련 잡지현황

조립식 주택과 관련된 변화

1940 | 1950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조립 주택 관련 사회 상황

- ●1963 알미늄주택 건립
- ●1964 질석 조립식 주택 시범주택 건립 및 일반인 공개
- ●1961 종합경제재건 5개년계획 발표
- ●1962 대한주택공사법 공표
- ●1964 무주택자 25.3% (서울 50%, 부산 44%, 농촌 22%)
- ●1966 건설부의 주택난 해결책
  - 주택금고설립에 의한 주택융자재원의 증대
  - 유한지 개발 및 대단지 조성사업수행에 의한 택지의 대량공급하여 주택건축비 절감
  - 조립식주택건설촉진, 영가자재생산하여 주택건축비 절감
- ●1962 대한주택공사 발족
- ●1972 주택자재 전시회 개최
- ●1975 토지금고 창립 (대한주택공사의 전신)
- ●1971 한성프리패브주식회사 설립
  - -대한주택공사 51%, 일본대성건설 49% 출자
- ●1978 한일건설 설립
- ●1978 종합건축자재 생산 착수 및 조립식주택사업 진출 기업
  - 한일시멘트, 한국슬레트공업, 한양주택, 극동건설, 대림산업, 동아건설, 한일건재, 미륭건설, 삼도종합개발 동아종합개발, 삼환기업 등
- ●1971 한성프리패브주식회사 조립식 주택자재생산공장 제1공장 준공
  - -경기도 광주군 악생면 삼평리
- ●1976 한성프리패브주식회사 제2공장 준공
- ●1977 건설부 농촌조립식주택의 규격설계도6종 작성 및 보급
- ●1983 표준설계도 제작 및 보급
- ●1983 조립식 터널폼 거푸집 개발
- ●1983 유로폼 도입
- ●1990 주공, 첫 조립식공법 고층아파트에 적용 (12~15층, 인천 갈산지구)
- ●1990 (주)대우 미엔더슨사의 ASI공법 도입, DWS공법 개발
- ●1990 삼성종합건설, 덴마트 LNI공법 도입
- ●건설사 독자연구소의 붕
  - 1991 현대산업개발, 한일개발, 진로건설, 동부건설, 동산토건
  - 1992 한신공영, 한양건설
- ●1992 주요건자재 KS제품 의무화
- ●1992 삼성종합건설 PC구조성능실험
- ●1991 래디폼패널 개발 (현대건설)
- ●1991 겹단열 조립식벽체 개발 및 공급 (대양기술산업)
- ●1991 삼성종합건설 조립주택 자재생산공장 준공 (충북 음성)
- ●1991 조립식자재(PC)시스템 자체 개발 (현대산업개발)
- ●1992 하프슬라브식 공법 개발 (대한주택공사)
- ●1993 철골조 아파트 건설 도입 (삼성중공업, 포항제철)
- ●1993 공업화건축 심포지엄 개최 (대한건축학회)
- ●1988 풍림산업, 한국시포렉스 출범

기술 및 공법

국내組立式주택건설현황 <단위 : 가구>

구조별	연도별							
	72	73	74	75	76	77	78	計
韓成프리훼브	770	1,918	2,898	3,550	3,980	6,460	8,000	17,576
韓一建材					26	944	1,000	1,970
雙龍洋灰					84	300	1,000	1,384
大德프리훼브						100	500	600
漢陽住宅							1,106	1,106
栗山建設							561	561
計	770	1,918	2,898	3,550	4,090	7,804	12,167	23,197

●국내조립식주택건설현황, 1978년 5월 9일자 동아일보

●1987 조립식주택 98평형 모델하우스 건립과정

●사진은 조립식공법을 채택한 아파트건설현장
1989년 10월 11일자 매일경제

●삼성, 조립식工法(공법)"초고층"첫 건립
1989년 10월 11일자 매일경제

●1988 주택공사, 2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 (서울 상계동)
●1989 PDA공법 적용 - 청주 개신동 아파트
●1989 습식공법 적용 - 서울 도봉아파트, 수원 삼성아파트, 인천 만수아파트

●1978 한국건업이 수원시에 착공할 조립식 주택조감도

●1966 서울시 남가좌동 조립식주택 170동 건설

●1975 원호아파트 건설 (한성프리패브회사 도급시행)
●1977 경기 남양만간척지 조립식주택 건설 (쌍용건설)
●1977 경기 반월 신공업단지 26동 시범주택 건립 (한일건재(주))
●1978 전북 부안군 계화도간척지 조립식주택 건설 (한일건재공업(주), 대덕프리패브공업(주), 쌍용양회공업(주))

●1990 경남 창원 남산동 대우조선사원아파트, DWS공법 도입
●1990 풍림산업 조립식주택인 세미스피어 선보임

●대우에서 개발한 DWS적용한 컨트리클럽

조립식주택과 관련된 변화

그림4. 해방 이전 토지구획사업 보도와 공덕정쌍룡대 주택사무소 광고, 그리고 해방 이후 주류를 이룬 건설회사의 이름과 동일한 아파트 명칭들

조립식 주택과 관련된 변화

조립식 주택은 양산주택 또는 공업화주택이라고도 부르며 비용절감과 대량공급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택형식이다. 공장에서 규격화된 부재 또는 유니트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조립을 하게 된다. 1960년대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1971년 대한주택공사와 일본 대성건설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성프리패브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조립식 주택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조립식 주택은 무리한 공사기간의 단축, 기술력의 부족 등으로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나 이후 다수의 민간 건설회사들이 참여를 하면서 기술보안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특히 1990년대 민간 건설회사에서 독자적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후 시공방법의 다양화와 시공방법 및 자재를 기반으로 한 용어의 증가로 조립식 주택의 용어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PC 혹은 아파트라는 용어로 전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향후 본 연표의 활용과 보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건축기술사라고 하는 성격의 본 연표는 한국건축계의 흐름 속에서 관련 기관들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은 디지털의 시대이므로 본 연표를 회사나 관련 학회, 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연동시켜 사회적으로 건축기술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내용의 보완이나 수정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완성된 연표는 여전히 완벽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측면이다. 첫째는 세계건축계의 흐름과 본 연표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세계건축기술계의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삽입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각종 기술력이 반영된 국외의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여 국내의 실제 사례와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료 취득의 한계로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 건축기술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해져야 가능한 것으로 학계와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협회소식

제7회 이사회

2013년도 제7회 이사회가 지난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사자격 미등록 회원에 대한 조치의 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의 건, 법제위원회 운영방안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2013년도 건축사업무실적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건축사자격 미등록 회원에 대한 권리 정지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자격 미등록 회원에 대한 조치의 건
  - 등록시까지 회원 권리를 정지하고, 최대한 자격등록을 유도하기로 함.
- 제2호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의 건
  - 협의회의 통일된 운영을 위하여 표준규정을 제정하기로 하고, 표준규정(안)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법제위원회 운영방안의 건
  - 법제현안 TF는 회장 직속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운영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 : 2013년도 건축사업무실적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하기로 함.
    ▷ 추경예산(안) : 1,250,500,000원 → 1,132,500,000원(감 118,000,000원)
- 제2호의안 : 건축사자격 미등록 회원에 대한 권리 정지의 건
  - 건축사자격 미등록 회원(215명)에 대해서는 정관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만료일자('13.5.30)를 기준으로 회원 권리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자격등록시 복권하기로 함.
    ▷ 동 내용을 해당 건축사회 및 회원에게 통지

▲기타사항

-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와 협력업체(구조, 전기, 소방, 조경 등)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건축사 온라인 실무교육시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교육 수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 인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 요청함.
- 한국중부발전(주)에서 발주한 '당인리 서울복합발전소 공원화' 현상공모 참가자격에 건축사가 제외되어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향후 선유도공원 현상공모 등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주도록 요청함.
- 미국 등 외국에서는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포괄적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설계, 감리 등으로 제한적이므로 FTA/MRA 협상시 난항 예상
- 회의자료 목차에서 해당 내용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 요청함.

대한건축사협회 송기덕 전임회장 별세, 지난 8월 8일 향년 81세로

우리협회 제17대 회장(88.11.29~90.12.21)을 역임한 송기덕(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임회장이 지난 8월 8일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故 송기덕 전임회장은 서울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평생 동안 건축계에 몸담으며 작품 활동과 건축사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원로 건축사로서 종합건축연구소에서 근무한 뒤 1985년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소했다.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대한건축학회 이사, 한국무역협회 고문, 대법원 건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표작으로는 양양 국제공항, 용두동 감리교회, 태릉 국제실내빙상장, 국립경찰병원 등이 있다.

지난 8월 10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직원 및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지는 모란공원이다.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중앙윤리위원회

제1회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광주건축사회 정회원 재심청구에 관한 건
  - 윤리위원회 규정(제8조) 및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관례에 따라 김권수 등 17명에 대하여 소명절차를 밟기로 하고 해당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함.
  - 차기 회의에는 김권수 회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광주건축사회 전임회장(심상봉)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청하기로 함.

▲기타사항

- 차기 회의는 검찰조사결과와는 별개로 김권수 등 17명으로부터 요청자료가 도착하면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날짜를 정하여 개최하기로 함.

■ 제1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1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의 건
  - 회원들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사례와 입찰, 계약상의 부당성에 대한 사례들을 각 시.도건축사회 협조를 통해 수집하여 심도있게 연구하여 대응하기로 함. (사례집을 작성하여 인허가 관청 및 주요 발주처에 배포키로 함)
  - 한 달에 1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 제3회 사업위원회

제3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 및 자재추천업무규정 개정의 건
  - 수정안으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하고,
  - 부칙의 시행일은 이사회 승인 통과 날짜로 하기로 함.
- 제2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부대행사 기획 및 업무분장의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 개막식은 협회행사로 필히 개최키로하고, 업무분장은 원안으로 결정함.
- 기타 : 한국건축산업대전 활성화 및 전시발전 계획
  - 지속적 논의키로 함.

■ 제2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제2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위원회 운영방안 협의 및 주제 선정의 건
  - "건축사" 라는 주제로 결정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각 위원들이 발의, 제출키로 함.
- 제2호 : 협회 현안의 건
  - '실내건축' 관련 건축법 개정안 관련 사항
    - ▷ '실내건축' 또한 건축사의 업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되 철저한 논리적 무장이 필요함.
  - 지능형 행정시스템 용역 과제 관련 사항
    - ▷ 각 지자체의 동일한 심의 시스템과 BIM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효율적 업무대가 등 건축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함.

■ 제3회 회장직선제 TF

제3회 회장직선제 TF 회의가 지난 7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협의의 건
  - 정관개정(안)과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고, 개정(안)에 대해 위원 각자 검토의견을 사무처에 전달하여 다음 회의시 심도있게 논의키로 함.

■ 제2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운영위원회

제2회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위원 선임의 건
  - 2013년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위원을 선임함
- 제2호 :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심사기준 마련의 건
  - 심사기준표를 1. 창조적 역량 40%, 2. 장소성과 주변과의 조화 30%, 3. 작품의 완성도 30% 로 단순하게 수정하기로

함

• 제3호 :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운영규칙 개정의 건

–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운영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함

현 행	개 정
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본 행사의 운영을 위해 주최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행사 기본방향에 대한 결정과 세부집행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심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본 행사의 운영을 위해 주최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행사 기본방향에 대한 결정과 세부집행계획, 심사기준 및 추진상황에 대한 심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심사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무로 하며, 독립적으로 심의 · 의결한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및 의결방법 2. 수상대상 또는 수상대상자의 선정	**제7조(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심사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무로 하며, 독립적으로 심의 · 의결한다. 1. 심사방법 및 의결방법 2. 수상대상 또는 수상대상자의 선정

■ 제2회 협동조합 TF

제2회 협동조합 TF 회의가 지난 8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협동조합 지침서 발간의 건

– 건축사 협동조합 지침서 발간에 대하여 논의함.

김영수 회장,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개최 준비 차 서울시청 방문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FIKA 대표회장)은 지난 7월 31일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방문, FIKA대표회장으로서 이건기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을 면담하며 UIA 서울세계 건축대회 준비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회 유치 주체인 FIKA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며, 내년도 서울시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안 작성과 시 의원 설득에 협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회는 8월 중 운영규정 제정 및 조직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안 작성, 설립자금 모금 등의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준비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발대식은 9월 26일 건축의 날에 진행한다.

김영수 회장, 국토교통부 기자실 방문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8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수 회장은 건축사의 역할, 대한건축사협회 현황 및 2017 UIA서울세계건축대회 준비상황 등을 소개하며 "올바른 건축사의 가치 구현 및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올 하반기에 집중된 건축문화진흥행사를 개최해 건축사와 대중이 함께 즐길 예정이며, 언론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감을 나눌 것"이라고 말하는 등 참석기자들과 건축계 현안, 협회운영방향에 대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인천건축사회,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조동욱)는 지난 7월 18일 이사회를 겸하여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협회정책 및 행정업무 추진경과 설명과 함께 김영수 회장과 인천 임원들 간의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와 답변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건축물 설계 · 감리 제도개선에 대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

률(안)' 올해 말까지 입법완료 – 국토부에서 10월까지 한국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서 국토부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협회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에너지평가사, 실내디자인 및 구조기술사의 업역 확대에 대한 대응 필요 – 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시험에 대한 정보자료집을 작성해 시도에 배포할 예정. 실내디자인 및 구조기술사의 건축사 업역침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관련 허가권자 지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세금부과에 대한 대안 필요 – 각 시 · 도건축사회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도자체적으로 별도 확인 필요, 복식 부기 시행은 몇 년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

△자격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근절방안 마련 – 시 · 도건축사회 자체조사를 통해 본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조치하겠으며, 각 시 · 도건축사회의 별도 확인 필요

△설계도서 신고 법적의무화 추진 필요 – 협회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건축사 교육원 교육제도 조기정착 – 현재 진행 중인 건축사실무교육은 이미 국토부와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시행에 대한 변경은 9월부터 새롭게 개정해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 등 이상 협회 주요현안 및 법제도 개선 관련한 내용들이다.

제주건축사회, 제주국제대 건축디자인학과에 발전기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고봉규 회장을 비롯한 강영준 부회장, 진영권 사무국장 등 회장단은 지난 7월 23일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미 제주건축사회와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는 산학협동 등의 교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건축사회 회원들은 학생들의 졸업작품전 등 학과행사에 참석해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학과 재학생들은 제주건축사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학과 교수들은 건축사회 회원들을 위한 강연회, 세미나, 실무연수교육 등에 연구 발표자나 토론자로 참석해 제주건축사회 발전과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강남지역건축사회, '2013 강남구건축사회 세미나' 개최

강남지역건축사회(회장 조재용)는 지난 7월 10일 삼성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2013 강남구건축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속 건축사 회원 216명이 찾아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세미나는 김영실 (주)SB환경디자인 소장의 '건축설계에서의 현행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와 최동규 건축사(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 산정 및 건축주 제안 요령'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비회원 건축사 145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강남지역건축사회 관계자는 "많은 비회원의 참석으로 성공적 행사가 됐다"며, "향후 협회의 교육 행사에 비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회원과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회원가입 및 모든 건축사의 단합을 도모함으로써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지역건축사회, 수재민 돕기 봉사활동 가져

춘천지역건축사회(회장 유은선)는 최근 국지성 폭우로 가옥의 침수 피해를 입은 효자1동 및 효자2동 동사무소를 방문해 쌀 50포(10㎏)씩 총 100포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0일에는 건축사 회원 및 가족,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동내면 학곡리 침수 가옥을 방문해 토사와 가재도구를 말끔히 정리하는 등 실의에 빠진 수재민에게 온정을 손길을 내밀었다.

춘천지역건축사회는 2011년부터 춘천시와 '1사 1문화제 지킴이' 협약을 체결하고 월1회(매월 4째 주 토요일) 회원 및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실무를 위한 책자 발간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8월 8일부터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매뉴얼'을 발간한다. 매뉴얼은 지난 7월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은 건축사 회원에 한해 1만원에 판매하며, 이후에 신청한 회원에게는 1만5,000원, 비회원에게는 2만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건축사 협동조합 지침서'도 발간해 건축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 지침서는 전국 각 시도건축사회에 10부씩 배포되며,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회원전용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 매뉴얼/02-3415-6832~4), 기획팀(건축사 협동조합 지침서/02-3415-6822~3)으로 하면 된다.

'2013 전국건축사 미술전' 작품 접수

'한국건축산업대전 2013'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열리는 '2013 전국 건축사미술전'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COEX Hall 'A'(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전국 건축사 미술전에 출품을 원하는 회원은 오는 9월 17일까지 작품 슬라이드와 출품원서(사진부착)를 제출하면 되며, 출품원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과 웹하드(ID:kiraweb/PW:5712)에서 받으면 된다. 작품규격은 10~100호, 매수는 1인당 3점 이하다.

이번 미술전은 대한건축사협회 미술동호회(회장 임장열)가 주최하며 '건축사의 정서가 순수 미술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보다 좋은 건축을 창조할 수 있다'는 모토로 개최된다. 한국건축산업대전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 이인경(성립 종합건축사사무소), 02-544-6684

2014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 논문공모 안내

2014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가 오는 8월3일부터 8월7일까지 5일간 남아공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세계 6,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 대회의 세계건축대회 학술위원회는 본 대회의 주제를 다룬 논문 요약문의 접수를 받고 있다. 논문 요약문은 대회 공식홈페이지(www.uia2014durban.org)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하고, 옥스퍼드 요약문에 등록되어야 하며, 제출된 요약문은 '대회 주제와의 연관성', '독창성', '학문적 엄격함', '기준지식에의 기여'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모든 요약문은 온라인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요약문의 제목은 50단어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본문의 내용도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본 논문공모와 관련하여 대회 주제와 주요일정은, 먼저 대회 주제는 '다른 곳으로의 건축(Architecture Otherwhere)'이며 3개의 세부 주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세부주제는 회복성(Resilience)로 출현(Emergence), 빈곤퇴치(Poverty Alleviation), 공간적-지정학적 경제(Spatial and Geo-political Economies)와 같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회복성의 개념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분절된 경제의 재구성을 위한 정부 및 정부투자의 중요역할을 강조한다.

두 번째 세부주제는 생태학(Ecology)로 시간(Time), 진화(Evolution), 체계(Systems), 과정(Processes) 및 환경적 관심사(Environmental Concerns)를 포함한다. 본 세부주제는 더 크고 상호 연결되고 체계적인 네트워크에서의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장기적 디자인 관점을 장려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세부주제는 가치(Values)이며, 주요 영역은 건축환경 전문직에서의 실무(Practice)와 교육(Education)이다. 2014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는 국제적 실무와 관련한 아프리카 사례를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대회는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을 위한 공동의 상호작용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성할 것이다.

-요약문 제출마감 : '13. 10. 31
-요약문에 대한 피드백-채택여부 통보 : '13. 12. 01
-전체논문 제출마감 : '14. 03. 01
-전체논문에 대한 피드백-채택여부 통보 : '14. 04. 01
-대회 등록을 위한 저자 접수마감 : '14. 05. 01
-인쇄가능본 제출마감 : '14. 05. 15
· 문의 : http://www.uia2014durban.org/inside_the_event.htm

국제교류재단, 네덜란드 건축 디자인전 개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8월 14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서울 중구 수하동 센터원빌딩의 재단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새로운 메시지: 네덜란드 건축 · 디자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의 건축과 디자인을 선도하는 네덜란드에서 최근 4년간 만들어진 작품을 조명해 네덜란드 건축 · 디자인의 현재를 보여주고, 작품들의 사회문학적 배경과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새로운 가치를 알아본다.

전시는 기존 건축물에 다른 공간을 증축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축 섹션(RE:USE)과 인간행동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과 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섹션(RE:MIND) 등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RE:USE'에는 12개의 건축 작품이 선보인다. 건물 일부를 보존하는 동시에 기존 건물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 '루드허호프'가 대표작이다.

'RE:MIND'에는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 본질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 문의 : 한국국제교류재단 02-2046-8500 seann@kf.or.kr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 녹색건축물을 발굴 · 시상하는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패시브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준공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참가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참가신청자에 한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받는다. 심사에 따라 국건위원장상 1점(대상, 상금 500만원)과 국토부, 문화부, 산자부 장관상 3점(최우수상, 상금 각 300만원), 주관 및 후원 기관장상 7점(우수상, 상금 각 100만원)을 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

주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3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는 10월 25일, 전시회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신간안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시의 사람들

히메네스 라이 저 · 김윤범 역 | 144쪽 | 픽셀하우스

시카고 일리노이대학 교수이자 '뷰로 스펙터큘러'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히메네스 라이의 신간 건축 그래픽 노블『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시의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만화를 통해 건축적 이론과 사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단편영화처럼 구성된 10개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통해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미래 모습을 보여준다. 독립적인 각각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시작적인 장치들이 그런 흐름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각각의 주제에 관한 짧은 글로 건축적 생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집됐으며, 만화 형식으로 건축을 묘사하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도록 했다.

ARCHIROAD 3

윤재은, 윤상영 저 | 440쪽 | 기문당

건축은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서 무형공간에서 미학적 외형을 드러냄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창출한다. 이 책은 건축이 공간 속에서 담아내는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는 시도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유럽의 근현대 건축답사를 통해 공간에 담겨 있는 사유의 의미를 공간철학이라는 커다란 담론의 그릇에 담아내어, 건축물에 담겨진 공간적 순간들을 함축적 언어를 빌어 엮은 결과물이다.

유럽의 각 도시와 국가가 담아내는 문화적 향기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지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도시의 얼굴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느낀다. 건축가에게는 건축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무형의 존재를 나타내는 실체로 무형의 공간을 바라보고 진정한 존재적 가치를 찾아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유럽의 근현대건축의 건축물에 담겨있는 영혼의 언어들을 건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공간철학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초점을 맞춰 건축, 철학, 미학, 세계사의 통섭을 통해 건축공간을 바라본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08-0400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1)285-7563~4**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광양지역건축사회/(061)726-6878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285-7563~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1 · 합천지역건축사회/(055)-933-293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_Kim, Eunmee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초원 위 오두막

Cabin on the Lawn

렌조 피아노가 가구제조사 Vitra를 위해 설계한 초소형 이동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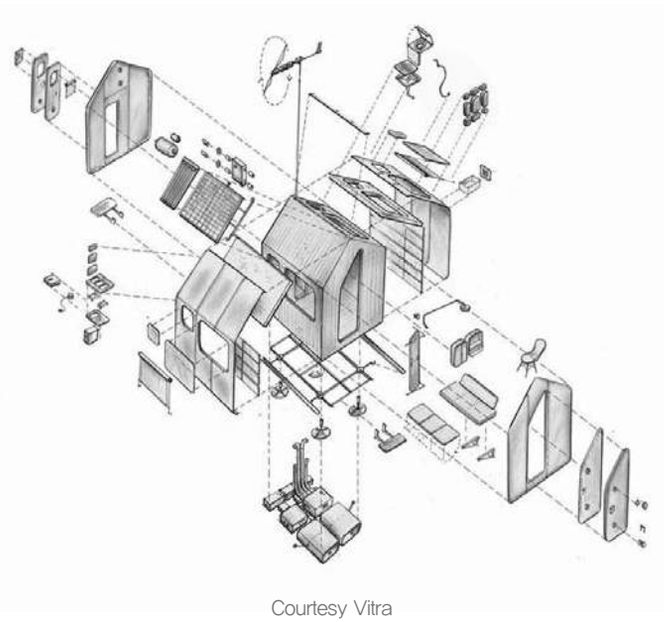
Julien Lanoo for Vitra

최근 건축사 렌조 피아노가 극강의 미니멀 디자인으로 만들어 낸 검박한 자족공간은 "대단한 그 무엇은 작은 상자에 온다"라는 옛 격언이 유효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공간은 제노바 출신 건축사 렌조 피아노가 건축 제조사 'Vitra' 를 위해 설계한 2000 ×2000 바닥 넓이를 가진 자급자족 오두막이다. 이 이동식 은둔공간은 지금껏 렌조 피아노의 사무실(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 RBPW)이 지금껏 전형적으로 맡아 설계해 왔던 일과는 사뭇 성격을 달리 한다. RBPW는 2012에 완공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The Shard in London과 같은 큰 스케일의 건물들을 설계해 왔다.

그런 렌조 피아노가 이번에는 단지 내부 장착 접이식 소파와 의자, 그리고 벽면 고정식 작은 테이블만이 포함된 오두막을 설계 하였다 – 그는 이 일을 십년 전, 의뢰 받은 일이 아닌 그 스스로 시작했었다. 그는 제노바 그의 사무실에서 몇 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기도 했으나, Vitra의 의장 Rolf Fehlbaum이 2010 이 프로젝트를 알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오두막이 제대로 훌륭히 정리 되어 실현 될 수 있게 되었다.

Julien Lanoo for Vitra

이 오두막은 나무 배럴통에 살며 가진 것이라곤 한사람 겨우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재산의 전부였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름을 따 디오게네스라 이름 지어졌다. 겉으로 보이기에 이 오두막은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한 디자인과 따뜻하게 느껴지는 나무 소재로 인테리어가 마감 되어 있어 단지 매끈하고 미니멀 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에 소박해 보이는 작은 공간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 복잡한 기계 시설들이 가득 차 있다.



Courtesy Vitra

렌조 피아노는 이 오두막을 위해 팀버 프레임을 사용했으며, 나무 마감 인테리어, 그리고 변화무쌍한 기후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알루미늄 클래딩 시스템을 선택했다. 우수를 탱크에 모으고, 걸러서, 샤워와 주방용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바이오 화장실을 설치하여 정화조들의 설비와 비용, 환경을 고려하였으며, 태양광 집열판으로 생성한 전기로 온수와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난 6월 이 오두막 한 채는 독일 Weil am Rhein의 Vitra 캠퍼스에 설치되었다. 이 오두막은 Herzog De Meuron이 설계하고 공공에게 개방된 VitraHaus 건너편 초원 위에 자리 잡고 있다.

Julien Lanoo for Vitra

*윗 글은 The Architecture Newspaper의 기사 일부를 발췌, 인용, 번역 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7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065	6,065	86	172	7	21	6,158	6,258	1,747	1,747	234	468	60	180	24	96	15	101	2,080	2,592	8,238	8,850
서울	945	945	21	42	0	0	966	987	886	886	125	250	41	123	12	48	10	60	1,074	1,367	2,040	2,354
부산	526	526	10	20	2	6	538	552	121	121	25	50	1	3	1	4	2	14	150	192	688	744
대구	520	520	20	40	4	12	544	572	71	71	14	28	4	12	2	8	0	0	91	119	635	691
인천	288	288	3	6	0	0	291	294	62	62	7	14	1	3	0	0	0	0	70	79	361	373
광주	219	219	1	2	0	0	220	221	42	42	6	12	3	9	2	8	0	0	53	71	273	292
대전	269	269	5	10	0	0	274	279	32	32	7	14	4	12	1	4	1	12	45	74	319	353
울산	195	195	4	8	0	0	199	203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23	230
경기	849	849	2	4	0	0	851	853	249	249	17	34	3	9	2	8	0	0	271	300	1,122	1,153
강원	202	202	2	4	0	0	204	206	23	23	2	4	0	0	1	4	0	0	26	31	230	237
충북	226	226	2	4	0	0	228	230	41	41	3	6	2	6	2	8	1	9	49	70	277	300
충남	296	296	1	2	0	0	297	298	57	57	7	14	0	0	1	4	0	0	65	75	362	373
전북	270	270	4	8	0	0	274	278	27	27	5	10	1	3	0	0	0	0	33	40	307	318
전남	214	214	0	0	0	0	214	214	23	23	2	4	0	0	0	0	1	6	26	33	240	247
경북	415	415	4	8	1	3	420	426	39	39	5	10	0	0	0	0	0	0	44	49	464	475
경남	492	492	6	12	0	0	498	504	37	37	4	8	0	0	0	0	0	0	41	45	539	549
제주	139	139	1	2	0	0	140	141	16	16	2	4	0	0	0	0	0	0	18	20	158	16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850	100%
서울	2,354	27%
부산	744	8.4%
대구	691	7.7%
인천	373	4.2%
광주	292	3.3%
대전	353	4.0%
울산	230	2.6%
경기	1,153	13%
강원	237	2.7%
충북	300	3.4%
충남	373	4.2%
전북	318	3.6%
전남	247	2.9%
경북	475	5.3%
경남	549	6.2%
제주	161	1.8%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3년 8월중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1,752	1,942
서울	3,789	1,349
부산	749	67
대구	685	35
인천	373	5
광주	304	39
대전	346	34
울산	232	22
경기	1,418	70
강원	258	11
충북	318	55
충남	375	49
전북	330	19
전남	274	46
경북	484	19
경남	583	29
제주	165	24
기타	1,069	69
비고	회원 : 8,659 / 비회원 : 3,093	대학 : 1,756 / 대학원 : 186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258	2,592	8,850	
비율	70.71%	29.29%	100%	
사무소수	6,158	2,080	8,238	
비율	74.75%	25.25%	100%	